

전운치전 (田雲治傳)

(경판 37장본)

신 ○ 산 풀이

화설(話說)¹⁾, 고려말(高麗末) 남서부(南西部) 땅에 일위(一位)²⁾ 명사(名士)³⁾가 있으니, 성(性)은 전(田)이요, 명(名)은 숙이요, 별호(別號)는 운화 선생이라.

대대(代代) 공후(公侯) 자손으로 숙에게 이르러서는 청운(靑雲)⁴⁾에 뜻이 없어 몸을 산림(山林)에 숨기고 글을 숭상(崇尚)하며 혹(或) 벗을 모아 산천과 풍월(風月)을 문답(問答)하여 세월을 허비(虛費)하니, 시인(市人)⁵⁾이 이르기를 산중(山中) 처사(處士)⁶⁾라 하더라.

부인 최씨(崔氏)는 잠영거족(簪纓巨族)⁷⁾이요, 유한정정(幽閑靜貞)⁸⁾하여 색덕(色德)⁹⁾이 겸비(兼備)하니, 처사 상경상화(相敬相和)¹⁰⁾하여 동주(同住)¹¹⁾ 십여 년에 슬하(膝下)¹²⁾가 적막(寂寞)함을 주야(晝夜) 탄식(歎息)하더니, 일일(一日)은 최씨가 일몽(一夢)¹³⁾을 얻으니, 천상(天上)으로부터 한 떼구름이 내려오며 구름 속에서 청의동자(靑衣童子)가 벽련화(碧蓮花)¹⁴⁾를 쥐고 나와 부인에게 재배(再拜)¹⁵⁾ 왈(曰),

“소자(小子)는 영주산(瀛州山)¹⁶⁾에서 채약¹⁷⁾

(採藥)하던 선동(仙童)인데, 천상에 득죄(得罪)하여 인간(人間)으로 내치시매 갈 곳을 모르오니 부인은 어여삐 여기소서.”

하거늘, 부인이 대희(大喜)¹⁸⁾하여 다시 묻고 자 하다가 문득 깨달아 심신(心身)이 황홀(恍惚)하여 처사를 청(請)하여 몽사(夢事)를 이르니, 처사가 청파(聽罷)¹⁹⁾에 왈,

“우리 팔자(八字) 기박(奇薄)²⁰⁾하여 무후(無後)²¹⁾할까 슬퍼했더니, 이제 부인 몽사(夢事)²²⁾가 여차(如此)²³⁾하니, 이는 반드시 하늘이 귀자(貴子)를 점지하심이라.”

하며 기꺼워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胎氣)가 있어 십삭(十朔)이 차매, 일일은 채운(彩雲)이 집을 두르며 향취(香臭)가 진동(震動)하거늘, 처사가 정당(正堂)²⁴⁾을 췌소(刷掃)²⁵⁾하고 때를 기다리더니, 부인이 혼미(昏迷) 중(中)에 눈을 들어 본즉 전일(前日) 꿈에 보던 동자(童子)가 나아들거늘, 부인이 반가운 중에 정신이 아득하더니, 이윽고 일척(一尺) 옥동(玉童)을 낳은지라.

처사가 대희하여 일변(一邊)²⁶⁾ 부인을 구호(救護)하며 아이를 살펴본즉, 용모(容貌)가 화려(華麗)하고 기골(氣骨)이 장대(壯大)하니, 처

1)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말.

2) 한 분.

3) 이름난 사람.

4) 푸른 구름. 높은 지위나 벼슬.

5) 그 당시의 사람들.

6)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조용히 살던 선비.

7) ‘잠영’은 관원이 쓰던 비녀와 갓끈을, ‘거족’은 대대로 번창하고 문벌이 좋은 집안. 곧 ‘잠영거족’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문벌 좋은 집안.

8) 부녀자가 인품이 높아 매우 얄전하고 점잖음.

9) 여자의 미모와 아름다운 덕행.

10) 서로 공경하고 화목함.

11) 결혼하여 같이 거처함

12)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부모의 곁.

13) 한 꿈.

14) 푸른 연꽃.

15) 두 번 절함.

16) 전설상의 신선이 산다는 중국 삼신산(三神山) 중 하나로 중국의 진시황과 한무제가 불사약을 구하러 사신을 보냈다고 함.

17) 약초를 캐.

18) 크게 기뻐함.

19) 듣기를 다 마침.

20) 운수가 사납고 복이 없음.

21) 뒤를 잇지 못함. 즉 자식이 없음

22) 꿈에 나타난 일.

23) 이리이러하다.

24) 큰 집 안에 있는 여러 채의 집 가운데 가장 주된 집

25) 소췌. 쓸고 닦아 깨끗이 함.

26) 한편으로

사가 대희하여 왈,

“이 아이 꿈에 뵈던 동자니 이름을 운치(雲致)라 하고, 자는 몽중선(夢中仙)이라 하고, 별호(別號)를 구십자(口十子)¹⁾라.”

하여 애중(愛重)²⁾함이 비할 데 없더라.

운치 점점 자라 칠 세에 이르러는 처사가 글을 가르치매 총명(聰明) 영오(英悟)³⁾하여 문일지십(聞一知十)⁴⁾하니, 처사가 과애(過愛)⁵⁾하여 십 세에 이르렀더니, 슬프다, 흥진비래(興盡悲來)⁶⁾는 고금상사(古今常事)⁷⁾라.

처사가 홀연(忽然) 득병(得病)하여 백약(百藥)이 무효(無效)하매 부인을 청(請)하여 왈,

“내 헤아리건대 불구(不久)⁸⁾에 황천객(黃泉客)⁹⁾이 될지라. 아자(兒子)¹⁰⁾의 장성(長成)함을 보지 못함이 가장 유한(遺恨)이니, 부인은 모르지기 슬픔을 억제(抑制)하여 나의 부탁을 저버리지 말고, 운치를 양육(養育)하여 영화(榮華)를 보고 조선 향화(祖先香火)¹¹⁾를 받들어 백 세(百歲) 무양(無恙)¹²⁾하라.”

하거늘,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실성(失性) 체읍(涕泣)¹³⁾하여 말을 이루지 못하더니, 수일(數日) 후(後)에 처사가 기세(棄世)¹⁴⁾한지라.

부인이 벽용(擗踊)¹⁵⁾ 통곡하며, 운치 또한 호천(呼天) 망극(罔極)¹⁶⁾하여 자주 기절하매, 부인이 망극 중이나 아자를 염려하여 지극 위로

(慰勞)하며, 운치 비록 나이 어리나 집상(執喪)¹⁷⁾함이 예(禮)에 어김이 없어 초종(初終)¹⁸⁾을 극진히 하여 선산(先山)에 안장(安葬)하고 모친을 모셔 삼상(三喪)¹⁹⁾을 지효(至孝)로 지내니, 향당(鄉黨)²⁰⁾이 탄복(歎服)하더라.

각설(却說)²¹⁾, 전처사(田處士)의 친봉(親朋)²²⁾ 윤공(尹公)이란 사람은 문장(文章)이 광박(廣博)²³⁾하고 명견만리(明見萬里)²⁴⁾하는지라.

운치, 서책(書冊)을 가지고 윤공께 수학(受學)²⁵⁾하더니, 일일은 운치 일찍 일어나 서책을 가지고 서당으로 갈새, 한 피를 넘어가더니 죽림(竹林)이 무성(茂盛)한 곳에 한 계집이 소복(素服)을 단정히 하고 앉아 울거늘, 운치 시이 불견(視而不見)²⁶⁾하고 지나가서 윤공께 글을 배운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본즉 그 처자(處子)가 그저 울고 있거늘, 운치 괴이히 여겨 나아가 보니 연광(年光)²⁷⁾이 삼오(三五) 이팔(二八)²⁸⁾은 하고, 용모는 옥(玉) 같아 아리따운 태도가 남자의 마음을 방탕(放蕩)²⁹⁾케 하는지라.

운치 나아가 위로하며 문(問) 왈,

“낭자(娘子)는 어느 곳에 있으며 무슨 일로 아침부터 일중(日中)³⁰⁾이 되도록 슬피 우느뇨?”

그 여자가 울음을 그치고 부끄러움을 머금고 답(答) 왈,

“나는 이 뢰 아래 있더니 서러운 일이 있어 우노라.”

하며 즐겨 이르지 아니하거늘, 운치 그 곁에

1) 전(田)자의 파자(跛者).

2)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김.

3) 준수하고 총명함.

4) 하나를 들려주면 열을 앎. 즉 머리가 뛰어남

5) 지극히 사랑하고 아낌.

6)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7) 옛날부터 흔히 있는 일

8) 앞으로 오래지 않음.

9) 죽은 사람.

10) 전운치

11)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

12) 몸에 병이나 아무 탈이 없음.

13)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

14) 세상을 뜬.

15) 상사(喪事)에 슬피 울며 가슴을 두드리고 몸부림을 침.

16) 부모나 임금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어 지극히 슬픔.

17) 아버이 상사에 있어 예절에 따라 상제 노릇을 함.

18) 초종장사(初終葬事). 초상이 난 뒤로부터 부고(訃告)까지의 장례 절차

19) 초상(初喪), 소상(小喪), 대상(大喪)의 삼년상.

20) 자기가 태어났거나 사는 시골 마을 사람들.

21) 화제를 돌림.

22) 친한 벗.

23) 학문이나 식견이 넓음.

24) 만리 앞을 내다봄. 관찰력이나 판단력이 매우 정확함.

25) 학문을 배우거나 수업을 받음.

26) 보고도 못 본체 함.

27) 나이

28) 십오 십육 세 가량.

29)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음.

30) 오정. 즉 점심 때.

나아가 간절히 물으니, 그 여자가 강잉(强仍)¹⁾ 대왈(對曰)²⁾,

“나는 맹어사(孟御使)의 딸이러니, 오 세(五歲)에 모친을 잃고 계모(繼母)가 들어온 후로 나를 부친께 참소(讒訴)³⁾하여 죽이고자 하매, 주야 서러워하여 자결(自決)하고자 하나 차마 못하고 이같이 우노라.”

하거늘, 운치 차언(此言)⁴⁾을 들으며 가장⁵⁾ 긍측(矜惻)⁶⁾히 여겨 왓,

“사람의 사생(死生)이 유명(有命)하니 남자는 부모유체(父母遺體)⁷⁾를 생각하여 살기를 도모(圖謀)하라.”

하고 인하여 옥수(玉手)⁸⁾를 잡으나, 그 여자가 조금도 냉담(冷淡)함이 없으며 혼연(欣然)히 교합(交合)⁹⁾하여 양정(兩情)¹⁰⁾이 환합(歡洽)¹¹⁾하다가, 이윽고 서로 떠날새 재삼(再三)견권(纏綿)¹²⁾하며 돌아가니라.

이튿날 운치가 윤공께 나아갈새, 그곳에 이른즉 그 여자가 나와 불러 왓,

“내 벌써 이곳에 와 공자(公子)¹³⁾를 기다린지 오래더니라.”

하거늘, 운치 반겨 손을 잡고 즐기다가 왓,

“아직 이곳에 있으라.”

하고 서당에 나아가니, 윤공 왓,

“네 오다가 여색(女色)을 범(犯)하였으니 글을 배워도 천지 조화를 통(通)치 못하리니, 네 이제 돌아가면 그 여자를 만날지라. 그 여자의 입에 구슬을 머금었을 것이니, 그 구슬을 앗아

다가 나에게 보이라.”

하거늘, 운치 수명(受命)¹⁴⁾하고 그곳에 이르러 그 여자를 만나 옥수를 잡고 죽림간(竹林間)으로 들어가 정회(情懷)¹⁵⁾를 펼새, 운치 보니 과연 여자의 입에 구슬이 있거늘, 한번 구경함을 청(請)한즉 즐겨 보이지 아니하니, 운치 정색(正色)¹⁶⁾ 왓,

“남자도 규중(閨中) 처자요, 나도 미혼전(未婚前)이때 피차(彼此) 부모께 고하고 원앙(鴛鴦)의 쌍을 지어 백년해로(百年偕老)하고자 하거늘, 남자는 어찌 나의 뜻을 좇지 아니하느냐?”

기녀(基女)¹⁷⁾가 말을 듣고 정(情)을 못 이겨 입을 서로 닿게 하고 혀를 내어 구슬을 굴려 운치 입에 넣거늘, 운치 받아 입에 넣고 오래도록 주지 아니하니, 여자가 보채다가 못 하여 운치의 입을 벌리고 내려 하거늘, 운치 인하여 삼켰는지라.

여자가 찾아 없음을 보고 일언(一言)을 못하고 방성대곡(放聲大哭)¹⁸⁾하며 들로 내려가거늘, 운치 무료(無聊)¹⁹⁾하여 돌아와 윤공께 자초지종(自初至終)²⁰⁾을 다 고하니, 윤공 왓,

“네 이미 호정(狐精)²¹⁾을 먹었으니 천문(天文) 지리(地理)를 통하며 지살(地煞)²²⁾를 부리고, 또 금년 사월에 진사(進士)²³⁾를 할 것이니, 이후(以後) 사(事)를 조심하라.”

하더라.

차설(且說)²⁴⁾, 운치 나이 십오 세에 이르러는

1) 마지못하여.
2) 대답하기를.
3)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침.
4) 이 말.
5) 매우.
6) 가련하고 불쌍히.
7) 부모가 남겨준 몸.
8) 여자의 아름답고 고운 손.
9) 사랑을 나눔.
10) 음양의 정기.
11) 즐겁고 흡족함.
12) 생각하는 정이 두터워 서로 잊지 못하거나 떨어질 수 없음.
13) 지체가 높은 집안의 나이 어린 아들.

14) 명을 받들고.
15) 정과 회포.
16) 얼굴에 엄정(嚴正)한 빛을 나타냄.
17) 그 여자.
18) 대성통곡(大聲痛哭).
19) 부끄럽고 열없음.
20)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21) 여우의 뉘.
22) 풍수지리에서 터가 좋지 못한 데서 생기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 일흔두 가지 변화.
23) 조선시대 과거의 예비시험인 소과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 칭호.
24) 화제를 돌려 말함.

문장(文章)은 이태백(李太白)¹⁾을 압두(壓頭)²⁾하고, 필법(筆法)은 왕희지(王羲之)³⁾를 대적(對敵)하며, 호정을 먹은 후로는 그 후 삼십육(三十六) 변화⁴⁾가 능통(能通)한지라.

이때 국가에서 감시(監試)⁵⁾를 보니, 운치 장중(場中)⁶⁾에 들어가 글을 지어 바친 후에 장원(壯元)에 오르매, 삼일유가(三日遊街)⁷⁾를 받고 집에 돌아와 모친께 뵈오니, 최부인(崔夫人)⁸⁾이 일희일비(一喜一悲)⁹⁾하여 왈,

“너의 부친이 생시(生時)에 과거(科擧) 보기를 즐겨 아니하더니, 이제 네 영화를 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리오.”

하더라.

이렇게 광음(光陰)¹⁰⁾이 여류(如流)¹¹⁾하여 명년(明年) 춘(春)이 되매, 운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찾아다니더니, 세금사라는 절에 이르러 본즉 천여 간(千餘間) 전각(殿閣)¹²⁾이 거미줄에 감춰졌고 중생(衆生)¹³⁾이 하나도 없는지라.

마음에 괴이히 여겨, 성림사에 내려오니 노승(老僧) 사오 인이 나와 맞거늘, 운치가 세금사 곡절(曲折)을 물으니, 노승 왈,

“세금사와 이 절 중이 천여 명이 되더니, 사오 년 내로 두 절의 재변(災變)¹⁴⁾이 있어 중생 등이 능(能)히 부지(扶持)¹⁵⁾ 못하여, 혹은 이산(離散)¹⁶⁾하며 혹은 간 데 없어 세금사는 다 비

었고, 이 절에 불과 노승 등 사오 명이라.”

하거늘, 운치 왈,

“이는 반드시 요열(妖孽)¹⁷⁾이 작난(作亂)¹⁸⁾함 이로다.”

하고 집에 돌아와 모친께 세금사 연고(緣故)¹⁹⁾를 고하니, 부인 왈,

“차후(此後)는 조심하라.”

하거늘, 이후로는 운치, 농업에 힘써 모친을 봉양(奉養)하더니, 일일은 세금사에 가 공부하여 명년 과거 봄을 고하니, 부인 왈,

“전에 들은즉 그 절에 요열이 많아 사람을 해(害)한다 하니, 어찌 그곳에 가려 하느뇨?”

운치 대 왈,

“사불범정(邪不犯正)²⁰⁾이오니 어찌 조그만 요물(妖物)²¹⁾이 침노(侵擄)²²⁾하리오. 모친은 과념(過念)²³⁾ 마소서.”

하고, 즉시 행장(行裝)²⁴⁾을 수습(收拾)하여 세금사로 갈새, 한 곳에 이르러는 층암절벽상(層巖絶壁上)에 일위(一位) 노인이 갈건야복(葛巾野服)²⁵⁾으로 청려장(靑藜杖)²⁶⁾을 짚고 한 가로이 섰거늘, 운치 나아가 예(禮)하니, 노인 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수고로이 예하느뇨?”

운치 대 왈

“노인이 이에 계시니, 소자(小子)가 어찌 무심(無心)히 지나오리이까.”

노인 왈,

“내 그대에게 줄 것이 있어 이곳에서 기다린 지 오래더니라.”

하고 소매에서 부용승(芙蓉繩)이란 노²⁷⁾와 부

1) 당나라 때의 시인인 이백(李白).

2) 상대방을 누르고 첫째 자리를 차지함.

3) 남북조시대 동진의 정치가이자 명필.

4) 삼십육계(三十六計). 전쟁에 쓰이는 36가지 계책.

5)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6) 과거를 보던 과장(科場)의 안.

7)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부모친척과 선배를 찾아 보는 일.

8) 전운치의 모친

9)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

10) 낮과 밤. 시간이나 세월

11) 물이 흘러감.

12) 누각.

13)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14) 재앙으로 말미암아 생긴 변고.

15) 매우 어렵게 보존하거나 버티어 나감.

16) 산산히 흩어짐

17) 요망한 귀신

18) 장난.

19) 사유.

20) 요사스러운 것은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함.

21) 하찮은.

22)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침.

23) 지나치게 염려함.

24)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25) 갈건과 베옷. 處士(처사)나 隱士(은사)의 소박하고 거친 의복.

26) 명아쫓대로 만든 지팡이

적(符籍)¹⁾ 한 장을 주며 왈,

“자연히 쓸 곳이 있으리라.”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운치 공중을 향하여 사례(謝禮)하고, 노와 부적을 가지고 세금사로 들어가 시동(侍童)²⁾에게 명하여 방장(方丈)³⁾을 쇄소(刷掃)하고 성립사 중에게 석반(夕飯)⁴⁾을 시켜먹고 축(燭)을 밝혀 글을 읽더니, 삼경(三更)⁵⁾쯤 되어 문득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와 엄연(儼然)⁶⁾히 곁에 앉거늘, 운치 눈을 들어 본즉 그 여자 연광(年光)이 이칠(二七)은 되었는데, 화려한 용모는 모란(牡丹)이 아침이슬을 머금은 듯, 선연(嬋娟)⁷⁾한 태도(態度)는 수양(垂楊)⁸⁾이 춘풍(春風)을 못 이기는 듯하매, 가히 장부(丈夫)의 간장(肝腸)을 녹이느니라.

운치, 신훈(神魂)⁹⁾이 황홀(恍惚)하여 왈,

“남자는 어디 있관대 이 심야(深夜)에 무슨 연고로 왔느냐?”

여자가 대 왈

“첩(妾)은 본디 사족(士族)¹⁰⁾ 부녀(婦女)로 가군(家君)¹¹⁾을 따라 장양 태수(太守)로 가다가, 도적을 만나 가족(家屬)¹²⁾을 다 죽이고 행장을 잃고 첩이 홀로 목숨을 도망하여, 낮이면 산중(山中)에 숨고 밤이면 행(行)하여 고향(故鄉)을 찾아가다가, 멀리서 창외(窗外) 축영(燭影)¹³⁾을 바라보고 촌가(村家)¹⁴⁾인 줄로만 여겨

왔더니, 남자의 글 읽는 소리가 분명하나 일신(一身)이 곤뇌(困惱)¹⁵⁾하므로 불계(不計) 체면(體面)하고¹⁶⁾ 들어왔사오니, 원컨대 상공(相公)¹⁷⁾은 잔명(殘命)¹⁸⁾을 구하시면 타일(他日)¹⁹⁾에 결초보은(結草報恩)²⁰⁾ 하리이다.”

운치 왈,

“사람의 화복(禍福)은 임의(任意)²¹⁾로 못하니, 남자가 적환(賊患)²²⁾을 면(免)²³⁾하여 이곳에 이름이 또한 다행하거니와, 아지 못게라, 남자의 귀택(貴宅)²⁴⁾은 어디며 연광(年光)은 얼마나 하뇨?”

여자가 왈,

“첩의 집은 경성(京城) 남문(南門) 밖이요, 나이는 십칠이로소이다.”

운치 왈,

“나와 동갑이요. 경성이 여기서 상거(相距)²⁵⁾가 삼백여 리니, 여자가 어찌 득달(得達)²⁶⁾하리오? 생(生)²⁷⁾이 실로 염려하노라.”

여자가 탄식(歎息)하여 왈,

“상공은 첩의 정상(情狀)²⁸⁾을 불쌍히 여겨 하룻밤 머물러 감을 허(許)하소서.”

운치 왈,

“생이 집이 빈한(貧寒)²⁹⁾하므로 지금까지 취처(娶妻)³⁰⁾하지 못하고 명춘(明春)³¹⁾ 과거에 천행(天幸)³²⁾으로 등과(登科)³³⁾하거든 혼취(婚

27)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 만든 줄. 여기서는 포승줄을 뜻함.

1)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

2) 심부름하던 아이.

3) 화상(和尚). 국사 드의 고승이 거쳐하는 처소

4) 저녁밥과 반찬.

5)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6)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이 없을 만큼 뚜렷이

7) 얼굴이 곱고 아름다움

8) 수양버들.

9) 정신과 넋.

10) 문벌이 높은 집안.

11)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

12) 한 집안에 속한 가족.

13) 창 밖으로 비치는 촛불의 그림자.

14) 시골집.

15) 가난에 시달려 고달픔.

16)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17) 아내가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 혹은 여자가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

18) 남은 목숨

19) 다른 날.

20) 죽어 혼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21) 자기 뜻대로

22) 도둑으로 인한 근심.

23) 어떤 처지에서 벗어나.

24) 다른 사람의 집을 높여 부르는 말.

25) 떨어져 있는 두 곳의 거리

26) 목적한 곳에 다다름.

27) 전운치.

28) 사정과 형편

29) 가난해서 집안이 쓸쓸함.

30) 아내를 얻음.

31) 다음해 봄.

32) 하늘이 준 큰 행운.

娶)1)할까 바라더니, 금야(今夜)에 낭자를 만났
이 또한 연분(緣分)이라. 원컨대 이성지합(二姓
之合)2)을 맺어 백년(百年) 동락(同樂)함이 어
떠하뇨?”

여자가 청파(聽罷)3)에 아미(蛾眉)4)를 숙이
고 일언부답(一言不答)5)하니, 부끄러워하는 태
도(態度)가 촉하(燭下)6)에 더욱 절승(絶勝)7)
한지라.

운치, 서안(書案)8)을 물리고 왈,

“생이 우연히 한 말로 낭자가 이렇듯 노(怒)
하니 도리어 무료(無聊)하거니와 낭자는 생각
하여 전정(前情)9)을 그르치게 말라.”

여자가 침음양구(沈吟良久)10)에 왈,

“첩의 일신이 곤박(困迫)11)하나 또한 사문일
맥(士門一脈)12)이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욕을 감심(甘心)13)하리오마는 상공 말씀을 듣자
오니 감사무지(感謝無地)14)라. 후일(後日)에 원
수(怨讐)를 갚아 주실진대 존명(尊命)15)을 어찌
봉승(奉承)16)치 아니하리오.”

운치,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방탕하여 인하
여 친합(親合)17)하고 문(問) 왈,

“금일(今日)이 좋은 날이니 마땅히 합환주(合
歡酒)18)로 천지(天地)께 맹세하리라.”

하고 죽병(竹瓶)의 술을 잔에 가득 부어 먼

저 먹고 또 부어 권하니, 여자가 감히 거스르지
못하여 마시거늘, 운치가 또 한 잔을 부어 권하
되 여자가 굳이 사양하는지라.

운치가 왈,

“술을 일이 배(杯) 먹거든 무엇이 관계하리
오?”

하니 여자가 마지못하여 먹거늘, 운치가 다시
한 잔을 마시고 한 잔을 부어 또 권하니, 여자
가 죽기로 사양하는지라.

운치가 정색 왈,

“여자가 군자(君子)를 좇음에 순종(順從)19)합
이 옳거늘 어찌 이렇듯 무례(無禮)하뇨?”

여자가 생의 기색(氣色)을 보고 강잉(強仍)
히 받아 마신 후에, 정신이 혼도(昏倒)20)하여
자리에 거꾸러져 코를 골거늘, 운치 그제야 여
자의 옷을 벗기고 주필(朱筆)21)로 여우의 가슴
에 진언(眞言)22)을 쓰되 흔적(痕迹)이 없으며
분명코 여우인 줄 알고 부용승을 내어 수족(手
足)을 동이고, 송곳으로 정박이23)를 쭈시며 방
추(棒槌)24)로 두드리니, 여자가 놀라 깨어 대호
(大呼)25) 왈,

“상공아! 이 무슨 일이뇨?”

운치 대매(大罵)26) 왈,

“이 몸쓸 여우 년아, 네가 이 절에 작열(作
孽)27)하여 생령(生靈)28)을 살해(殺害)하매, 내
너를 죽여 인간(人間) 해를 덜려 하여 이에 기
다린 지 오래더니라.”

하며 송곳으로 두루 쭈시니, 그 요괴(妖怪)
견디지 못하여 본상(本像)29)을 드러내어 금터럭
이 돋치고 꼬리 아홉 가진 여우가 되어 살기를
빌거늘, 운치 왈,

33) 과거에 급제함.

1) 혼인함.

2) 성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합하였다는 뜻으로, 남녀
의 혼인을 이르는 말.

3) 듣기를 마치고

4) 누에나방의 촉수처럼 털이 짧고 초승달 모양으로 길
게 굽은 아름다운 눈썹.

5) 한 마디의 답도 하지 않음.

6) 촛불 아래

7) 자태가 빼어나게 좋음

8) 책상.

9) 옛 정.

10) 속으로 깊이 생각한 지 오랜 뒤

11) 일의 형세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함.

12) 선비의 집안.

13)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임

14) 고마운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음

15) 다른 이의 명령.

16) 웃어른의 뜻을 따름.

17)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함

18) 신랑 신부가 서로 잔을 바꾸어 마시는 술

19) 순순히 복종함.

20) 정신이 어지러워 쓰러짐.

21) 붉은 먹을 묻혀 쓰는 붓.

22) 주문.

23) 정박기. 정수리의 방언

24) 방망이

25) 큰 소리로 부름.

26) 크게 나무람.

27) 죄를 지음.

28) 생명

29) 본색. 본래 모습.

“나에게 호정(狐精) 하나를 주면 너를 살리리라.”

구미호(九尾狐)가 왈,

“호정은 뱃속에 있거니와 호정보다 더 나은 천서(天書)¹⁾ 세 권이 있으니 목숨을 살려주소서.”

하니, 운치는 본디 서생(書生)이라 책 말을 듣고 반겨 왈,

“그 책이 어디 있느냐?”

요괴 왈,

“내 굴에 있으니 나를 끌러주면 가져오리이다.”

하거늘, 운치 대노(大怒)²⁾하여 송곳으로 두루 쭈시니, 요괴 왈,

“발 댄 것을 끌러주면 상공과 함께 가서 책을 드리리이다.”

운치 그 말을 옹케 여겨 발을 끌러놓고 따라 여우 굴로 가니, 큰 산에 장대(長大)한 바위 있고 그 아래 굴이 있는지라.

그 안으로 오 리(五里)나 들어간즉 송죽(松竹)이 창창(蒼蒼)³⁾하고 시내가 잔잔(潺潺)한 곳에 무수한 집의 단청(丹青)⁴⁾이 찬란(燦爛)한 지라.

운치, 여우를 앞세우고 들어가더니 채의(彩衣)⁵⁾ 입은 시녀(侍女)가 나와 맞으며 왈,

“아기씨, 오늘 산행(山行)⁶⁾하러 가시더니 사망(絲網) 일어⁷⁾ 오시매 맛 좋게 먹으리라.”

하며 달려들거늘, 운치 대노하여 잔 요괴를 날날이 쳐 죽이고 구미호를 송곳으로 쭈시니, 구미호가 견디지 못하여 시녀에게 왈,

“너는 빨리 가 성적함(成赤函)⁸⁾ 속에 있는 세 권 책을 가져오라.”

하거늘 요괴가 급히 가져왔는지라. 운치가 받아본즉 천서(天書)라. 글자를 알아볼 길 없으매, 구미호더러 글 뜻을 가르치라 하니, 구미호가 왈,

“손을 끌러놓으면 가르치리이다.”

하거늘, 운치 송곳으로 찌르며 방추를 드니 구미호가 허락하매, 운치가 노를 끄르지 아니하고 왈,

“나 있는 절로 가자.”

하고 구미호를 데리고 세금사로 와서 술을 마신 후에 구미호를 앓히고 천서 상권(上卷)을 배워 일야간(一夜間)⁹⁾에 다 통달하니, 짐짓 귀신도 측량(測量)치 못할 술법(術法)이라.

그제야 운치, 여우를 댄 것을 풀고 등의 부적을 떼어 천서 상권에 붙이고 일러 왈,

“너를 죽여 후환(後患)을 없애고자 하였더니, 도리어 네 은혜를 입었기로 살려 보내나니, 차후(此後) 다시 작변(作變)¹⁰⁾ 말라.”

하니, 구미호가 사례하고 가니라.

이윽고 문득 대풍(大風)이 일어나 문이 열리며 청운(靑雲) 속에서 위여¹¹⁾ 왈,

“구십자(口十子)¹²⁾야, 내 부용승은 찾아가고 부적은 두고 가노라.”

하거늘, 운치 급히 나가보니 청운이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홀연 한 선비가 나귀를 타고 들어와 계하(階下)¹³⁾에 내리니, 이는 윤공이라.

운치 황망(慌忙)히 맞아 말썽할새 윤공 왈,

“이 책은 선비에게 불가(不可)하거늘 네 어찌 보느냐?”

운치 미처 답하지 못하여 윤공이 간 데 없으니, 운치 대경(大驚)¹⁴⁾하여 살펴본즉 천서(天書) 한 권이 없으매, 가장 의심할 즈음에 문득

1) 하늘의 책. 온갖 비법과 비밀이 담긴 책

2) 대로. 크게 성을 냄.

3) 나무나 숲이 질푸르게 무성함.

4) 벽·기둥·천장 따위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과 무늬를 그림.

5) 울긋불긋한 빛깔과 무늬가 있는 옷.

6) 사냥.

7) 그물을 일으켜.

8) 물품을 넣어두는 그릇.

9) 하룻밤 사이.

10) 변란을 일으킴.

11) 외쳐.

12) 전운치

13) 층계의 아래.

14) 크게 놀람.

들으니 계집의 곡성(哭聲)이 가까워오거늘, 운치 나가보니 자기 유모(乳母)가 산발(散髮)¹⁾하고 울며 왈,

“모부인(母夫人)²⁾이 작일(昨日)³⁾에 평안하시다가 일야간에 상사(喪事)⁴⁾가 나 계시니 상공(上公)은 빨리 가사이다.”

하거늘, 운치 대경(大驚)⁵⁾하여 급히 서책(書冊)을 수습할 새, 경각간(頃刻間)⁶⁾에 유모가 간 데 없고 또 천서 한 권이 없는지라.

운치 대노 왈,

“흉(凶)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혈(掘穴)⁷⁾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掃滅)하리라.”

하고 방추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山川)이 심수(深邃)⁸⁾하고 길이 아득하여 길을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불측(不測)⁹⁾하매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상권은 부적을 붙인 연고로 앗아가지 못함이라.

운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할 술법(術法)¹⁰⁾이 없으며 과업(課業)¹¹⁾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自然)히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計巧)¹²⁾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여 변하여 선관(仙官)¹³⁾이 되어 오운(五雲)¹⁴⁾을 타고 반공(半空)¹⁵⁾에 올라 바로 궐내로

들어가 대명전(大明殿)¹⁶⁾에 거중(居中)¹⁷⁾하매 서기(瑞氣)¹⁸⁾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궁중(宮中)이 현황(眩慌)¹⁹⁾하여 망지소조(罔知所措)²⁰⁾하고, 조신(朝臣)²¹⁾ 등이 상달(上達)²²⁾하되,

“고금(古今)에 드문 괴변(怪變)²³⁾이라.”

하니, 상(上)²⁴⁾이 대경하사 제신(諸臣)²⁵⁾을 모아 의논(議論)하시더니, 운치가 운무(雲霧)²⁶⁾중(中)에 서고 청의(青衣) 동자가 워여 왈,

“고려국(高麗國) 왕(王)은 옥제(玉帝)²⁷⁾ 전교(傳敎)²⁸⁾를 들으라.”

하거늘, 왕이 명(命)하사 포진(鋪陳)²⁹⁾과 향안(香案)³⁰⁾을 배설하고 나아가 보니, 일위(一位) 선관(仙官)이 금관(金冠) 홍포(紅布)³¹⁾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운(五雲) 중에 싸이어 단정(端正)히 섰거늘, 왕이 사배(四拜)를 마친 후에 복지(伏地)³²⁾하시니, 운치 왈,

“천상 요지(瑤池)³³⁾ 보각(寶閣)³⁴⁾이 연구퇴락(年久頽落)³⁵⁾하기로 이제 중수(重修)³⁶⁾코자 하여 인간(人間) 제국(諸國)³⁷⁾에 전지(傳旨)³⁸⁾하여 모든 물건을 다 진배(進排)³⁹⁾하였으나, 다만

1) 머리를 풀어 헤침.

2) 전운치의 어머니. 최부인

3) 어제.

4) 초상이 남. 돌아가심.

5) 크게 놀람.

6) 눈깜짝할 사이.

7) 굴 속.

8) 깊숙하고 그윽함.

9)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꾀뻔하고 엉큼함.

10) 음양과 복술(卜術)에 관한 이치 및 그 실현 방법.

11) 과거(科擧)를 보는 일

12) 요리조리 생각해 낸 교묘한 꾀.

13) 신선.

14) 오색구름.

15) 그다지 높지 않은 공중.

16) 궁궐.

17) 두 편의 중간에 들어 있음.

18) 상서로운 기운.

19)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함.

20) 너무 당황하거나 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함.

21)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신하.

22) 위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여쭙어 알게 함.

23) 괴상한 재난이나 사고.

24) 임금.

25) 여러 신하.

26) 구름과 안개.

27) 옥황상제의 줄임말

28) 임금이 명령을 내림.

29) 바닥에 깔아놓는 요, 돛자리 등의 반석.

30) 향로를 올리는 상.

31) 붉은색의 도포.

32) 땅에 엎드림.

33) 신선이 살고 있다는 연못.

34) 훌륭한 전각.

35) 세운지 오래되어 무너지고 헐어짐.

36) 다시금 수리하고자.

37) 여러 나라.

38) 임금의 뜻을 전함.

39) 나아가 바침.

황금(黃金)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상제(上帝)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裕足)¹⁾함을 아시고 이제 전지(傳旨)하사 칠월 칠일 오시(五時)²⁾에 상량(上樑)³⁾하리니, 그 날 미쳐 대령(待令)하되, 장(長)⁴⁾이 십 척(尺) 오촌(寸)이요, 광(廣)⁵⁾이 삼 척(尺) 이 촌(寸), 만일 그날 마치지 못하면 큰 변(變)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언파(言罷)⁶⁾에 선악(仙樂) 소리 은은(隱隱)하며 오운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거늘, 왕이 남천(南天)을 향하여 사배하시고 전(殿)에 오르사 문무(文武)⁷⁾를 모아 의논하실새, 좌우가 주(奏)⁸⁾ 왈,

“팔도(八道)에 행관(行關)⁹⁾하여 금(金)을 거두어 천명(天命)을 받들이 옳을까 하나이다.”

상이 옳게 여기사 즉시 팔도에 발관(發關)¹⁰⁾하여 금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불러 장광(長廣)¹¹⁾ 척수(尺數)¹²⁾를 맞추어 날 맞춰 만들어 들이니, 상이 삼일(三日) 재계(齋戒)¹³⁾하시고 등대(等待)¹⁴⁾하시더니, 이날 진시(辰時)¹⁵⁾에 오운이 귤내에 자옥하고 향취(香臭)가 진동(振動)하며, 선관이 엄연히 운중(雲中)에 싸여 오며, 양편(兩便)에 청의 동자가 학(鶴)을 타고 내려와 요구쇠¹⁶⁾로 걸어 올려 채운(彩雲)에 싸여 남쪽 땅으로 무지개 뻗치고 오운이 각각 동서로 흩어지는지라.

1) 여유 있게 풍족함.

2)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처마 도리와 중도리를 걸고 마지막으로 마룻대를 올림. 또는 그 일

4) 길이

5) 넓이

6) 말을 끝냄

7) 문관과 무관.

8) 아뢰다. 임금에게 올리는 말

9) 관아에 공문을 보내던 일

10)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관문(關文, 공문)을 보내던 일

11) 길이와 넓이.

12) 치수.

13)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함

14)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15) 오전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

16) 갈고리 모양의 쇠.

상과 제신이 향안 앞에 나아가 사배하고 전상(殿上)¹⁷⁾에 오르사 진하(進賀)¹⁸⁾를 받으시니라.

운치, 임금을 속이고 황금 들보를 얻었으나 동국(東國)에는 금(金)이 진(盡)¹⁹⁾하였으매, 금 들보를 매매(賣買)함이 가장 수상(殊常)한지라. 문득 한 계교를 생각하여 들보 머리를 베어가지고 성중(城中)에 들어가 팔려 하니, 마침 포도(捕盜)²⁰⁾ 장졸(將卒)이 보고 의심하여 문(問)왈,

“이 금이 어디서 나며, 값은 얼마나 하뇨?”

운치 왈,

“이 금은 출처(出處) 있거니와 값은 오백 금이로라.”

포교(捕校)²¹⁾가 왈,

“그대 집을 이르면 내 명일(明日)에 돈을 가지고 가리라.”

하니, 운치 왈,

“내 집은 송악산(松嶽山)²²⁾ 남서부요, 성명(姓名)은 전운치로라.”

하니, 포교가 상약(相約)²³⁾한 후에 관가(官家)에 이 사연을 고(告)하니, 태수(太守)²⁴⁾가 왈,

“이 반드시 연고(緣故)가 있으니 이를 자세히 안 후에 이놈을 생금(生擒)²⁵⁾하리라.”

하고 우선 은자(銀子)²⁶⁾ 오백 냥을 주어 사오라 한 대, 포교가 즉시 남서부에 가 운치를 보고 은자를 주니, 운치 금을 주고 은자를 받거늘, 포교가 받아가지고 돌아와 태수께 고하니,

17) 궁궐 위.

18)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벼슬아치들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게 축하를 올리는 일.

19) 다하여 없어짐.

20) 포도청.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던 관청.

21) 포도부장. 포도청에서 범죄자를 잡아들이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22) 경기도 개성시 북쪽에 있는 산.

23) 서로 약속함.

24) 지방관(地方官).

25) 사로잡음.

26) 은으로 만든 돈.

태수가 보고 대경 왓,

“이 금은 들보 머리 분명하니, 위선(爲先)¹⁾ 잡아다가 진위(眞僞)를 알아 장계(狀啓)²⁾하리라.”

하고, 장교(將校)³⁾ 십여 명과 포교 등을 보내었더니, 장교 등이 남서부에 가서 운치를 잡아내려 할새, 운치 음식을 내어 관대(寬待)⁴⁾하고 왓,

“너희 수고로이 왔으나 나는 가지 아니하리니, 너의 태수의 힘으로는 나를 잡지 못할 것이요, 왕명(王命)이 내리면 잡혀가리라.”

하고 조금도 요동(搖動)치 아니하거늘, 장교 등이 감히 하수(下手)⁵⁾치 못하여 돌아가 태수께 이 사연을 고하니, 태수가 대경하여 토병(土兵)⁶⁾ 오백을 발(發)하여 운치의 집을 에워싸고 잡으라 하며 일변 이 사연으로 장계하니, 상이 대노하사 백관(百官)⁷⁾을 모아 의논하시고 금부(禁府)⁸⁾로 나래(拿來)⁹⁾하라 하시니라.

이때, 운치 은자를 얻어 음식을 준비하여 모친께 드리더니, 홀연(忽然) 경성(京城)에서 나명(拿命)¹⁰⁾을 듣고 정(正)히 계교를 생각할새, 차시(此時)¹¹⁾ 금부도사(禁府都事)¹²⁾와 포교 등이 토병을 거느려 운치의 동정(動靜)¹³⁾을 살펴잡으려 하는지라.

운치 먹소용¹⁴⁾을 내어놓고 모친에게 왓,

“바빠 이 병에 드소서.”

하니, 부인이 병에 들며, 운치 또한 들거늘, 도사와 포교 등이 궤이히 여겨 달려들어 병부리를 단단히 막아 들고 주야(晝夜)로 달려올새, 병 속에서 소리쳐 왓,

“내 난(亂)을 피하여 병 속에 들었거늘 뉘라서 병부리를 막아 숨이 막혀 죽겠으니, 막은 것을 빼라.”

하거늘, 도사가 청이불문(聽而不聞)¹⁵⁾하고 급히 달려 탑전(榻前)¹⁶⁾ 앞에 이르러 운치를 잡던 수말(首末)을 아뢴대, 상(上) 왓,

“운치, 비록 요술(妖術)이 있으나 어찌 병 속에 들리오?”

하시니, 운치 병 속에서 소리 질러 왓,

“갑갑하오니 병막이를 빼어주소서.”

하거늘, 상이 그제야 운치가 병에 든 줄 아시고 조신(朝臣)더러 처치(處置)함을 물으신대, 제신(諸臣)이 주(奏) 왓,

“이 놈의 요술이 불측하오니 소루히¹⁷⁾ 하다가는 잃을까 하나이다.”

상이 전지(傳旨)하사 가마에 기름을 끓이고 소용병을 넣으니 병 속에서 외쳐 왓,

“신(臣)의 집이 빈한(貧寒)하와 주야(晝夜)떨고 지내옵더니, 금일은 더운 데 들어 녹이오니 국은(國恩)이 망극(罔極)하여이다.”

하거늘, 아침부터 늦도록 끓여 기름이 다 졸았는지라.

상(上)이 병을 깨치라 하시니, 그 병이 여러 조각이 나되 아무 것도 없고, 병 조각마다 달음질뛰어 내달려옴하여 어전(御前)¹⁸⁾에 나아오며 왓,

“소신(小臣) 전운치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상이 대노하사,

“그 조각을 뺏아 기름에 끓이라.”

하시고, 전운치 집을 파가저택(破家瀝宅)¹⁹⁾하

1) 우선.

2)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던 신하가 자기 관할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3) 각 군영과 지방 관아의 군무에 종사하던 낮은 벼슬아치.

4) 대접.

5) 손을 댈.

6) 일정한 지역에 불박이로 사는 사람으로 조직된 그 지방의 군사.

7) 모든 벼슬아치.

8)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하던 관아인 의금부(義禁府).

9) 죄인을 잡아옴.

10) 체포령. 붙잡아오라는 명령이 내림.

11) 이때.

12) 의금부에서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보던 종오품 벼슬.

13) 일이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낌새.

14) 먹물을 담은 병.

15) 듣고자 못들은 체 함.

16) 왕의 자리.

17)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꼼꼼하지 않고 거칠게.

18) 임금의 앞.

19)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물을 대어 못을 만들던 형벌.

라 하시며, 운치를 잡기를 하실새, 대신이 주(奏) 왓,

“이 요적(妖賊)을 잡을 수 없사오니 후환(後患)을 덜고자 하실지니, 사문(四門)¹⁾에 방(榜)을 붙여 ‘운치, 자현(自現)²⁾하면 죄를 사(赦)하고³⁾ 관작(官爵)⁴⁾을 주리라’ 하사, 만일 운치 자현하거든 중임(重任)을 맡겨 다시 그림이 있거든 죽임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그 말을 옳게 여기사 즉시 사문에 방을 붙이되,

‘전운치가 비록 국가에 득죄(得罪)하였으나, 제 재조(才操)⁵⁾를 아껴 특별히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나니, 바빠 자현하라.’

하나라.

차설(且說), 운치는 모친을 모시고 산중에 들어 은자를 쓰며 구름을 타고 사방으로 임의 왕래하더니, 일일은 한 곳에 이른즉 백발노인이 슬피 울거늘, 운치 나아가 연고(緣故)를 물은대, 노인 왓,

“내 칠십에 한 자식 있더니 애매히⁶⁾ 살인죄수(殺人罪囚)⁷⁾가 되었기로 설워하노라.”

운치, 그 애매함을 자세히 물으니, 노인 왓,

“우리 동리(洞里)에 왕가(王哥)란 사람이 있오되, 그 계집의 인물이 고우매 내 자식이 사통(私通)⁸⁾하여 왕래하더니, 그 계집이 음란하여 또 조가(趙哥)와 통간(通姦)⁹⁾하다가 왕가에게 들켜 두 놈이 싸워 서로 구타(毆打)¹⁰⁾할새, 내 자식이 마침 갔다가 싸움을 말려 조가를 보내었더니, 왕가가 즉시 죽으매 그 사촌이 관가에 고하여 살인을 이루니, 조가는 양문기의 문

객(門客)¹¹⁾이라 결련(結連)¹²⁾이 있어 벗어나고, 내 자식이 살인함으로 문서를 만들어 죄수가 되었으매 이같이 설워하노라.”

운치 왓,

“진실로 그러할지니, 내 마땅히 무사하게 하리라.”

하고, 노인을 이별한 후에 몸을 흔들여 일진청풍(一陣淸風)¹³⁾이 되어 양문기의 집에 가니, 차시, 양문기가 외당(外堂)¹⁴⁾에서 거울을 대하여 얼굴을 보거늘, 운치가 또 변하여 왕가가 되어 곁에 섰으니, 양문기가 괴이히 여겨 거울을 거두고 돌아본즉 아무것도 없는지라.

생각하되,

‘백주(白晝)¹⁵⁾에 요열(妖孽)이 나를 희롱(戲弄)하니 괴이하도다.’

하고 다시 거울을 보니 아까 보이던 사람이 서서 고(告) 왓,

“나는 금번(今番) 조가 손에 죽은 왕생(王生)이라. 상서(尙書)¹⁶⁾가 그릇 알고 애매한 이가(李哥)를 가두고 조가를 놓으니, 이제 만일 조가 원수를 아니 갚아주면 내 그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양문기 대경하여 급히 좌기(坐起)¹⁷⁾를 차리고, 조가를 잡아 엄문(嚴問)한 즉, 조가가 애매함으로 발명(發明)¹⁸⁾할 즈음에 왕가가 들어와 고성(高聲) 왓,

“이 불측한 조가 놈아. 무슨 일로 나의 아내를 겁탈(劫奪)하고 또 나를 죽이니 이는 나의 깊은 원수이어늘, 네 어찌 애매한 이가에게 죄를 돌아보내난다?”

하고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조가가 경황(驚惶)¹⁹⁾하고, 양문기 또한 놀라 조가를 엄형 추문

1) 서울에 있던 네 대문.

2) 스스로 나타나 자수함.

3) 지은 죄나 허물을 용서하고.

4) 관직과 작위.

5) 재주.

6) 억울하게.

7) 살인을 저지른 죄수.

8) 부부가 아닌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함.

9) 간통.

10)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때리고 침.

11) 덕을 볼까 하고 수시로 세력 있는 집에 드나드는 사람.

12) 인연을 맺음. 서로 맺어져 한 통속임.

13) 한바탕 부는 맑고 시원한 바람.

14) 사랑방.

15) 대낮.

16) 고려시대 육부의 으뜸 벼슬. 조선시대의 판서.

17) 관아의 으뜸 벼슬인 자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18)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19) 놀랍고 두려워 당황함.

(嚴刑推問)¹⁾하니, 조가가 능히 견디지 못하여 개개(箇箇)²⁾ 승복(承服)³⁾하거늘, 즉시 이가를 방송(放送)⁴⁾하고 조가를 행형(行刑)⁵⁾하니라.

운치, 이가를 구한 후에 구름을 타고 가다가 굽어보니, 저자⁶⁾ 거리에서 양인(兩人)이 저두(臍肚)⁷⁾를 붙들고 다투거늘, 운치 내려와 연고를 물은즉, 일인(一人)이 대(對) 왈,

“저두를 쓸 데 있어 먼저 값을 정하였더니, 저 사람이 관리(官吏) 자세(藉勢)⁸⁾하고 앓아가려 하기로 다투노라.”

운치, 관리를 속이려 하여 진언(眞言)을 염(念)하니, 그 저두가 다 입을 벌리고 관리를 물려하거늘, 관리가 놀라 달아나더라.

운치 또 한 곳에 이르니 풍악(風樂)이 낭자(狼藉)⁹⁾하고 가성(歌聲)¹⁰⁾이 분운(紛紜)¹¹⁾하거늘, 운치 좌(座)에 나아가 예(禮)하여 왈,

“나는 과객(過客)이러니 제형(諸兄)¹²⁾의 즐거움을 구경하고자 하노라.”

제생(諸生)¹³⁾이 답례(答禮)하고 서로 통성명(通姓名)¹⁴⁾한 후에 운치 눈을 들어 살펴본즉, 창기(娼妓)¹⁵⁾ 십여 인이 각각 풍악을 가지고 가사(歌詞)¹⁶⁾를 희롱(戲弄)하는 곳에, 그 중에서 소생(蘇生)과 설생(薛生)이라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驕慢) 거오(倨傲)¹⁷⁾하거늘, 운치 냉소(冷笑)¹⁸⁾하고 제생으로 수작(酬酌)¹⁹⁾하더니 이

윅고 주반(酒飯)²⁰⁾이 나오거늘, 운치 왈,

“생(生)이 형(兄)의 사랑을 입어 진찬(珍饌)²¹⁾을 맛보니 감사하도다.”

설생 왈,

“우리 비록 빈한하나 명기(名妓)²²⁾와 진찬이 많으니, 형은 처음 본 듯하리라.”

운치 소 왈(笑曰)²³⁾,

“그렇기는 하거니와 오히려 미비(未備)한 것이 많도다.”

설생이,

“이 무엇이 미비하뇨?”

운치 왈,

“우선 서늘한 수박도 없고, 새콤한 복숭아와 달콤한 포도도 없으니, 무엇이 갖추어졌으리오.”

제생이 대소(大笑)²⁴⁾ 왈,

“형은 무지각(無知覺)²⁵⁾이로다. 차시는 계춘(季春)²⁶⁾이라. 이 실과(實果)²⁷⁾ 등이 어디 있으리오?”

운치 왈,

“일처(一處)²⁸⁾에 온갖 여름²⁹⁾이 열렸음을 보았노라.”

설생 왈,

“그러하면 형이 이제 사울쏘냐?”

운치 왈,

“만일 사오거든, 큰 내기를 시행(施行)하라.”

하고 종자(從者)³⁰⁾를 데리고 한 동산에 가본즉 나무에 복숭아가 달렸거늘, 종자로 하여금 나무에 올라 따서 지게하고, 그 아래 포도가 가자(架子)³¹⁾에 드리웠으매 또 따서 지게하고, 들

1) 엄한 형벌로 신문함.

2) 날날이.

3) 죄를 스스로 고백함.

4) 놓아 보냄.

5) 형을 집행함.

6) 시장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7) 삶은 돼지머리.

8) 어떤 권력이나 세력을 믿고 의지함.

9) 떠들썩하게 시끄러움.

10) 노래소리.

11) 떠들썩해 어지러움.

12) 여러분.

13) 여러 사람.

14) 처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 줌.

15) 몸을 팔던 천한 기생.

16) 노랫말.

17) 거만스럽고 오만함.

18)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겨 비웃음.

19) 말을 주고받음.

20) 술과 안주를 갖춘 상.

21) 진귀한 음식이나 맛이 매우 좋은 음식.

22) 이름난 기생.

23) 웃으며 말함.

24) 크게 웃음.

25) 지각이 없음.

26) 음력 월. 늦봄

27) 열매.

28) 어느 한 곳.

29) 열매의 옛말

30) 상전을 따라다니며 시종드는 사람.

로 내려간즉 수박이 냇굴에 열렸거늘 이십 개를 따서 지게하고 돌아오니, 제인(諸人)이 대경하여 먹으며 가장 신기히 여기더라.

운치, 대취(大醉)¹⁾하매 소(蘇), 설(薛) 양생(兩生)을 속이고자 하여 양인을 향하여 진언(眞言)을 염(念)²⁾하더니,

이윽고 양인 왈,

“몸이 심히 무겁고 마음이 심히 번란(煩亂)³⁾하니 괴이하도다.”

운치 왈,

“형 등이 방자(放恣)⁴⁾하거니와 창기는 불긴(不緊)⁵⁾한가 하노라.”

양인이 노(怒) 왈,

“우리가 환자(宦者)⁶⁾가 아니거든 어찌 창녀(娼女)를 불킨타 하느뇨?”

운치, 소 왈,

“양형은 노(怒)하지 말고 손을 바지 속에 넣어 만져보라.”

하니, 설생이 이 말을 듣고 손으로 만져보다가 소생더러 왈,

“신낭(腎囊)⁷⁾이 간 데 없고 판판하니 이 어찜 일이뇨?”

소생이

“보여주라.”

하거늘, 설생이 내여 보이니 과연 아무것도 없으며 소생이 또한 제 하물(下物)⁸⁾을 만져본즉 역시 그러한지라.

양인이 대경 왈,

“아까 전형(田兄)⁹⁾이 우리를 조롱(嘲弄)하더니 과연 이런 변이 있도다. 장차 어찌하리오.”

하며, 또 창기들 중 한 년이 소문(小門)¹⁰⁾이

간 데 없고 배 위에 구멍이 났으며 어찌할 줄 모르거늘, 그 중에 은생(殷生)이라 하는 자가 가장 총명 유식한지라. 문득 깨달아 운치에게 빌어 왈,

“아등(我等)¹¹⁾이 눈이 어두워 형에게 득죄하였으니, 바라건대 형은 용서하라.”

운치 왈,

“염려 말면 자연히 도로 나으리라.”

제생과 그 년이 기꺼워하며 만져본즉, 의구(依舊)¹²⁾하매 모두 치하(致賀)¹³⁾ 왈,

“신선(神仙)이 강림(降臨)¹⁴⁾하심을 몰라 하마터면 병인(病人)이 될 뻔하였나이다.”

하더라.

운치 구름을 타고 동쪽 땅으로 가다가 보니, 한 곳에서 수삼 인이 의논 왈,

“장(張) 고직(庫直)¹⁵⁾은 착하고 효행이 있는 사람이라. 만일 애매히 죽으면 아깝고 참혹하다.”

하며 차탄(嗟歎)¹⁶⁾하거늘, 운치 내려와 물으니, 기인(其人)¹⁷⁾이 대(對) 왈,

“호조(戶曹) 고직인 장계창이란 사람은 어질고 효행 있고 사람 구제(救濟)¹⁸⁾하기를 좋아하더니, 제가 문서 잘못된 탓으로 제가 쓰지 아니한 은자 이천 냇을 무면(無麵)¹⁹⁾지매, 그 죄로 행형(行刑)한다 하기로 차탄하노라.”

하니, 운치 불쌍히 여겨 다시 구름을 타고 행형하는 곳으로 가 기다리더니, 과연 한 소년이 술위²⁰⁾에 달려 오고 그 뒤에 젊은 계집이 울며 따르는지라.

운치, 중인(衆人)²¹⁾더러 물은즉 과연 장계창

31) 가지가 늘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 세운 시렁.

1) 술에 몹시 취함.

2) 조용히 읽.

3) 마음이 괴롭고 어지러움.

4) 꺼리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짐.

5) 필요하지 아니함.

6) 임금의 시중을 들던 내시.

7) 고환.

8) 남자의 생식기.

9) 전우치

10) 여자의 음부.

11) 우리들.

12)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음.

13) 남이 한 일에 대해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14) 신이나 부처가 인간 세계에 내려옴.

15) 고지기. 관아의 창고를 보살피고 지키던 사람

16) 탄식하고 한탄함.

17) 그 사람.

18) 재해를 입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19) 부족하게 됨.

20) 수레.

21) 여러 사람.

이어늘, 동정을 살피더니 옥졸(獄卒)이 죄인을 내려놓고 때를 왜는지라.

운치, 바람이 되어 장계창의 부처(夫妻)¹⁾를 거두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 감형관(監刑官)²⁾이 대경하여 이대로 상달하니, 상이 놀라시고 조정이 의혹(疑惑)하더라.

운치 집에 돌아와 장계창의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풀어 넣은즉, 이윽고 깨어 아무런 줄 모르며, 운치 전후(前後) 수말(首末)³⁾을 이르고 모친께 이 사연을 고하니라.

운치,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통곡함을 보고 연고를 물으니, 기인이 대 왈,

“나는 한재경이러니 부상(父喪)⁴⁾을 당하여 장사(葬事)할 수 없고 칠십 노모를 봉양할 길 없어 설위하노라”

하니, 운치 긍측(矜惻)⁵⁾히 여겨 소매에서 한 족자(簇子)⁶⁾를 내어주며 왈,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직아!’ 불러 대답하는 자가 있거든 은자 백 냥을 내라 하면 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지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 하여 노친을 봉양하되, 만일 더 내라 하면 큰일이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하니, 기인이 반신반의(半信半疑)⁷⁾하며 운치의 거주(居住)⁸⁾ 성명을 묻고 집에 돌아와 족자를 펴본즉 아무것도 없고, 큰 집 하나를 그리고 그 집 앞에 동자를 그려 열쇠를 채웠거늘, 기인이 시험(試驗)하여 ‘고직아!’ 부른즉 과연 그림 속에서 대답하고 나오는지라.

기인이 놀라며 ‘은자 백 냥을 들이라.’ 하니 동자가 은자 백 냥을 내어 앞에 놓거늘, 재경이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고직을 불러 은

자 한 냥씩 들이라 하여 일용(日用)⁹⁾을 하더니, 일일은 쓸 데 있어 헤아리되,

‘은자 백 냥을 꾸어 쓰면 무슨 관계 있으리요?’

하고 고직을 불러 왈,

“쓸 데 있어 은자 백 냥을 먼저 꾸어 쓰고자 하노라.”

하니 고직이 허(許)치 아니하거늘, 재경이 재삼(再三) 달래며 이른즉, 고직이 부답(不答)하고 들어가 문을 여는지라. 재경이 따라 들어가 은자 백 냥을 가지고 나오려 하니 고문(庫門)이 닫혔거늘, 일변 놀라 고직을 부르되 대답이 없는지라. 재경이 대노하여 발로 문을 박차더니, 차시 호판(戶判)¹⁰⁾이 좌기(坐起)할새 고직이 아뢰되,

“고(庫) 중에서 사람 소리 나오니 가장 괴이하더이다.”

하거늘, 호판이 듣고 외괴(巖魁)¹¹⁾하여 하속(下屬)¹²⁾을 모으고 문을 여니, 한 놈이 은자를 가지고 섰거늘, 하속 등이 대경하여 문(問) 왈,

“네 어떤 도적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재경이 노(怒) 왈,

“너희는 어떤 사람이관대 남의 고(庫) 중에 들어와 이렇듯 하느냐?”

하거늘, 하속 등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판께 아뢰니, 호판이 재경을 계하에 꿇리고 꾸짖으니, 한가(韓哥)¹³⁾가 그제야 살피본즉 제 집이 아니요 곧 관가(官家)라. 대경하여 왈,

“내 어찌 이곳에 왔고? 이 꿈인가 상시(常時)¹⁴⁾인가?”

하며 아무런 줄 모르거늘, 호판 왈,

“네 고(庫) 중에 들어와 은(銀)을 가져가려 하는 죄는 죽음직 하거니와, 네 당류(黨類)¹⁵⁾를

1) 부부.

2) 형(刑)의 집행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관리.

3) 머리와 끝.

4) 부친상

5) 불쌍하고 가여움.

6) 글씨나 그림 등을 표구하여 벽에 걸거나 두루마리처럼 말아 둘 수 있게 만든 물건.

7) 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함.

8)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삶.

9) 날마다 씀.

10) 호조판서.

11) 평평하지 않음.

12) 하인의 무리.

13) 한재경

14) 평상시.

15) 같은 무리에 드는 사람들.

다 아뢰라.”

하니, 한가가 전후곡절(前後曲折)¹⁾을 다 고하니 호관이 그 족자 출처를 물으니 한가가 전운치의 사연을 아뢰니, 호관 왈,

“전운치를 어느 때에 보았는가?”

한가가 왈,

“본 지 사오 삭(朔)²⁾이요, 그 집은 남서부라 하더이다.”

하거늘, 호관이 이에 한가를 가두고 인하여 그 후 은고(銀庫)를 반고(反庫)³⁾한즉, 은자는 다 없고 창개구리 가득하고, 또 다른 고를 본즉 돈은 없고 누른 뱀이 가득 서렸거늘, 호관이 괴이히 여겨 그 연유(緣由)를 상달하니, 상(上)이 대경하사 제신을 모아 의논하실새, 각 창관(倉官)⁴⁾이 주(奏)하되,

“창고(倉庫)의 쌀이 변하여 버러지 짐승이 되었나이다”

하며, 또 각 영문(營門)⁵⁾이 주(奏)하되

“고중(庫中) 군기(軍器)⁶⁾가 다 없고 나뭇가지만 쌓였나이다.”

하며, 차지내관(次知內官)⁷⁾이 주(奏)하되,

“해물이 변하여 생선이 되었나이다.”

하며, 궁녀(宮女)가 주(奏)하되,

“궁녀 등의 족두리 변하여 금가마귀 되어 날아가고, 내전(內殿)에 큰 범이 들어와 궁인(宮人)을 해(害)하나이다.”

하거늘, 상이 대경하사 궁노수(弓弩手)⁸⁾를 발(發)하여 내전에 들어가본즉, 궁녀마다 큰 범을 탔으며 궁노를 발하지 못하고 이 사연을 상께 주(奏)하니, 상이 진노(震怒)⁹⁾하사 궁녀 아울러 쏘라 하시니, 궁노수가 들어가 일시에 쏘려 한즉 흑운(黑雲)이 일어나며 범 탄 궁녀가

다 구름에 싸여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상 왈,

“이는 다 전운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국가가 태평하리라.”

하시더니, 호관이 주(奏)하되,

“가둔 도적이 또한 전운치 동류(同類)¹⁰⁾이니 급히 죽여지이다.”

하거늘, 상이 의윤(依允)¹¹⁾하사 한재경을 행형하려 할새, 문득 광풍(狂風)이大作(大作)하며 재경이 간 데 없으니, 이는 운치가 구(救)함 이리라.

차설(且說), 운치 두루 다니다가 사문의 방(榜) 붙임을 보고 냉소(冷笑)하며 궤하(闕下)에 나아가 외쳐 왈,

“소신(小臣) 전운치 자현(自現)하나이다.”

하거늘, 정원(政院)¹²⁾이 주(奏)하니,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 환술(幻術)¹³⁾에 비상(非常)하여 도처(到處) 작난(作亂)하니 차라리 벼슬을 주어 달래고 만일 다시 작변(作變)하거든 죽이리라.’

하시고, 입시(入侍)¹⁴⁾하라 하시니, 운치 들어와 복지(伏地)하거늘, 상 왈,

“네 죄상(罪狀)¹⁵⁾을 아는가?”

운치 부복(俯伏)¹⁶⁾ 사죄 왈,

“신(臣)의 죄 만사무석(萬死無惜)¹⁷⁾이오니 무슨 말씀을 아뢰리이까?”

상 왈,

“네 재조를 아껴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나니, 너는 모름지기 충성을 다하라.”

하시고, 선전관(宣傳官)¹⁸⁾을 제수하시니, 운치, 사은(謝恩)하고 물러와 사처(私處)¹⁹⁾를 정

1)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복잡한 사정.

2) 개월.

3) 창고에 있는 물건을 뒤적거리 조사함.

4) 창고를 관리하는 벼슬아치

5) 군문(軍門)

6) 전쟁에 쓰는 도구나 기구.

7) 국방의 일을 맡아보던 내시

8) 활과 쇠뇌를 쏘던 군사

9) 성을 내며 노여워함.

10) 같은 종류나 무리.

11) 신하가 아뢰는 청을 임금이 허락함.

12)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승정원.

13) 남의 눈을 속이는 기술.

14) 대궐에 들어가 왕을 알현하던 일.

15)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16)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

17)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음.

18) 선전관청에서 말과 수레를 맡아보던 무관 벼슬아치.

(定)하고 궐내(闕內)에 입직(入直)¹⁾할새, 선전관들이 조사(朝仕)²⁾ 보채기³⁾를 심히 하여 퇴(槌)치기⁴⁾를 차례(次例)로 하거늘, 운치, 가만히 망주석(望柱石)⁵⁾을 빼어다가 퇴를 맞히니, 선전관의 퇴 잡은 손바닥에 맞춰서 아파 능히 치지 못하매, 이후는 퇴치기를 그치니라.

이러구러 수월(數月)이 되니 선전관들이 하인(下人)에게 분부하여 허참(許參)⁶⁾하기를 재촉하니, 운치 왈,

“명일 평명(平明)⁷⁾에 백사장(白沙場)으로 제진(齊進)⁸⁾하시게 하라.”

하니라.

익일(翌日)에 모든 선전관들이 준총(駿驄)⁹⁾을 타고 나아오며 살피본즉, 푸른 차일(遮日)¹⁰⁾은 반공(半空)에 솟았고, 채색(彩色) 포진(鋪陳)¹¹⁾은 좌우에 벌렸는데, 맑은 풍악(風樂)이며 풍비(豐備)¹²⁾한 음식이 가장 번화(繁華)하더라.

제인(諸人)이 차례로 좌정(坐定)한 후에 상(床)을 들어 잔(盞)을 날려 반취(半醉)하매, 운치 왈,

“금일 청중(聽衆)이 모두 즐길새, 무변(無邊)의 놀이¹³⁾가 가장 무미(無味)¹⁴⁾하니, 원컨대 전일(前日) 친하던 계집을 데려움이 어떠하뇨?”

제인이 취중(醉中)에 가장 기꺼워 왈,

“전(田) 조사(曹司)¹⁵⁾의 이런 호기(豪氣)¹⁶⁾ 있

는 줄 알지 못하였나니, 그대는 채주대로 하라.”

운치. 즉시 하인을 데리고 나는 듯이 남문(南門)으로 들어가거늘, 제인 왈,

“전 조사의 행사(行事)¹⁷⁾가 이렇듯 기특하니, 족히 큰 도적이라도 감당하리라.”

하고 칭찬하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운치가 무수한 계집을 몰아와 장(帳)¹⁸⁾ 밖에 두고, 다시 큰 상(床)을 들여 즐길새, 운치 나아와 왈,

“청말(廳末)¹⁹⁾이 청중 분부를 들어 계집을 데려왔으니, 각각 하나씩 앞에 두어 흥(興)을 돋움이 어떠하뇨?”

제인이 다 좋다 하거늘, 운치 먼저 한 계집을 불러 행수(行首)²⁰⁾ 앞에 앉히며 왈,

“너는 떠나지 말고 착실히 수청(守廳)²¹⁾하라.”

하고 차례로 하나씩 앉히니, 이는 다 선전관의 아내라.

모든 선전관이 서로 알까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심중(心中)에 대노하여 문득 상을 물리고 각각 말을 내어 타고 급급히 돌아가니, 하인 등은 이 뜻을 모르고 다 의괴(疑怪)²²⁾하더라.

선전관들이 각 집으로 돌아오니, 혹 급보(急報)²³⁾를 전하러 오는 이도 있으며, 혹 청심환(淸心丸)²⁴⁾을 구하러 약계(藥契)²⁵⁾로 가는 이도 있으며, 혹 의원(醫員)을 청하여 사관(四關)²⁶⁾을 주는 이도 있으며, 혹 발상(發喪) 통곡(慟哭)하는 이도 있어, 집집이 창황(惝怳)²⁷⁾ 분주(奔走)하매, 선전이 연고(緣故)를 물은 즉, 다

19) 목을 곳.

1) 관아에 들어가 숙직하는 일.

2) 조정에서 벼슬아치가 아침마다 으뜸 벼슬아치를 만나 보던 일.

3) 어떠한 것을 요구하며 성가시게 조름.

4) 몽둥이로 내려지는 퇴질.

5) 무덤 앞의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

6) 허참례. 새로 나아가는 벼슬아치가 전부터 있는 벼슬아치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일.

7) 해 뜰 무렵.

8) 여럿이 한꺼번에 나아감.

9) 걸음이 몹시 빠른 말.

10)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11) 바닥에 깔아놓은 요, 방석, 돛자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12) 풍비

13) 곁에 아무도 없는 놀이. 여자가 없는 놀이.

14) 재미가 없음.

15) 하급 관료. 여기서는 전운치.

16) 씩씩하고 호방한 기상.

17) 어떤 일을 행함.

18) 담.

19) 관청의 신참내기. 여기서는 전운치.

20) 한 무리의 우두머리.

21) 아녀자나 기생이 높은 벼슬아치에게 몸을 바쳐 시중을 들던 일.

22) 의심스럽고 괴이하게 여김.

23) 급히 알리는 소식.

24) 심경(心經)의 열을 푸는 환약.

25) 약국.

26) 급하거나 중한 병일 때 침을 놓는 네 곳의 혈을 이르는 말.

27)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부인(夫人) 상사(喪事)라.

김 선전은 집에 돌아온즉, 시비(侍婢) 고(告)왈,

“부인이 아까 의복(衣服)을 마르시다가 홀연 별세(別世)¹⁾하였나이다.”

하거늘, 김 선전이 대노 왈,

“이것이 백사정 허참 놀음의 창기(娼妓) 되어, 전가(田哥) 놈²⁾을 부동(符同)³⁾하여 와서 만좌(滿座)⁴⁾ 중에 욕(辱)을 보이니, 어찌 사족(士族) 부녀(婦女)의 소행(所行)이 여차(如此)⁵⁾하리오? 나는 벼슬도 못하고 문호(門戶)를 망(亡)하니, 통한(痛恨)⁶⁾함을 어찌 측량(測量)하리오?”

하더니, 문득 시비 급보(急報) 왈,

“부인이 깨어난다.”

하거늘, 선전이 노(怒)를 그치고 급히 내당(內堂)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일어나 앉으며 왈,

“첩(妾)이 아까 잠깐 졸더니, 홍포(紅袍) 입은 자(者)가 불문시비(不問是非)⁷⁾하고 첩을 잡아내며, 황의(黃衣) 입은 하인이 달려들어 장옷⁸⁾을 씌우고 말을 태워 어느 곳으로 가본즉, 나 같은 부인이 무수하여 어찌할 줄 몰라 하더니, 전 선전⁹⁾이란 놈이 나를 꼭뒤 잡혀¹⁰⁾ 들러 상공(相公) 앞에 앉히며, ‘작실히 수청하라’ 하고 차례로 하나씩 앉힌 후에 선전관들과 열좌(列坐)¹¹⁾하여 상을 받았다가,

별안간에 상공이 노색(怒色)을 띠고 일어서며 말에 올라 돌아가매, 다른 사람들이 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노기(怒氣) 발발(勃發)¹²⁾하여

다 흩어지니,

첩도 아까 계집들과 함께 몰리어 방황(彷徨)하다가 깨달으니¹³⁾, 남가일몽(南柯一夢)¹⁴⁾이라. 집안사람들이 나를 죽은 줄로 알고 발상(發喪)¹⁵⁾ 통곡하니, 그런 변고(變怪)¹⁶⁾ 어디 있으리오.”

하거늘, 김 선전이 이 말을 듣고 어이없어하며, 모든 선전관이 불승통분(不勝痛憤)¹⁷⁾ 왈,

“대역부도(大逆不道)¹⁸⁾ 전운치 놈이 입조(入朝)¹⁹⁾하여 우리 등을 욕을 보이니, 어느 때 이 놈을 죽여 이 한(恨)을 설치(雪恥)²⁰⁾하리오.”

하더라.

전운치가 모든 선전관을 속이고 돌아와서 헤아리되,

‘내 나라에 죽을죄를 면(免)하고 도리어 벼슬을 받으니 천은(天恩)²¹⁾이 망극(罔極)한지라. 마땅히 회과(悔過)²²⁾ 천선(遷善)²³⁾하여 충성을 극진(極盡)히 하리라’

하고, 수신(修身) 병곡²⁴⁾하며 직사(職司)²⁵⁾를 다스리니 사복마(司僕馬)²⁶⁾를 신칙(申飭)²⁷⁾하여 말이 살찌고 병病)이 없으니 조정이 기특히 여기더라.

각설(却說), 가달산에 염준이라 하는 자가 있되 용맹(勇猛)이 과인(過人)²⁸⁾하고 무예(武

1) 세상을 떠남.

2) 전운치

3) 그릇된 일에 함께 어울려 한통속이 됨.

4) 여러 사람이 늘어앉은 자리.

5) 이와 같음.

6) 가슴 아프게 몹시 한탄함.

7) 옳고 그름을 묻지 않음.

8) 부녀자가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느라고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쓰던 옷.

9) 전운치

10) 뒤통수의 한가운데를 잡혀서.

11) 벌여 앉음.

12)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남.

13) 깨어나니.

14)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15) 상제가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서 초상난 것을 알리는 일.

16)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

17) 원통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함.

18)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큰 죄를 지음.

19) 벼슬에 오름.

20) 설욕.

21) 임금의 은덕.

22) 잘못을 뉘우침.

23) 나쁜 짓을 고쳐 착하게 됨.

24) (?)

25) 직무(職務)에 따라 책임지고 맡아 하는 사무.

26) 사복사에서 관리하던 말.

27)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28)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藝) 출중(出衆)한지라. 강도(強盜) 수천을 모아 산채(山寨)를 이루고 촌가(村家)를 노략(擄掠)¹⁾하며, 각 읍(邑)을 쳐 군기(軍器), 전량(錢糧)²⁾을 탈취(奪取)하며 사람을 살해하니, 각 읍이 소요(騷擾)³⁾한지라.

감사(監司)⁴⁾가 이 연유(緣由)를 장계하니, 상(上)이 크게 근심하사 제신을 모아 의논 왈,

“도적이 이렇듯 강성하니, 뉘 능히 도적을 소멸하리오.”

하시되, 감히 대답할 자가 없더니, 문득 일인(一人)이 출반주(出班奏)⁵⁾ 왈,

“신(臣)이 천은을 입사음이 망극하온지라. 비록 무재(無才)하오나, 염준의 머리를 베어 전하의 근심을 덜까 하나이다.”

하거늘, 상이 보시니 이는 전운치라. 대회하사 제신더러 문(問) 왈,

“경(卿)⁶⁾ 등(等) 소견(所見)에는 어떠하뇨?”

제신이 다 마땅함을 주하니, 상이 왈,

“군마(軍馬)를 얼마나 조발(調發)⁷⁾할꼬?”

운치 대(對) 왈,

“적세(賊勢) 크다 하오니, 신이 홀로 나아가 적세를 탐지(探知)하온 후에 동병(動兵)⁸⁾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상이 윤허(允許)⁹⁾하시고 인검(印劍)¹⁰⁾을 주사, 임의 호령(號令)하라 하시니, 운치 사은(謝恩) 퇴조(退朝)¹¹⁾하여 익일에 행할새, 차야(此夜)¹²⁾에 구름을 타고 남서부에 가서 모친을 뵈옵고 왕명을 받자와 적세를 탐지하러 가는 연

유를 고하니, 부인 왈,

“적세 허실(虛實)을 모르고 소루히 들어감이 만분(萬分) 위태하니, 극진히 조심하여 군친(君親)¹³⁾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

하거늘, 운치 수명(受命)하고 경사(京師)¹⁴⁾로 돌아와 날이 새매, 포고 등 십여 인을 데리고 발행(發行)¹⁵⁾하여 감영(監營)에 이르러 포고 등을 머물러두고 홀로 인검을 가지고 몸을 흔들 어 변하여 수리되어 가달산으로 들어가 보니, 염준이 엄연히 일산(日傘)¹⁶⁾을 받고 백총마(百摠馬)¹⁷⁾를 탔으며 채의(彩衣) 홍상(紅裳)¹⁸⁾한 미녀를 좌우에 세우고 종자 백여 명을 거느려 산행하더니, 문득 염준이 분부하되,

“오늘은 각 도(道)에 갔던 장사(壯士) 등이 돌아올 것이니 명일에 큰 소를 십 필(匹)만 잡고 잔치할 기구(器具)¹⁹⁾를 차리라.”

하는지라.

운치, 염준을 살펴본즉, 기골(氣骨)²⁰⁾이 장대하고, 낮빛이 붉고, 눈이 방울 같고, 수염이 바늘을 묶어 세운 듯하니, 짐짓 일세(一世)의 호걸(豪傑)이거늘,

운치 문득 한 계교를 생각하고, 나뭇잎을 훑어 신병(神兵)²¹⁾을 만들어 창검(槍劍)을 들리고, 기치(旗幟)²²⁾를 벌려 진(陣)²³⁾을 굳게 치고, 운치 머리에 쌍봉(雙鳳) 투구를 쓰고, 몸에 홍금(紅錦) 전포(戰袍)²⁴⁾를 입었으며 인검을 들고 오추마(烏騶馬)²⁵⁾를 타고 동구(洞口)²⁶⁾를 깨쳐

1)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아 감.

2) 전곡. 돈과 곡식.

3) 여러 사람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남.

4) 관찰사.

5) 여러 신하 가운데 특별히 혼자 나아가 임금에게 아뢰

6) 임금이 이품(二品) 이상의 관원에 대하여 일컫던 말.

7) 군사에 쓰려고 강제로 모음.

8) 군사를 일으킴.

9)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10) 임금이 병마를 통솔하는 장수에게 주던 검으로 명령을 어기는 자는 보고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징표.

11) 조정(朝廷)이나 조회에서 물러남.

12) 이날 밤

13) 임금과 아버지.

14) 수도. 서울.

15) 길을 떠나감.

16) 햇볕을 가리기 위한 큰 양산.

17) 백마(白馬)

18) 다홍치마.

19) 세간이나 그릇.

20) 건장하고 튼튼한 체격.

21) 신이 보낸 군사 또는 신의 가호를 받는 군사라는 뜻으로, 적과 맞서 절대 지지 않는 강한 군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 군대에서 쓰던 깃발.

23) 군사들의 대오(隊伍)를 배치한 것.

24) 장수가 입던 긴 옷.

25) 검은 털에 흰 털이 섞인 말. 옛날 중국의 향우가 탔다는 준마.

들어가 보니 성문을 굳게 닫았거늘, 운치 진언을 염한즉 성문이 절로 열린지라.

말을 몰아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보니, 빛난 집이 두루 벌리어 있고 물색(物色)¹⁾이 십분(十分) 변화(繁華)하더라. 운치 사면(四面)을 둘러 본 후에 변신(變身)하여 수리되어 후원(後園)에 들어가 본즉, 염준이 황금(黃金) 교의(交椅)²⁾에 앉고 제장(諸將)³⁾을 좌우에 앉히고 그 뒤에 전각(殿閣)에서 미녀 수백 인이 열좌하여 잔을 받거늘,

운치 그 동정을 보고자 하여 진언을 염하니, 무수한 수리가 하늘로 덮여 내려와 제인의 앞에 놓인 상(床)을 다 거두어 가지고 중천(中天)에 떠 올라가며 광풍(狂風)이 대작(大作)하여 모래 날리며 돌이 달음질하니,

좌중(座中)⁴⁾이 대경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바람에 불리어 쓰러지며 차일과 포진 등물(等物)⁵⁾이 다 날아 공중에 오르니, 염준은 낮이 없어 언덕의 나뭇등걸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모든 군사는 떡과 고기를 들고 표풍(漂風)⁶⁾하여 뒹굴뒹굴 구르며 흑 똥물도 토하는지라.

사시(巳時)⁷⁾부터 오시(午時)까지 분분(紛紛)⁸⁾하다가 염준과 제(諸) 장졸(將卒)이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문득 백설(白雪)이 담아 붓는 듯이 내려 순식간에 십여 장(丈)이 쌓이매 눈을 뜨지 못하여 어찌할 줄 몰라 황황(惶惶)⁹⁾하더니 문득 바람이 그치며 눈[雪] 물이 한 점도 없는지라.

염준이 대청(大廳)에 나와 술발¹⁰⁾을 흔들어

장졸을 모아 괴이한 재변에 서로 논란(論難)¹¹⁾하더니, 문득 문졸(門卒)¹²⁾이 보(報)¹³⁾하되,

“일원(一員)¹⁴⁾ 대장(大將)이 군사를 몰아 동문(東門)을 깨치고 들어온다.”

하거늘, 염준이 대경하여 군사를 재촉하여 기세(氣勢)를 정제(整齊)¹⁵⁾하고 진전(陣前)에 정창출마(挺槍出馬)¹⁶⁾하니, 운치 대호 왈,

“너는 어떤 놈이기에 강악(強惡)¹⁷⁾을 믿고 산중에 둔취(屯聚)¹⁸⁾하여 군현(郡縣)을 침노(侵擄)하며 백성을 살해하는가? 너 같은 귀무리를 다 잡아 국법을 정(正)히 하리니, 네 성명(性命)¹⁹⁾을 아끼거든 일찍 항복(降伏)하여 천명(天命)을 순수(順受)²⁰⁾하여라.”

염준이 대노 질왈(叱曰)²¹⁾,

“내 응천순인(應天順人)²²⁾하여 장차 무도(無道)한 임금을 없이하고, 도탄(塗炭)²³⁾에 든 백성을 건지고자 하거늘, 네 어찌 감히 나를 항거(抗拒)하는가?”

말을 마치며 내달아 양마(兩馬)가 교봉(交鋒)²⁴⁾하여 수십여 합(合)²⁵⁾에 이르러 염준의 창날은 일광(日光)²⁶⁾을 가리고 운치의 검광(劍光)²⁷⁾은 반공(半空)에 무지개 되었으니, 짐짓 양호(兩虎)가 공산(空山)²⁸⁾에서 밥을 다투며 쌍룡(雙龍)이 벽해(碧海)²⁹⁾에서 여의주(如意珠)³⁰⁾

경고 신호에 씀. 요령(鑒鈴).

11) 논란(論難).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벌이며 다툼.

12) 문을 지키는 병사.

13) 알림.

14) 한 사람.

15) 정돈하여 가지런히 함.

16) 창을 겨누어 들고 말을 타고 나아감.

17) 역세고 모쪼.

18)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여 있음.

19) 목숨이나 생명.

20) 순수히 받음.

21) 꾸짖어 말하기를.

22)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백성의 뜻을 따름.

23) 몹시 곤궁하거나 고통스러운 지경.

24) 두 장수가 교전함

25) 칼이나 창으로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서로 마주치는 횃수를 세는 단위

26) 햇빛.

27) 칼날의 번쩍거리는 빛.

28) 사람이 없는 산중.

29) 질푸른 바다.

26) 산문(山門)의 어귀.

1) 경치.

2) 의자

3) 여러 장수.

4) 모여 앉은 여러 사람.

5) 같은 종류의 물건.

6) 바람결에 떠 흘러감.

7)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8) 여러 사물이 뒤섞여 어수선했.

9) 마음이 급해 허둥거리며 정신이 없음.

10) 늦쇠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 위에 짧은 쇠자루가 있고 안에 작은 쇠뭉치가 달린 것으로, 군령이나

를 다투는 형상이라.

양장(兩將)¹⁾의 정신이 점점 썩썩하여 승부를 미결(未決)²⁾하여 날이 이미 저물매, 양진(兩陣)이 쟁(鏖)³⁾을 쳐 군(軍)을 거두니라. 염준이 진(陣)에 돌아오매 제장이 치하 왈,

“작일 괴변을 만나 마음이 놀랐으되 금일에 범 같은 장수(將帥)를 능히 대적(對敵)하니 하늘이 도우심이어니와 적장의 용맹이 또한 절륜(絶倫)⁴⁾하니 장군은 경적(輕敵)⁵⁾치 마소서.”

하거늘, 염준이 소 왈,

“적장이 비록 용맹하나 내 어찌 저를 두려워 하리오. 명일은 결단코 운치를 잡고 바로 도성(都城)으로 향(向)하리라.”

하고 익일에 진문(陣門)을 열고 염준이 출반(出班)⁶⁾ 대호 왈,

“전운치는 빨리 나와 나의 칼을 받으라. 금일은 맹세코 승부를 결(決)하리라.”

하며 좌우충돌하거늘, 운치 대노하여 말을 내몰아 칼을 찌부어 바로 염준을 취(取)할새, 삼십여 합(合)에 이르되 염준의 창법(槍法)이 일호(一毫)⁷⁾ 차착(差錯)⁸⁾이 없는지라.

운치, 헤아리되.

‘무예로는 염준을 당치 못하리라.’

하고, 몸을 흔들어 정몸⁹⁾은 공중에 오르고 거짓몸은 염준을 대적하게 하고 크게 외쳐 왈,

“내 평생에 살심(殺心)¹⁰⁾을 아니하더니, 네 이제 천명을 거역하매 내 마지못하여 너를 죽이 나니 나를 원(怨)치 말라.”

하고, 칼을 들어 염준을 치려 하다가, 다시 생각하되,

‘내 살생하기를 어찌 졸연(猝然)¹¹⁾히 하리오.

마땅히 이놈을 생금(生擒)하리라.’

하고, 공중에 올라 칼을 번득여 급히 외쳐 왈,

“내 재조를 보라.”

하니, 염준이 대경하여 하늘을 우러러본즉 한 떼의 구름 속에 번개 일어나니, 이는 번개가 아니요, 운치의 검광이라.

대경실색(大驚失色)¹²⁾하여 적진(敵陣)으로 돌아가려 하더니, 앞에 운치 칼을 들어 길을 막으며 뒤에 또 운치 따르며 좌우에 또한 운치 에워 들어오며 머리 위에 운치가 구름을 타고 칼춤 추어 염준의 머리를 범(犯)하는지라.

염준의 정신이 어질하여 마하(馬下)¹³⁾에 떨어지거늘, 운치 구름에서 내려와 거짓 운치로 군사를 호령하여 염준을 결박하여 본진(本陣)으로 보내고, 운치는 말을 달려 적진을 충살(衝殺)¹⁴⁾하니, 적진 장졸이 염준이 사로잡힘을 보고 손을 묶어 항복하거늘, 운치 적진 장졸을 계하(階下)에 꿰리고 효유(曉諭)¹⁵⁾하여 왈,

“여등(汝等)¹⁶⁾이 반적(叛賊)¹⁷⁾을 도와 천명에 항거하니, 그 죄 만사무석(萬死無惜)이로되, 내 특별히 사(赦)하나니, 여등은 고향에 돌아가 농업에 힘써 양민(良民)¹⁸⁾이 되게 하라.”

적장 등이 고두재배(叩頭再拜)¹⁹⁾하고 각각 헤어지매, 옛날 장자방(張子房)²⁰⁾이 계명산(鷄鳴山) 추야월(秋夜月)에 이향가(離鄉歌) 한 곡조(曲調)를 슬피 불러 강동(江東) 자제(子弟) 고향을 생각하여 훌쩍과 같더라.²¹⁾

운치, 염준의 내실(內室)에 들어가 미녀 수백을 다 놓아 각각 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각 진

30)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구슬.

1) 전운치와 염준

2) 결정되지 않음,

3) 팽과리

4) 매우 두드러지게 뛰어난.

5) 적을 가벼이 여김.

6) 출반주(出班奏)

7) 한 가닥의 털. 아주 작다는 뜻.

8)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

9) 진짜 자기의 몸.

10) 죽이려는 마음.

11) 쉽게 함.

12)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13) 말 아래

14) 들이쳐 찢어 죽임

15) 깨달아 알아듣도록 타이름

16) 너희들.

17) 자기 나라를 배반한 역적.

18) 선량한 백성.

19)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함.

20) 한나라의 건국 공신인 장양(張良).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함.

21)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고사임

(陣)으로 돌아와 장대(壯臺)¹⁾에 앉고 좌우를 명(命)하여 엄준을 대하(臺下)에 꿇리고, 여성(麗聲)²⁾ 대매(大罵) 왈,

“네 재주와 용맹이 있을진대 마땅히 갈충사군(竭忠事君)³⁾하여 영충(榮寵)⁴⁾이 옹거늘, 감히 역심(逆心)을 품어 국가를 소요케 하니, 그 죄를 어찌 요대(饒貸)⁵⁾하리오.”

하고 무사(武士)를 명하여 원문(轅門)⁶⁾ 밖에 참(斬)⁷⁾하라 하니, 엄준이 슬피 빌어 왈,

“소장(小將)의 죄상(罪狀)은 이삼족(荑三族)⁸⁾이 마땅하오나, 장군은 호생지덕(好生之德)⁹⁾을 드리우시면 마땅히 허물을 고쳐 장군을 좇을까 하나이다.”

운치 왈,

“네 진실로 개과천선(改過遷善)¹⁰⁾할지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하고, 무사를 명(命)하여 맨 것을 끄르고 좋은 말로, 위로하여 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신병(神兵)을 파(罷)한 후에, 첩서(捷書)¹¹⁾를 조정에 올리고, 즉시 발행하여 궐하에 나아가 숙배(肅拜)¹²⁾하오니, 상이 인견(引見)¹³⁾하사 파적(破敵)¹⁴⁾한 수말(首末)을 물으시니, 운치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자세히 아뢰니, 상이 무수히 칭찬하시고 상사(賞賜)¹⁵⁾를 많이 하시니라.

차설(且說), 운치가 경성(京城)에 돌아온 후에 조정이 다 와서 운치를 보고 성공함을 치하하되, 홀로 선전관(宣傳官)이 일인(一人)도 와

보는 이 없으니, 이는 백사정 허참(許參) 시(時)의 옥보이던 혐의(嫌疑)러라.

운치가 다시 속이고자 하더니, 일일은 사경(四更)¹⁶⁾ 때에 월색(月色)이 조요(照耀)¹⁷⁾하여 벽공(碧空)¹⁸⁾에 일점(一點) 운(雲)이 없는지라.

운치, 오운(五雲)을 타고 황건역사(黃巾力士)¹⁹⁾와 이매망량(魑魅魍魎)²⁰⁾ 등을 다 모으고 신장(神將)²¹⁾을 불러 분부하되,

“빨리 가 모든 선전관을 잡아 오라.”

하니 신장이 청령(聽令)²²⁾하고 가더니 이윽고 다 잡아 왔거늘, 운치 구름 교의(交椅)에 앉고 좌우에 신장 등을 벌려 세우고 등촉(燈燭)이 휘황(輝煌)²³⁾한데, 운치가 여성(麗聲)²⁴⁾ 왈,

“황건역사는 어디 있나뇨? 모든 죄인을 잡아들이라.”

하니, 역사 등이 일시에 청령하고, 각각 하나씩 나입(拿入)²⁵⁾하는지라.

선전관들이 황겁(惶怯)²⁶⁾하여 땅에 엎드려 치밀어본즉, 귀왕(鬼王)과 신장이 좌우에 나열(羅列)²⁷⁾하여 위의(威儀)²⁸⁾가 심히 엄숙(嚴肅)한 곳에, 운치, 고성(高聲) 대매(大罵) 왈,

“내 전일(前日)에 희롱(戲弄)하고자 하여 그대의 부인을 잠깐 옥되게 하였으나, 어찌 그렇듯 함협(含嫌)²⁹⁾하여 나를 소대(疏待)³⁰⁾함이 심하뇨? 내 일찍이 여등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보내고자 하되, 내 밤이면 천상 벼슬에 다사(多事)하고, 낮이면 국가 소임(所任)에 골몰(汨沒)

1) 장수의 지휘대.

2) 성이 나서 큰소리를 지름.

3) 충성을 다해 임금을 섬김.

4) 임금의 특별한 사랑이 대대로 미침.

5) 너그럽이 용서함.

6) 군영이나 영문을 이르던 말.

7) 목을 베어 죽임.

8) 삼족을 뱀.

9) 사형에 처할 죄인을 특사하여 살려 주는 제왕의 덕.

10)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

11)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던 글.

12) 왕에게 하던 절.

13)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 만나 봄.

14) 적을 깨뜨림.

15) 상을 줌.

16)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17) 밝게 비쳐서 빛남.

18) 푸른 하늘.

19) 귀신 가운데 무력을 맡은 장수인인 신장(神將으로 힘이 세다고 함.

20) 온갖 도깨비. 산천, 목석의 정령에서 생겨난다고 함.

21) 신병(神兵)을 거느리는 장수.

22) 명령을 들음.

23) 광채가 빛나서 눈이 부심.

24) 성이 나서 큰소리를 지름.

25) 죄인을 법정으로 잡아들임

26) 겁이 나고 두려움.

27) 나란히 줄을 지음.

28)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몸가짐.

29) 혐의를 품음.

30) 푸대접.

하기로 지금 천연(遷延)¹⁾하였거니와, 이제는
마지못하여 너희 등을 풍도옥(豐都獄)²⁾에 보내
어 고행(苦行)³⁾을 겪어 사람을 만모(謾侮)⁴⁾하
던 죄를 속(贖)⁵⁾하게 하노라.”

하고, 말을 마치며 역사(力士)를 불러 왈,

“너의 이 죄인을 압령(押領)⁶⁾하여 풍도옥에
가서 염왕(閻王)⁷⁾에게 부치되, 이 죄인을 지옥
에 가두어 팔만 겁(劫)⁸⁾을 지나거든 업축(業
畜)⁹⁾이를 만들어 보내라.”

하거늘, 모든 선전관이 이 말을 들으며 정신
이 더욱 떨리고 혼백이 몸에 붙지 아니하는지
라.

슬피 빌어 왈,

“우리 등이 암매(暗昧)¹⁰⁾하여 죄를 범하였으
니, 바라건대 동료지의(同僚之義)¹¹⁾를 생각하여
죄를 용서하소서.”

하거늘, 운치 침음양구(沈吟良久)¹²⁾에 왈,

“내 여등을 풍도(豐都)에 보내어 고행을 겪게
할 것이로되, 전일 안면(顔面)¹³⁾을 고념(顧念)¹⁴⁾
하여 아직 십분(十分) 안서(安徐)¹⁵⁾하거니와,
일후(日後)를 보아 처치하리라.”

하며,

“몰아 내치라.”

하니, 모든 선전관이 문득 깨달으며 남가일몽
(南柯一夢)이라. 일신(一身)에 땀이 흘러 금침
(衾枕)¹⁶⁾이 젖었고 정신이 아득한지라. 그 후에

모든 선전관이 청중(廳中)에 모여 그날 몽사
(夢事)를 이른즉 모두 여출일구(如出一口)¹⁷⁾이
어늘, 차후로 운치를 대접함이 각별 극진(極盡)
하더라.

차설(且說), 일일은 상(上)이 호판(戶判)더러
문 왈,

“전일(前日) 호조(戶曹)의 은(銀)과 돈이 다
변하였다 하더니 이제는 어떠하더뇨?”

호판이 대(對) 왈,

“전일과 그대로 그저 있나이다.”

하니, 상이 가장 근심하시거늘, 운치 출반주
(出班奏) 왈,

“원컨대 신이 각처(各處) 창고의 재변(災變)
을 자세히 탐지하와 탐전(榻前)에 아뢰고자 하
나이다.”

상이 의윤(依允)하시니, 운치 즉시 호판과 한
가지로¹⁸⁾ 호조에 나아가 고문(庫門)을 열고 본
즉 은이 예대로 있거늘, 호판이 대경 왈,

“내 어제 반고(反庫)할 때 창개구리만 있더니
밤사이로 도로 은이 되었으니, 가장 괴이하도
다.”

하고 외고(外庫)를 열어보니 또한 다 의구
(依舊)하였고, 각 영문(營門)의 군기(軍器) 다
여전(如前)하니 모두 놀라고 신기히 여기며, 운
치 살펴본 후 탐전에 그대로 상달(上達)하오니,
상이 기꺼워하시며 운치의 요술로 작변(作變)
함을 짐작하시더라.

이때 간의대부(諫議大夫)¹⁹⁾가 여쭙오되,

“호서(湖西) 땅에 사오 인이 둔취(屯聚)하여
역모(逆謀)를 의논한다 하여, 고자(告者)²⁰⁾가
문서를 가지고 신(臣)에게로 왔습기에 고자를
가두고 아뢰나이다.”

하거늘 상이 왈,

1) 일이나 날짜 따위를 미루고 지체함.

2) 지옥.

3)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 수행을 쌓는 일.

4) 거만한 태도로 남을 업신여김.

5)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바침.

6) 죄인을 데리고 옴.

7) 염라대왕. 저승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지은 생
전의 선악을 심판하는 왕.

8) 천지가 개벽한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동안이
란 뜻으로 매우 길고 오랜 시간을 이르는 말.

9)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하여 이승에 태어난 짐승.

10) 못나고 어리석어 생각이 어두움.

11) 동료의 의리.

12) 속으로 깊이 생각한 지 오랜 뒤.

13) 서로 낮이나 익힐 만한 친분.

14) 남의 사정이나 일을 헤아려줌.

15) 잠시 보류함

16) 이부자리와 베개.

17) 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말이 같음.

18) 함께.

19)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정사품의 벼슬. 문하부는 고
려와 조선 시대 초에 나라의 모든 정사를 맡아보던
최고의 의결 기관.

20)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사람.

“과인(寡人)¹⁾이 박덕(薄德)²⁾하여 도적이 봉기(蜂起)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오.”

하시고, 금부(禁府)와 포청(捕廳)³⁾으로 잡으라 하사 즉시 잡아왔거늘, 상이 친문(親問)⁴⁾하실새, 그 중 한 놈이 아뢰되,

“전운치를 임금으로 삼아 백성을 진정(鎮靜)⁵⁾코저 하옵더니, 이제 일이 발각(發覺)하오매 만사무석(萬死無惜)이로소이다.”

할새, 차시 운치, 문사낭청(問事郎廳)⁶⁾에 섰다가 불의(不意)에 역적(逆賊) 초사(招辭)⁷⁾에 오른지라.

상이 대노하사 왈,

“전운치 필경(畢竟) 모역(謀逆)⁸⁾할 줄 알았더니 이제 초사에 났도다.”

하시고, 빨리 운치를 잡아내려 형구(形具)⁹⁾를 베풀고 하교(下敎)¹⁰⁾ 왈,

“내 전일에 네 죄를 사(赦)하고 벼슬을 주었더니 국가의 은혜를 감복(感服)¹¹⁾치 아니하고 이제 역률(逆律)¹²⁾을 범하였으니 발명(發明)¹³⁾ 말고 죽으라.”

하시며, 나졸(羅卒)¹⁴⁾을 엄교(嚴敎)¹⁵⁾하사,

“한 때에 죽이라.”

하시니, 나졸이 힘을 다하여 치려 하되, 팔이 아파 매를 들지 못하더라.

운치 아뢰되,

“신의 전후(前後) 죄상은 만 번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역률은 천만 애매하여이다.”

하며, 심중에 헤아리되,

‘이 필연 나를 모해(謀害)¹⁶⁾하는 이 있어 이리함이니, 어찌 애답지 아니하리오.’

하고, 다시 주(奏)하되,

“신이 이제 죽을진대 평생의 배운 재조를 세상에 전하지 못 하옵지라. 복원(伏願), 성상(聖上)은 신의 원(冤)을 풀게 하소서.”

하거늘,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의 재조가 가장 기이(奇異)하니 시험하리라’

하시고, 하교 왈,

“네 무슨 재조가 있느냐?”

운치 왈,

“신이 그림을 잘하오매 나무를 그리면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걸어가웁고, 산을 그리면 산에서 초목(草木)이 생(生)하옵기로 세상에서 명화(名畵)라 하옵나니, 이 그림을 세상에 전(傳)치 못하고 죽사오면 원혼(冤魂)¹⁷⁾이 되리로소이다.”

상이 생각하시되,

‘이놈이 죽어 원혼이 되면 괴로운 일 있으리라.’

하시고, 즉시 맨 것을 끌러놓고 필묵지(筆墨紙)¹⁸⁾를 주시니, 운치, 붓을 들어 산수(山水)를 그릴새, 만학천봉(萬壑千峰)¹⁹⁾에 만장폭포(萬丈瀑布)²⁰⁾가 산상(山上)으로부터 내리게 하고, 시냇가에 버들가지 늘어지게 하고, 그 아래 안장(鞍裝) 지은 나귀를 그린 후에 붓을 던지고 사배(四拜)하오니, 상 왈,

“너는 죽을 죄인이거늘 사배함은 무슨 뜻인가?”

운치, 주(奏) 왈,

“신이 이제 천안(天眼)²¹⁾을 하직(下直)하고 산중으로 들어가나이다.”

1)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일컫던 말.

2) 심덕이 두텁지 못하거나 덕행이 적음.

3) 포도청.

4) 임금이 몸소 들음.

5)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일을 가라앉힘.

6) 죄인을 신문할 때 기록과 낭독을 맡아보던 벼슬..

7)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8) 반역을 꾀함.

9) 형벌·고문 따위에 쓰는 도구.

10) 전교(傳敎).

11) 마음에 깊이 느껴 충심으로 복종함.

12) 역적을 처벌하는 법률.

13)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14) 군아(郡衙)에 딸렸던 군뢰(軍牢)와 사령의 총칭.

15) 엄한 교지나 분부.

16) 모략을 써서 남을 해침.

17)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18) 붓, 먹, 종이.

19) 첩첩이 겹쳐진 깊고 큰 골짜기와 수많은 산봉우리.

20) 매우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포.

21) 임금의 얼굴.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중으로 들어가더니 문득 간데없는지라.

상이 대노 왈,

“내 이놈에게 또 속았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하시고, 좌우로 하여금 그림을 소화(燒火)¹⁾하라 하시며, 그 죄인 등을 다시 엄문(嚴問)²⁾하사 지만(遲晚)³⁾을 받은 후에 내어 처참(處斬)하라 하시고, 운치에게 속음을 못내 통한(痛恨)하사 각 도(道)에 행관(行關)하시되, 운치를 잡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천금(千金) 상(賞)의 벼슬을 주리라 하시다.

차설(且說), 운치, 요술을 행(行)하여 임금을 속이고 죽을 액(厄)⁴⁾을 벗어나 집에 돌아와 모친께 전후 사연을 고하니, 부인이 대경 왈,

“차후는 몸을 감추어 다시 조정에 나아가지 말라. 네가 임금을 속이니 그 죄 천지간(天地間)에 용납지 못할지라. 네 사후(死後)에 하면 목(何面目)⁵⁾으로 조상을 뵈려 하느냐?”

하며, 일장대책(一場大責)⁶⁾하거늘, 운치 모친 경계(警戒)를 들은 후는 산중에 있어 고요히 글을 힘쓰며, 혹 나귀를 타고 물색(物色)을 구경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본즉 젊은 중이 고운 계집을 데리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니, 이윽고 그 여자가 나무에 올라 자향⁷⁾하려 하는지라.

운치, 마침 촌가(村家)에서 술 사 먹고 산상(山上)으로 올라오다가 지경(地境)⁸⁾을 보고 놀라 급히 나아가 맨 것을 끄르며 수족(手足)을 주물러 회생(回生)하매 연고를 물은대, 기녀(其女)⁹⁾가 왈,

-
- 1) 불에 태움.
 - 2) 엄하게 문책함.
 - 3) 예전에 죄인이 자백하여 복종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르던 말.
 - 4) 모질고 사나운 운수.
 - 5) 무슨 면목.
 - 6) 크게 꾸짖음.
 - 7)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함
 - 8) 형편.
 - 9) 그 여자.

“아까 지나던 화상(和尚)¹⁰⁾은 가군(家君) 생시(生時) 친하던 중놈이라. 첩(妾)이 일찍 과거(寡居)¹¹⁾하여 수절(守節)하더니, 금일은 가군의 돌아간 날이라. 그 중놈이 와서 달래어 이르되, ‘제 절에 가서 재(齋)¹²⁾를 올리자 하고, 한가지로¹³⁾ 감을 간청(懇請)하기로, 첩이 신지무의(信之無疑)¹⁴⁾하고 따라왔더니, 그놈이 불측지심(不測之心)¹⁵⁾을 내어 이곳에 와서 나를 겁측(劫)¹⁶⁾하여 훼손(毀節)¹⁷⁾시킴하매 살아 쓸데없기로 자결코저 하노라.”

운치, 그 여자를 위로하여 제 집으로 보내고 다시 산에 올라가니, 큰 암자(庵子)가 있고 어제 보던 중놈이 그곳에 있는지라. 운치가 가만히 진언(眞言)을 염(念)하여 기운을 내어 부니, 그 중이 변하여 전운치 되거늘, 그 절에 머물러 두고 동정을 살피더니, 마침 포도기찰(捕盜畿察)¹⁸⁾이 왔다가 그 중놈을 보고 전운치라 여겨 태수(太守)께 급히 고하니, 태수가 대희하여 토병을 발(發)하여 그 중놈을 잡아 결박(結縛)하여 경사(京師)로 올리니, 상이 즉시 친국(親鞫)¹⁹⁾을 배설(排設)하시더니, 정원(政院)이 주(奏)하되,

“각 도(道) 각 읍(邑)에서 전운치를 잡아들인 것이 삼백육십일 명이오니, 이는 반드시 전운치의 요술인가 하나이다.”

상이 진노(震怒)²⁰⁾하사 처치하심을 생각지 못하실새, 도승지(都承旨)²¹⁾ 왕연희가 주(奏) 왈, “전운치 환술(幻術)²²⁾이 불측(不測)하오니 금

-
- 10) 중을 높여 이르는 말.
 - 11) 과부로 지냄.
 - 12) 명복을 비는 불공.
 - 13) 함께.
 - 14)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따름.
 - 15) 꾀뚝하고 엉큼한 생각
 - 16)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부녀자를 겁탈하는 일.
 - 17) 절개를 훼손함.
 - 18) 포도청에서 범인을 체포하려고 수소문하고 염탐하며 행인을 검문하던 사람.
 - 19) 임금이 중죄인을 친히 신문하던 일.
 - 20) 존엄한 사람이 몹시 노함.
 - 21) 왕명을 전달하거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을 상달하는 일을 맡았던 승정원의 으뜸 벼슬.
 - 22) 남의 눈을 속이는 기술.

번(今番)¹⁾도 잃을 염려 있사오매 진가(眞假)²⁾를 물론(勿論)하고 모두 베어버립시다.”

하거늘, 상이 옳게 여기서 십자각(十字閣)³⁾에 전좌(殿座)⁴⁾하시고 모든 전운치를 잡아들여 차례로 베일새, 그중 하나가 나아와 아뢰되,

“신(臣)은 전운치 아니요, 도승지 왕연희로소이다.”

하거늘, 상이 보신즉 분명 왕연희라. 좌우더러 물으시니, 좌우가 대(對)왈,

“이는 전운치로소이다.”

상이 탄(歎)⁵⁾왈,

“국운이 불행하여 요열(妖孽)이 이같이 작난(作亂)하니 종사(宗社)⁶⁾를 어찌 보전(保全)하리오. 적신(賊臣) 하나를 죽이려 하매, 무죄(無罪)한 조신(朝臣)과 애매한 백성을 많이 죽이리로다.”

하시고, 친국을 파(罷)하시니라.

운치, 구름 속에서 요술을 행하고 몸을 변하여 왕연희 되어 궐문(闕門)을 나오니, 하인 등이 인마(人馬)를 대령하였다가 모시어 왕부(王府)⁷⁾로 돌아가 바로 내당(內堂)으로 들어가 부인⁸⁾과 수작(酬酌)하되, 부인과 가내인(家內人)⁹⁾은 전혀 모르더니, 이때에 왕공(王公)¹⁰⁾이 궐내(闕內)에서 나와 하인을 찾은즉 하나도 없는지라.

괴히 여겨 동관(同官)¹¹⁾의 인마를 빌려 타고 집에 돌아오니, 하인들이 문전(門前)에 있스매 왕공이 일변 대노하며 곡절(曲折)을 물은즉 하인 등 왈,

“소인(小人) 등이 아까 상공(相公)을 모셔 왔

삽거늘, 또 어찌 상공이 계시리요?”

하며 면면상고(面面相顧)¹²⁾하거늘, 왕공이 의괴(疑怪)하여 내당으로 들어가니 시비(侍婢) 등이 손뻑 치며 왈,

“이 어쩐 일이뇨? 아까 우리 상공이 나와 계시거늘, 이 어쩐 일이뇨?”

하며 지껄이느니라.

왕공이 아무것도 모르고 침실(寢室)로 들어가니, 과연 한 왕공이 부인과 말썽을 낭자(狼藉)히 하거늘, 왕공이 대노 대매(大罵) 왈,

“너는 어떤 놀이기에 감히 사부가(士夫家)¹³⁾에 들어와 나의 부인과 말을 수작하는가?”

하고, 노복(奴僕)¹⁴⁾을 호령(號令)하여

“빨리 결박하라.”

하니, 운치 왈,

“너는 어떤 놀이기에 내 얼굴이 되어 내당에 들어와 나의 부인을 겁탈(劫奪)하려 하니, 이런 변고(變故)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하인을 호령하여

“빨리 몰아 내치라.”

하니, 하인 등이 거동(舉動)을 보매, 가위(可謂)¹⁵⁾ 수지오지자웅(可謂 誰知烏之雌雄)¹⁶⁾이라. 어찌할 줄 모르거늘, 운치, 도리어 호령(號令) 왈,

“내 전일(前日)에 들은즉 요물(妖物)이 인형(人形)¹⁷⁾을 오래 쓰지 못한다.”

하고, 왕공을 향하여 물을 뿜고 주사(朱沙)¹⁸⁾를 내어 바르니, 왕공이 변하여 구미호(九尾狐)가 되니, 노복 등이 그제야 칼과 몽치를 들고 달려들어 짓쳐 죽이려 하거늘, 운치가 말려 왈,

“이 일이 큰 변고이니 나라에 고하여 처치할 것일때, 아직 단단히 동여 방중(房中)에 가두고

1) 이번.

2) 진짜와 가짜.

3) 지붕의 용마루가 ‘十’ 자 모양으로 된 집.

4) 왕이 정전(正殿)에 나와 앉음.

5) 탄식하여.

6) 종묘와 사직. 나라를 이르는 말.

7) 왕씨 집안. 여기서는 도승지 왕연희의 집.

8) 왕연희의 처.

9) 집안 사람.

10) 왕연희.

11) 동료 관리. 같이 일하는 관리.

12)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봄.

13) 사대부의 집.

14) 사내종.

15) 가히 이르자면.

16)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시비나 선악 등을 분명하게 가리기 어려움에 비유하는 말. - “시경(詩經)”, ‘소아(小雅)’

17) 사람 허물.

18) 수은으로 만든 붉은색 안료.

잘 지키라.”

하니 노복 등이 청령(聽令)하고, 왕공을 동여가두니라.

왕공이 불의지변(不意之變)¹⁾을 만나매 말을 하고자 한즉 여우의 소리로 나고 정신이 아득하여 다만 눈물만 흘리고 누웠으니 가위(可謂) 짐승의 모양이요, 사람의 속이라.

운치, 생각하되,

‘수삼일(數三日) 속이면 살지 못하리라.’

하고, 차야(此夜) 사경(四更)²⁾에 왕공에게가 보고 이르되,

“네 나와 더불어 원수가 없거늘, 부디 나를 죽여 나라에 요공(要功)³⁾하고자 하매, 내가 먼저 너를 죽여 한(恨)을 씻고자 하되, 내 평생에 살생(殺生)을 아니하기로 너를 사(赦)하나니, 너는 모름지기 다시 이런 행실(行實)을 말라.”

하고, 진언(眞言)을 염(念)하니 도로 왕연희가 된지라. 왕공이 그제야 운치의 요술로 그리한 줄 알고 황겁(惶怯)하여 왈,

“전공(田公)의 높은 재조를 모르고 그릇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무수(無數) 사례하거늘, 운치 다시 당부왈,

“그대를 구하고 가나니 내가 돌아간 후에 집안이 소동(騷動)하리니, 여차여차(如此如此)하라.”

하고 남서부로 가니라.

왕공이 즉시 노복을 불러 왈,

“그 요괴(妖怪)를 자세히 보라.”

하니 노복 등이 방에 가본즉 요괴가 간데없는지라. 모두 놀라 그대로 고하니, 왕공이 양노(佯怒)⁴⁾ 왈,

“여등(汝等)이 지키기를 잘못하여 잃었도다.”

하고 무수히 꾸짖어 물리치니라.

운치가 다시 암자(庵子)에 가본즉 그 화상

(和尚)이 그저 운치의 모양(模樣)이 되었거늘, 운치 그 화상을 향하여 물을 뿜고 진언(眞言)을 염(念)하니, 도로 본상(本像)⁵⁾이 된지라.

운치가 대책(大責)⁶⁾ 왈,

“네가 중생(衆生)이 되어 불도(佛道)를 숭상(崇尚)할 것이어늘, 수절(守節)하는 계집을 유인(誘引)하여 겁측(毀節)하여 자처지경(自處之境)⁷⁾을 미치게 하니, 그 죄가 만사유경(萬死猶輕)⁸⁾이라. 너를 전운치의 얼굴이 되어 죽게 하였더니, 차마 살생(殺生)을 못하여 너를 살려 돌아와 다시 네 본상을 내어주나니, 차후(此後)는 그런 행실을 행(行)치 말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한 곳에 다달아 본즉, 여러 소년이 족자(簇子)를 가지고 다투어 보며 칭찬 왈,

“이 족자 그림이 천하(天下) 명화(名畵)라.”

하거늘, 운치 나아가 보니 곧 미인도(美人圖)라.

그 미인이 아이를 안아 희롱(戲弄)하는 형상(形狀)이로되, 입으로 말하는 듯 눈으로 보는 듯하여 생기(生氣) 유동(流動)⁹⁾하거늘, 운치가 한 계교를 생각하고 웃으며 왈,

“이 그림이 무엇이 명화기에 그대 등이 어찌 과히 기리느뇨?”

그 중 오생(吳生)이라는 자가 답(答)하되,

“그대 눈이 높아 그러하거니와 물정(物情)을 모르는 말을 말라. 이 그림이 말하는 듯 보는 듯하니 어찌 명화가 아니라 하리오.”

운치, 웃고 값을 물은즉 오생이 대답하되,

“은자 오십 냥이니, 그림보다는 오히려 값이 적다.”

하거늘, 운치, 왈,

“내게 한 족자가 있으니 그대 등은 보라.”

하고 소매 안에서 미인도를 내어놓으니, 그 미인이 가장 아름다운데 몸에 녹의홍상(綠衣紅

5) 본색.

6) 크게 꾸짖어

7) 스스로 목숨을 끊을 형편. ‘자처’는 자결

8)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움.

9) 이리저리 흐름.

1) 뜻밖에 당한 변고.

2) 벽 1시부터 3시까지.

3) 자기의 공을 스스로 드러내어 남이 칭찬해주기를 바람.

4) 거짓으로 화를 냄.

裳¹⁾을 입고 머리에 화관(花冠)을 썼으며, 짐짓 천향국색(天香國色)²⁾이요, 절대佳人(絶代佳人)이라.

제인(諸人)이 보고 칭찬 왈,

“이 그림도 생기(生氣) 온전(穩全)³⁾하여 우리 족자와 방불(彷彿)⁴⁾하도다.”

하거늘, 운치, 냉소(冷笑) 왈,

“그대 족자도 좋다 하려니와 생기는 이 족자만 못하니 이 화격(畫格)을 보라.”

하고, 족자를 걸며 가만히 부르되,

“주선랑(酒仙娘)⁵⁾은 어디 있느냐?”

하니 문득 이 미인이 대답하며 동자를 데리고 나오거늘, 운치 왈,

“모든 공자(公子)께 술을 부어드리라.”

선랑이 대답하고 잔(盞)에 술을 부어드리니, 운치 먼저 마시고 차례로 제인(諸人)이 받아 마시매 주미(酒味)⁶⁾ 가장 감열(甘烈)⁷⁾한지라. 제인이 배주(配酒)⁸⁾를 파(罷)한 후에 선랑이 주안(酒案)을 거두어 그림이 되어 들어서니, 제생(諸生)이 대경하여 서로 이르되,

“이 그림은 천상 조화(造化)도 아니요, 몽중(夢中) 희롱(戲弄)도 아니니 만고(萬古)에 희한(稀罕)한 보배라.”

하더니, 오생이 왈,

“내 시험(試驗)하리라.”

하고, 운치에게 청(請)하되,

“우리들이 술이 나쁘니 먹은 것이 양에 차지 아니하니, 원컨대 내가 주선랑을 불러 술을 더 청하여 보라?”

운치, 허락하거늘, 오생이 가만히 주선랑을 불러 왈,

“술이 나쁘니 먹은 것이 양에 차지 아니하니 더 먹기를 청하노라.”

하니 주선랑이 대답하고 술병을 들며 동자는 상(床)을 가지고 의연(依然)⁹⁾히 나와 병(瓶)을 기울여 술을 부어 드리는지라. 오생이 먼저 먹고 제생이 차례(次例)로 일배(一杯)씩 마신 후에 일어나 사례 왈,

“오늘 존공(尊公)¹⁰⁾을 만나 좋은 술을 먹고 신기한 일을 보매 가장 다행하도다.”

운치 왈,

“이 족자 그림이 비록 생기 있으나 쓸데없고, 또 그림의 술을 먹고 무슨 사례 있으리오?”

오생 왈,

“족자를 쓸데없거든 내게 팔고 감이 어떠하뇨?”

운치 왈,

“부디 가질 사람이 있거든 팔고자 하노라.”

오생이 값을 물으니, 운치 왈,

“술병 가진 이는 천상 주선랑이요, 술이 일생(一生) 마르지 아니하니 극진(極盡)한 보배라. 그런 고로 은자 천 냥을 받고자 하노라.”

오생 왈,

“값의 다소(多少)는 불계(不計)하고¹¹⁾ 형은 내 집으로 감이 어떠하뇨?”

운치가 허락하고 한가지로 오생의 집에 가서 족자를 주며 왈,

“내 명일에 올 것이니 값을 차려 두라.”

하고 가더니, 오생이 대취(大醉)하매 족자를 외당(外堂) 벽상(壁上)에 걸고 보니 주선랑이 병을 들고 섰거늘, 오생이 그 고운 태도를 흠모하여 옥수(玉手)를 잡아 무릎 위에 얹히고 사랑함을 이기지 못하여 침석(寢席)에 나아가고자 할 즈음에, 문득 문 열리는 곳에 급히 달려들어오니, 이는 오생의 처(妻) 민씨(閔氏)라.

원래 민씨는 투기(妬忌)의 선봉(先鋒)이요, 샘남¹²⁾의 대장(大將)이매 남의 일을 보아도 칼

1) 연두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자의 고운 옷차림을 이르는 말.
2) 천하에서 제일가는 향기와 빛깔이라는 뜻으로, 모란꽃을 이르는 말. 나라에서 제일가는 미인의 비유.
3)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함.
4) 거의 비슷함.
5) ‘선랑’은 선녀같은 처녀.
6) 술맛.
7) 감격하여 기뻐함.
8) 술을 돌려가며 나누어 마심.

9) 이전과 다름이 없음.
10) 지위가 높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11) 계산하지 않고.
12)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함.

을 들고 내닫는 성벽(性癖)¹⁾이러니, 차야에 오
생의 희롱함을 보고 대노하여 선랑을 치려 할
새, 선랑이 벌써 그림 화상(畵像)이 되었는지
라.

민씨 더욱 분노(憤怒)하여 족자를 뒤흔²⁾ 찢
어버리니, 오생이 대경 왈,

“남의 족자를 사려 하고 은자 천 냥을 상약
(相約)하였거늘 임자가 오면 어찌하리오.”

민씨 왈,

“임자 오거든 내 마땅히 질욕(叱辱)³⁾하리라.”

하며 서로 다툼을 마지아니할새, 마침 운치
오거늘, 오생이 맞아 그 사연을 이르니,

운치가 듣고 민씨를 속이고저 하여 민씨를
금사망(金絲網)⁴⁾에 씌우니, 민씨 속은 사람이
나 몸은 대망(大蟒)⁵⁾이라. 말을 하려 하나 말
이 나지 아니하고 일어나고자 하되 운신(運
身)⁶⁾할 길이 없는지라.

운치가 오생더러 왈,

“그대를 위하여 족자를 두고 갔더니 이제 보
배를 없이 하였으며 그대를 만남이 불행하거니
와, 그대 집에 큰 변이 날 것이니 조심하라.”

오생이 왈,

“무슨 변괴(變怪)뇨?”

운치 왈,

“그대 집에 천년 묵은 짐승이 매양(每樣) 그
대 부인이 되어 작변(作變)하리라.”

오생 왈,

“무슨 일로 요열(妖孽)이 작변하리오.”

운치 왈,

“그대 부인이 내 족자를 찢었으며 요열이 되
어 작난(作亂)하리니, 그대는 방문을 열고 보
라.”

오생이 믿지 아니하여 방문을 열고 본즉, 과
연 민씨는 간데없고 길이 세 발은 되는 대망이

엎드렸거늘, 오생이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나
와 운치에게 왈,

“과연 대망이 있으니 죽이고자 하노라.”

운치가 말려 왈,

“그 요괴(妖怪)는 천년 묵은 정령(精靈)⁷⁾이
니 만일 죽이면 대화(大禍)⁸⁾가 일어날 것이니,
내 부적(符籙) 한 장을 대망의 허리에 매어두
면 금야(今夜)에 자연히 스러지리라.”

하고 부적을 내어 대망의 허리에 매고 당부
하여,

“문을 열어보지 말라.”

하고, 돌아가 날 새기를 기다려 오생의 집에
가서 민씨를 보고 꾸짖어 왈,

“내가 가군(家君)을 업수이 여겨 포악(暴惡)
을 일삼으며 투기를 숭상(崇尚)하여 심지어 남
의 족자를 찢고 나를 욕하매, 그 죄로 금사망을
씩워 돌구멍에 넣어 고초를 겪게 하려 하나니,
이제 허물을 고칠진대 금사망을 벗기리라.”

하니 민씨 고개를 쫓거늘, 운치가 진언을 엮
하니 금사망이 절로 벗겨지매, 민씨 황연(遑
然)⁹⁾히 허둥거리며 일어나 백배사례(百拜謝禮)
하더라.

운치, 집으로 돌아오다가 전일(前日) 동학(同
學)¹⁰⁾하던 양봉안이란 사람을 찾아가 본즉 병들
어 누웠거늘, 운치 놀라 병 증세(症勢)를 자세
히 묻거늘, 양생(梁生) 왈,

“심복(心腹)이 아프고 식음(食飲)을 전폐(全
廢)한 지 오래매 다시 회생(回生)치 못할까 하
노라.”

운치 진맥(診脈)하고 왈,

“이 병이 사람을 생각하여 난 병이니 누구를
말미암아 이 병이 났느냐?”

양생 왈,

“과연 그러하도다. 다름이 아니라 남문(南門)
안 해현동에서 사는 정씨(鄭氏)란 여자는 경국

1) 몸에 밴 습관.

2) 떼어.

3) 꾸짖음.

4) 금빛 나는 실로 엮어서 만든 그물.

5) 이무기. 여러 해 묵은 큰 구렁이.

6) 몸을 움직임.

7) 육체를 떠난 죽은 사람의 혼백.

8) 큰 재앙.

9) 환하게 깨닫는 모양.

10) 동문수학(同門修學). 같이 학문을 배움

지색(傾國之色)이요, 일찍 과거(寡居)한지라.
우리 삼촌 집과 격린(隔隣)¹⁾하였으매 담 사이
로 우연히 본 후로 사모하는 마음이 일일 간절
하여 병세 여차(如此)하니, 필경(畢竟) 세상을
불구(不久)²⁾할까 하노라.”

운치 왈,

“말 잘하는 매파(媒婆)³⁾를 보내어 통혼(通
婚)⁴⁾하여 보라.”

양생 왈,

“그 여자의 절행(節行)이 특이(特異)하매 성
사(成事)치 못하고 도로 욕(辱)을 취(取)할까
하노라.”

운치 왈,

“그러하면 내가 형(兄)을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면 어떠하뇨?”

양생 왈,

“형이 아무리 재조가 능하나 그 여자를 데려
오지 못하리니 부질없이 생의(生意)⁵⁾치 말라.”

운치 왈,

“형은 염려 말라.”

하며 구름을 타고 가니라.

차설(且說), 정씨는 일찍 과거(寡居)하여 주
야(晝夜) 슬퍼하며 죽고자 하되, 위로 노모(老
母)가 계시고 다른 동기(同氣) 없는 고로, 모녀
가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는지라. 일일은 정씨가
심회(心懷)를 정(定)치 못하여 방중(房中)에서
배회하더니, 문득 구름 속에 일위(一位) 선관
(仙官)이 홍포옥대(紅袍玉帶)에 머리에 금관
(金冠)을 쓰고 손에 옥홀(玉笏)⁶⁾을 쥐고 청음
(淸音) 낭성(朗聲)⁷⁾으로 불러 왈,

“주인 정씨는 나와 옥제(玉帝)의 교명(敎
命)⁸⁾을 들으라.”

- 1) 서로 벽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이웃함.
- 2) 세상이 오래지 않을까, 곧 세상을 버린다는 뜻.
- 3) 혼인을 중매하는 늙은 여자.
- 4) 혼인할 뜻을 전함.
- 5)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 6) 옥으로 만든 홀. 홀은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 손
에 쥐던 물건.
- 7) 맑고 낭랑한 목소리.

하거늘, 정씨가 차언(此言)⁹⁾을 듣고 모친께
고하니, 그 모씨(母氏)가 놀라며 괴이히 여겨
급히 청상(廳上)에 향안(香案)¹⁰⁾을 배설(排設)
하고 정씨는 뜰에 내려 엎드리니,

운치가 이르되,

“문선랑(文仙娘)아, 인간 재미 어떠하뇨? 이
제 천상요지반도연(天上瑤池蟠桃宴)¹¹⁾에 참여¹²⁾
하라.”

하거늘, 정씨가 옥책(玉嘖)¹³⁾을 듣고 대경 왈,
“첩(妾)은 인간 더러운 몸이요, 또한 죄인이
라. 어찌 천상에 올라가리오.”

운치 왈,

“문선랑은 인간 더러운 물을 먹어 천상 일을
잊었도다.”

하고 호로파(葫蘆玻)¹⁴⁾에 향온(香醞)¹⁵⁾을 가
득 부어 동자로 하여금 권하거늘, 정씨가 받아
마신즉 정신이 아득하여 인사(人事)를 모르는
지라.

운치가 인하여 그 후 정씨를 구름에 싸 공중
에 오르니, 그 모씨(母氏) 공중을 향하여 무수
(無數) 하례(賀禮)하더라.

이때에 강림도령(降臨道令)¹⁶⁾이 모든 거지를
모아 저잣거리로 다니며 양식(糧食)을 빌더니,
홀연(忽然) 향취(香臭)가 웅비(擁鼻)¹⁷⁾하며 채
운(彩雲)이 동남(東南)으로 가거늘, 강림도령이
치밀어보고¹⁸⁾ 손을 들어 한번 구름을 가리키니,
운문(雲門)이 절로 열리며 선관과 고운 계집이
땅에 떨어지니, 이는 전운치라.

8) 임금이 내리는 문서. 여기서는 옥황상제의 명령.

9) 이 말.

10) 제사 때 향로나 향합을 올려놓는 상.

11) 신선이 살고 있다는 천상 연못 요지(瑤池)에서 삼천
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리는 복숭아인 반도(蟠桃)를
차려놓고 벌인 잔치

12)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

13) 옥황상제의 소리.

14) ‘호로’는 선약(仙藥)을 넣고 다니는 호리병박.

15) 신선들이 먹는 약의 한 가지.

16) 무속에서 수명이 다한 사람을 잡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염라대왕의 사자.

17) 코를 헐쌈.

18) 쳐다보고

운치, 정씨를 데려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가더니, 문득 검은 기운이 공중에 오르며 법술(法術)¹⁾이 절로 풀려 땅에 떨어지매, 운치가 대경하여 좌우를 살펴본즉 아무것도 없거늘, 괴이히 여겨 다시 술법(術法)을 행하려 할새, 문득 한 가지 아이가 나와 대매(大罵) 왈,

“필부(匹夫)²⁾ 전운치는 들으라. 네 요술을 배워 하늘을 속이고 열부(烈婦)³⁾를 훼손하고자 하니 어찌 명천(明天)이 무심하시리오? 이러므로 나로 하여금 너 같은 놈을 죽이라 하심이니 나를 원(怨)치 말라.”

하거늘, 운치, 대노하여 찢던 칼을 빼어 저히 고자⁴⁾ 한즉, 그 칼이 화(化)하여 백호(白虎)가 되어 도로 운치를 해(害)하려 하니, 운치 의심하여 피하고자 하다가, 문득 발이 땅에 붙고 움직이지 못하매 급히 변신(變身)코저 하나 법술이 행치 못하는지라.

운치, 대경하여 살펴본즉, 그 아이 의상이 남루(襤褸)⁵⁾하나 도술이 높은 줄 알고 몸을 굽혀 빌어 왈,

“소생(小生)이 눈이 있으나 망울이 없어 선생을 몰라보오니 그 죄 만사무석(萬死無惜)이오나 고당(高堂)⁶⁾에 노모가 계시고 집이 빈한하여 능히 봉양할 수 없어 부득이 임금을 속임이요, 두 번째는 목숨을 도모(圖謀)함이요, 이제 정씨 절행을 해하려 함은 병든 벼를 살리고자 하옵이니, 원컨대 선생은 죄를 사(赦)하시고 선도(仙道)⁷⁾를 가르치소서.”

강림도령 왈,

“그대가 이르지 아니하여도 나는 벌써 알았거니와,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그대 같은 요술이 무단(無斷)⁸⁾히 작변(作變)하매 그대를 죽일 것이로되, 그대 노모 정상(情狀)을 생각하여 아직

살리나니, 이제 빨리 정씨를 데려다가 제 집에 두고, 양가(梁哥)는 좋은 계교로 살려내되, 정씨를 대신할 사람이 있으니,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혈혈무의(子子無依)⁹⁾하여 극히 빈한하나 그 마음이 어질고 성이 정씨요, 나이 또한 삼팔(三八)이니, 그대 만일 내 말을 어기면 몸에 대화(大禍)가 미치리라.”

운치 사례 왈,

“선생의 고성대명(高姓大名)¹⁰⁾을 알고자 하나이다.”

기인(其人) 왈,

“나는 강림도령이니, 세상을 희롱하고자 하여 두루 다니노라.”

하고, 요술 행하는 법을 도로 풀어 놓아주니, 운치가 즉시 정씨를 데리고 정씨 집에 가서 공중에서 그 모친을 불러 외쳐 왈,

“아까 옥경(玉京)¹¹⁾에 올라간즉 상제(上帝)이르시되, ‘문선량이 아직 죄가 진(盡)하지 못하였으매 도로 인간에 보내어 고행(苦行)을 더 지낸 후 데려오라.’ 하시기로 도로 데려왔으니 부디 선심(善心)을 닦게 하라.”

하며, 향약(香藥)¹²⁾을 내어 정씨 입에 드리우니, 이윽고 정씨 깨어 정신을 차리더라.

재설(再說)¹³⁾, 운치가 다시 강림도령께 가서 그 여자의 거처를 물으니, 강림도령이 환형단(換形丹)¹⁴⁾을 주며 그 집을 가르치거늘, 운치 하직하고 그 집을 찾아가니, 일간모옥(一間茅屋)¹⁵⁾이 퇴락(頽落)¹⁶⁾한 곳에 한 여자가 시름을 띠어 홀로 앉았거늘, 운치가 나아가 달래며 왈,
“낭자의 고단(孤單)¹⁷⁾함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낭자의 춘광(春光)¹⁸⁾이 삼칠(三七)이 지나도

1) 방사(方士)의 술법(術法).

2) 신분이 낮은 사내.

3) 열녀.

4) 위협하고자.

5) 옷 따위가 낡고 해져서 너절함.

6) 부모님이 계신 방

7) 신선이 되기 위해 닦는 도.

8) 미리 승낙을 얻지 않음.

9) 홀몸으로 의지할 곳이 없음.

10) 남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

11)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하늘 위의 가상공간.

12) 향기로운 약. 좋은 약.

13) 한 이야기를 다시 함.

14) 모습을 바꾸게 하는 약.

15) 한 칸의 작은 초가집.

16) 무너지고 떨어짐.

17) 단출하고 외로움.

룩 출가(出嫁)치 못하여 외로운 경상(景狀)¹⁾이
가궁(可矜)²⁾한지라. 내 낭자를 위하여 중매(仲
媒)되고자 하노라.”

낭자가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거늘, 운치가 인
하여 그 후 환형단을 먹이고 물을 뿜으며 진언
(眞言)을 염(念)하니, 의심 없는 정가녀의 얼굴
이 된지라.

운치가 정씨더러 양생의 병든 곡절(曲折)과
정녀를 데려오던 사연(事緣)을 이르며 여차여
차하라 하고 보자(褌子)³⁾를 씌워 구름을 타고
양생의 집에 가, 그 여자를 외당(外堂)에 두고
내실(內室)에 들어가 양생을 보고 왈,

“과연 정녀의 절행이 높으매 감히 말을 발뵈
지⁴⁾ 못하고 그저 왔노라.”

양생이 추연(惘然)⁵⁾ 탄(歎) 왈,

“형의 재조로도 성사(成事)치 못하니 어찌 다
시 생의(生意)나 하리오.”

하거늘, 운치가 만단개유(萬端改諭)⁶⁾하며 무
수히 조롱하다가 왈,

“내 이번에 정녀는 못 데려왔거니와, 정녀보
다 십 배나 더 고운 미인을 얻어왔노라.”

양생 왈,

“내 미인을 많이 보았으나 정녀 같은 인물은
없으니 형은 모름지기 농담을 말지어다.”

운치 왈,

“내 어찌 병인(病人)과 희롱하리오. 이제 외
당에 두고 왔으니 이는 경성지색(傾城之色)⁷⁾이
라. 나가보면 알리라.”

하니, 양생이 반신반의(半信半疑)하여 강잉
(強仍)히 일어나 외당에 나가본즉, 과연 일위
(一位) 미인이 소복(素服)을 하였는데 뚜렷한
얼굴은 추천(秋天) 명월(明月)이요, 분명한 눈
찌⁸⁾는 샛별 같아서 천태만염(千態萬艷)⁹⁾이 비

할 데 없는지라.

양생이 한 번 보매 이는 오매사복(寢寐思
服)¹⁰⁾하던 정씨거늘, 양생이 정신이 황홀하여
여취여광(如醉如狂)¹¹⁾하여 반갑고 즐거움을 차
마 못 이기어 이후로 병세가 점점 나아가더라.

각설(却說), 운치가 호주¹²⁾를 보고자 하여 예
단(禮緞)¹³⁾을 갖추어 가지고 호주로 가니라.

이때에 서화담¹⁴⁾이 시동(侍童)에게 분부하여
왈,

“금일, 오시(午時)에 전생(田生)이란 사람이
올 것이니 초당(草堂)을 쇄소(刷掃)하라.”

하더니, 차시 운치가 산문(山門)¹⁵⁾에 다달아
완보(緩步)¹⁶⁾하여 두루 구경한즉, 송죽(松竹)은
창창(蒼蒼), 간수(澗水)¹⁷⁾는 잔잔(潺潺)한데 미
록(麋鹿)¹⁸⁾은 벼를 찾아다니며 백학(白鶴)은 춤
을 희롱하니, 이 짐짓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
非人間)¹⁹⁾이라.

죽림(竹林) 사이 시비(柴扉)²⁰⁾에 나아가 두드
리니, 동자가 나와 문(問) 왈,

“선생이 그 아니 전공(田公)이신가?”

운치 왈,

“동자가 어찌 나를 아는가?”

동자가 왈,

“아침에 선생이 이르신 고로 아나이다.”

운치가 대희하여 동자로 하여금 폐백(幣帛)²¹⁾
을 받들어 드리고 뵈음을 청(請)하니, 화담이
즉시 초당으로 청하여 빈주지례(賓主之禮)²²⁾를

8) 눈길.

9)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곱고 아름다운 모습.

10) 늘 잠 못 이루고 생각하여 잊지 아니함.

11) 취한 듯 미친 듯.

12) 지명인 듯.

13) 예물로 보내는 비단.

14)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인 서경덕.

15) 절 또는 절의 바깥문.

16) 느리게 걸음.

17)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18) 고라니와 사슴.

19) 별천지로 인간 세상이 아닌 듯함.

20) 사립문.

21)윗사람이나 점잖은 사람에게 주는 예물.

22) 손님과 주인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

18) 젊은 사람의 나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 좋지 못한 물골.

2) 불쌍하고 가여움.

3) 보자기

4) 무슨 일을 극히 적은 부분만 잠깐 드러내 보임.

5) 처량하고 슬픔.

6) 여러 가지로 타이름.

7) 경국지색.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의 미인.

마치고 말씀할새, 운치 왈,

“소생(小生)이 선생의 높은 이름을 우레같이 듣잡고 불원천리(不遠千里)¹⁾하여 왔사오니 선생의 가르치심을 바라나이다.”

화답이 손사(遜謝)²⁾ 왈,

“전공이 나를 맥받으러³⁾ 왔도다. 내 무슨 도학(道學)이 있기에 이같이 과찬(過讚)⁴⁾하느뇨? 내 들으니 그대 법술(法術)이 높아 모를 일이 없다 하매, 한번 보기를 원하더니 이제 만나매 평생 만행(萬幸)⁵⁾ 다행이로다.”

운치, 일어나 칭사(稱謝)⁶⁾하고 종일 한담(閑談)⁷⁾하더니, 화답이 시비(侍婢)를 명하여 주찬(酒饌)을 재촉하고, 또 칼을 빼어 벽상(壁上)에 꽂으니, 신선(神仙)의 영출주⁸⁾가 주준(酒樽)⁹⁾에 흘러 잠깐 사이에 한 항¹⁰⁾이 차거늘,

즉시 칼을 빼고, 북벽에 걸린 족자(簇子) 그림에 빛난 채각(彩閣)¹¹⁾이 뚜렷한데, 사창(紗窓)을 열고 본즉 채의(彩衣) 입은 선녀(仙女)가 주반(酒盤)을 갖추어 들고 나와 운치 앞에 놓고 잔(盞)을 받들어 술을 권하거늘, 운치 받아먹은즉 극히 향기로운지라. 화답께 칭사 왈,

“소생이仙境(仙境)에 이르러 경장옥액(瓊漿玉液)¹²⁾과 진수미찬(珍羞美饌)¹³⁾을 맛보오니 지극(至極) 감사하여이다.”

화답이 소 왈,

“그대 어찌 박주(薄酒)¹⁴⁾ 산채(山菜)¹⁵⁾를 일컫느뇨?”

하며 서로 수작(酬酌)할새, 문득 일위(一位) 선생이 갈건야복(葛巾野服)으로 들어와 가로되, “좌객(坐客)¹⁶⁾은 뉘시뇨?”

화답 왈,

“남서부에 있는 전공이니라.”

하고 운치를 향하여 왈,

“이는 나의 아우 용담이어나와, 그대와 일면 지분(一面之分)¹⁷⁾이 없기로 대객지도(對客之道)¹⁸⁾를 잃었으니, 그대는 용서하라.”

운치가 눈을 들어 용담을 보니 미목(眉目)¹⁹⁾이 청수(淸秀)²⁰⁾하고 골격(骨格)이 현앙(軒昂)²¹⁾하여 위풍(威風)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지라.

이윽고 용담이 운치에게 예(禮)하여 왈,

“선생의 높은 술법(術法)을 들은 지 오래되 금일에야 서로 만남이 천만 번 늦도다. 그러하나 원컨대 선생의 도술(道術)을 한번 구경하고자 하노라.”

운치 왈,

“용렬(庸劣)²²⁾한 사람이 어찌 도술이 있으리오.”

용담이 재삼(再三) 간청(懇請)하니, 운치 한번 시험하고자 하여 즉시 진언(眞言)을 염(念)하니, 용담이 쓴 관(冠)이 변하여 뿔이 세 발이나 되는 쇠머리 되어 석상(席上)²³⁾에 떨어져 눈을 실룩이고 입을 벌리니, 용담이 자기 쓴 관을 쇠머리 만듭을 보고 노(怒)하여 즉시 진언을 염한즉, 운치가 썼던 갓이 변하여 돼지의 머리 되어 암상(巖上)에 내려져 어금니를 드러내고 귀를 떨며 기는지라.

운치가 생각하되,

‘차인(此人)의 재조가 비상하니 가히 겨루어 보리라.’

1) 천 리 길도 멀다고 여기지 않음.

2) 겸손하게 사양함.

3) 이어받음.

4) 지나치게 칭찬함.

5) 만 번.

6) 칭찬하는 말.

7) 한가하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8) 신선이 마시는 술의 일종.

9) 술항아리.

10) 항아리.

11) 화려하게 채색한 누각.

12) 신선이 마신다는 빗갈과 맛이 좋은 술.

13) 진수성찬(珍羞盛饌).

14) 좋지 못한 술. 손님에게 대접하는 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15) 산나물. 변변치 않은 안주를 뜻함.

16) 자리에 앉은 손님.

17) 한 번 만나본 정도의 친분.

18) 손님을 대하는 도리

19) 눈썹과 눈.

20) 얼굴이 깨끗하고 준수함.

21)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22)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함.

23)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하고 저두(猪頭)를 향하여 진언을 염하니, 돼지의 머리 변하여 세 가래 장창(長槍)이 되었거늘, 용담이 또한 우두(牛頭)를 향하여 진언을 염하니 쇠머리 변하여 큰 칼이 되어 장창과 공중(空中)에 올라 어우러져 싸우니, 창검(槍劍)이 일광(日光)에 바애더라¹⁾.

용담이 또 부채를 던지며 진언을 염하니 칼과 부채가 화하여 적룡(赤龍)과 청룡(靑龍)이 되고, 운치가 쥐었던 선추(扇錘)²⁾를 던진즉 창과 선추가 화하여 백룡(白龍) 흑룡(黑龍)이 되어 네 용이 어우러져 싸우매, 운무(雲霧)가 자욱하고 벽력(霹靂)³⁾이 진동하여 불분승부(不分勝負)⁴⁾러니, 청룡 적룡이 점점 시진(漸盡)⁵⁾하거늘, 화담이 해아리되,

‘두 사람이 재조를 겨루다가는 필경(畢竟) 좋지 아니하리라.’

하고, 연적(硯滴)을 치뜨리니⁶⁾, 문득 그것이 모두 땅에 떨어져 화하여 도로 본상(本像)이 되는지라.

운치가 먼저 갓을 집어쓰고 선추를 거둔 후에 말씀을 화(和)히⁷⁾ 하되, 용담은 즐겨 선자(扇子)⁸⁾와 관을 거두지 아니하거늘,

운치 하직 왈,

“오늘 외람(猥濫)되이 재조를 겨뤄 선생의 높은 도술을 욕되게 하오니 그 죄 가장 크오매 후일에 사죄하리이다.”

하고 돌아가거늘, 화담이 운치를 보내고 용담을 꾸짖어 왈,

“너는 청룡 적룡을 내고 운치는 백룡 흑룡을 내니, 청(靑)은 목(木)이며 적(赤)은 화(火)요 백(白)은 금(金)이며 흑(黑)은 수(水)니, 오행(五行)의 금극목(金克木) 수극화(水克火)라. 네 어찌 운치를 이기며 하물며 내 집에 온 손[客]

을 부질없이 겨루어 해(害)하고자 하느냐?”

용담이 사죄하나, 마음에 가장 운치를 노(怒)하여 해(害)할 뜻이 있더라.

그 후 삼 일 만에 운치 화담을 찾아보오니, 화담 왈,

“내 그대에게 청할 일이 있으니 즐겨 좇을쏘냐?”

운치 왈,

“무슨 일이니이꼬?”

화담 왈,

“남해(南海) 중에 큰 산(山)이 있으니 명(名)왈 화산(華山)이요, 그 산중에 도인(道人)이 있되 도호(道號)는 운수 선생이라. 내 자소(自少)⁹⁾로 수학(受學)하더니, 그 선생이 여러 번 글월을 부쳤으되 지금껏 회사(回謝)¹⁰⁾을 표(表)함치 못하였나니, 이제 그대를 만났으매 그대가히 다녀올쏘냐?”

운치 흔연(欣然)¹¹⁾히 허락하거늘, 화담 왈,

“내 생각건대 화산은 해중(海中)이니 쉬이 다녀오지 못할까 하노라.”

운치 왈,

“소생이 비록 무재(無才)하오나 순식간에 다녀오리이다.”

화담이 종시(終是) 믿지 아니하거늘, 운치 내염(內念)에 화담이 업수이 여기는가 하여 왈,

“생이 만일 순식간에 다녀오지 못하거든 이에서 죽어도 다시 산문을 나지 아니하리이다.”

화담 왈,

“진실로 그러할진대 가려니와, 행여 실수 있을까 하노라.”

하고, 즉시 글월을 닦아주니¹²⁾, 운치 받아가지고 변신하여 해동청(海東靑) 보라매¹³⁾ 되어 공중에 올라 해중을 향하여 가며 바라보니, 난데없는 그물이 앞을 가리웠거늘, 운치가 넘어가려

1) 빛나더라.

2) 부채 고리에 매다는 장식품.

3) 벽력.

4) 승부를 가리지 못함.

5) 기운이 빠져 없어짐.

6) 아래에서 위를 향해 던져올리니.

7) 온화하게

8) 부채.

9) 어렸을 때.

10) 사례하는 뜻.

11)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음.

12) 글월 지어 다듬음.

13) 사냥에 쓰는 매의 일종.

한즉 그물이 오르는 대로 높아져 앞을 가리우며, 운치가 솟아올라 아무리 그물을 넘으려 하되 그물이 점점 따라 높아져 하늘에 닿았고, 아래 버리¹⁾는 물속에 잠겼는지라.

또 좌우편(左右便)으로 높이 떠 가려 하나 그물이 천변(天邊)에 닿았으며 화산을 갈 수 없어 십여 일을 죽기로 그음하여 애를 쓰다가 할 일 없어 돌아와 화담을 보고 해중(海中)에서 신고(辛苦)²⁾하던 사연(事緣)을 고하니, 화담 왈,

“그대 큰 말 하고³⁾ 가더니 다녀오지 못하였으매, 이제 불출산문(不出山門) 함이 어떠하뇨?”

운치 무안(無顏)⁴⁾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운치 일이 급하매 변신하여 보라매 되어 날려 한즉, 화담이 또한 청사자(靑獅子)가 되어 운치를 물어 박지르고⁵⁾ 쓰러뜨리고 대매(大罵) 왈,

“너 같은 요술이 기군망상(欺君罔上)⁶⁾하고 작난(作亂)이 무상(無狀)하니⁷⁾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운치, 애걸(哀乞)⁸⁾ 왈,

“선생의 도고(道高)하심⁹⁾을 모르고 존위(尊威)¹⁰⁾를 범(犯)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¹¹⁾이오나, 소생에게 노모(老母)가 있사오니 원(願) 선생은 잔명(殘命)을 빌리소서.”

화담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무상한 일 행(行)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기세(棄世)¹²⁾ 후에 나와 영주산(瀛州山)

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운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奉行)¹³⁾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그 후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歲月)이 여류(如流)하여, 운치 모부인(母夫人)이 졸(卒)하니, 운치 예(禮)를 갖추어 선산(先山)에 안장(安葬)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일일은 화담이 왔거늘, 운치가 황망(慌忙)히 나와 맞아 예필(禮畢)¹⁴⁾ 좌정(坐定) 후에 화담 왈,

“그대와 상약(相約)한 일이 있으매 그대 재상(在喪)¹⁵⁾함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석갑(石匣)¹⁶⁾에 가두고 그 굴혈(掘穴)을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운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일국(一國)의 만행(萬幸)일까 하나이다.”

화담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行裝)을 수습(收拾)하라.”

하거늘, 운치 대희하여 가산(家産)을 홀어 노복(奴僕)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결(永訣)¹⁷⁾하나니, 여등(汝等)은 무恙(無恙)¹⁸⁾히 있어 나의 조선(祖先) 향화(香火)를 받들라.”

하고 선영(先塋)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셔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후사(後事)는 알지 못하니라.

丁未(정미) 仲春(중춘) 由谷(유곡) 新刊(신간)¹⁹⁾

1)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놓은 줄.

2) 고생.

3) 큰소리치고.

4) 수줍거나 창피하여 볼 낮이 없음.

5) 힘껏 차서

6) 임금을 속임.

7)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여 버릇이 없으니.

8) 애처롭게 하소연하여 빌.

9) 도술의 경지가 높음.

10) 높은 위엄.

11)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죽어 마땅함.

12) 세상을 버린다는 뜻으로, 웃어른이 돌아가심.

13) 웃어른이 시키는 대로 좇아 행함.

14) 예를 마침.

15) 부모 상(喪) 중에 있음

16) 돌상자.

17)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영원히 헤어짐.

18)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19) 정미년 음력 월에 유곡에서 새로 간행하다. 정미년은 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곡’은 현재 서울의 중구 을지로 가 일대이다.

전운치전

화설. 고려 말의 남서부 싸히 일위 명식 이스니, 성은 던이오 명은 숙이오 별호는 운화선싱이라. 디디 공후 즈손으로 숙의게 이르러는 청운의 뜻이 업서 몸을 산님의 숨어 글들 숭상하며 혹 벗을 모화 산천과 풍월을 문답하여 세월을 허비하니, 시인이 이르기를 산중 처식라 하더라.

부인 최시는 잠영거족이오 노한정정하여 식덕이 겸비하니, 처식 상경상화하여 동주 십여년의 슬히 적막함을 주야 탄식하더니, 일일은 최시 일몽을 어드니 텃상으로 조츠흔 세구름이 나려오며 구름 속으로서 청의동지 벽년화를 쥐고 나와 부인과 직비 왈,

“쇼즈는 영주산의셔 칙약하던 선동이러니, 텃상의 득폐하여 인간의 다투시미 갈 곳을 모로오니 부인은 어엿비 녀기소서.”

하거늘, 부인이 디회하여 다시 못고져 하다가 문득 썩다라 심신이 황홀하여 처스를 청하여 몽스를 이르니 처식 청과의 왈,

“우리 팔직 기박하여 무후홀가 슬허하더니, 이제 부인 몽식 여츠하니, 이는 반다시 하늘이 귀즈를 점지하시미라.”

하며 깃거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티기 이서 십삭이 츄미, 일일은 최운이 집을 두루며 향취진동하거늘, 처식 정당을 쇠쇼하고 썩를 기다리더니, 부인이 혼미 중의 눈을 드러 본즉 전일 꿈의 뵈던 동지 나아들거늘, 부인이 반가운 중의 정신이 아득하더니, 이윽고 일척 옥동을 나흔지라. 처식 디회하여 일변 부인을 구호하며 아회를 삶퍼본즉, 용피 화려하고 기꼴이 장디하니, 처식 디회하여 왈,

“이 아회 꿈의 뵈던 동지니 일흠을 운치라 하고, 즈는 몽중선이라 하고, 별호를 구십지라.”

하여 이쥬히미 비홀 디 업더라.

운치 점점 즈라 칠세의 이르러는 처식 글들 가르치미 총명 영오하여 문일지십하니, 처식 과익하여 십세의 이르렀더니, 슬프다. 흥진비리는

고금상식라. 처식 홀연 득병하여 빅약이 무효히미 부인을 청하여 왈,

“너 헤라리건디 불구의 황천직이 될지라. 아즈의 장성함을 보지 못히미 가장 유한이니 부인은 모로미 슬픔을 억제하여 나의 부탁을 저바리지 말고 운치를 양육하여 영화를 보고 조선 향화를 밋드러 빅세 무양하라.”

하거늘, 부인이 이 말을 듯고 실성 체읍하여 말을 이루지 못하더니, 슈일 후의 처식 기세흔지라. 부인이 벽용 통곡하며 운치 쏘흔 호턴 망극하여 즈로 기절히미, 부인이 망극 중이나 아즈를 넘너하여 지극 위로하며, 운치 비록 나히어리나 집상히미 네의 어기미 업서 쇼중을 극진히 하여 선산의 안장하고 모친을 뵈셔 삼상을 지효로 지닌니, 향당이 탄복하더라.

각설. 던처스의 친봉 윤공이란 스람은 문장이 광박하고 명견만리하느니라. 운치 서책을 가지고 윤공썩 슈학하더니, 일일은 운치 일즉 이러나 서책을 가지고 서당으로 갈식, 혼 뵈를 너머가더니 독님이 무성흔 곳의 혼 계집이 쇼복을 단정히 하고 안져 울거늘, 운치 시이불견하고 지나가서 윤공썩 글들 비온 후의 집으로 도라올제 본즉 그 처직 그져 울거늘, 운치 고히 녀겨 나아가 보니 년광이 삼오이팔은 하고, 용모는 옥 갓하여 아릿싸운 티되 남즈의 마음을 방탕케 하느니라. 운치 나아가 위로하며 문 왈,

“남즈는 어너 곳의 이스며 무슴 일노 아츰부터 일쥬이 되도록 슬피 우느뇨.”

그 녀지 우름을 곳치고 붓그려를 머금고 답왈,

“나는 이 뵈 아릭 잇더니 설운 일이 이셔 우노라.”

하며 즐겨 이르지 아니하거늘, 운치 그 것히 나아가 간절이 무르니, 그 녀지 강잉디 왈

“나는 밍어스의 딸이러니, 오세의 모친을 일코 계뵈 드러온 후로 날를부침기 참쇼하여 죽이고져 하미, 주야 설워하여 즈결코져 하나 참아 못 하고 이갓치 우노라.”

하거늘, 운치 츄언을 드르미 가장 긍측히 녀

겨 왈,

“스람의 스싱이 유명하니 낭즈는 부모유체를 싱각하여 슬기를 도모하라.”

하고 인하여 옥슈를 잡으되, 그 녀직 조금도 녕담함미 업스미 혼연이 교합하여 낭정이 환홉 하다가, 이윽고 서로 써날식 직삼 견권하며 도라가니라.

잇날날 운치 윤공씨 나아갈 식, 그곳의 이른 즉 그 녀직 나와 불너 왈,

“넌 밋서 이곳의 와 공즈를 기다린 지 오릭더 니라.”

하거늘, 운치 반겨 손을 잡고 즐기다가 왈,

“아직 이곳의 이스라.”

하고 서당의 나아오니, 윤공 왈,

“네 오다가 녀식을 범하였스니 글을 비화도 천디조화를 통치 못하리니, 네 이제 도라가면 그 녀즈를 맛날지라. 그 녀즈의 입의 구슬을 먹음어슬 거시니, 그 구슬을 아스다가 날를 보라.”

하거늘, 운치 슈명하고 그곳의 이르러 그 녀즈를 맛나 옥슈를 잡고 독님간으로 드러가 정회를 펼식, 운치 보니 과연 녀즈의 입에 구슬이 잇거늘, 한 번 구경하를 청하즉 즐겨 보지 아니하니, 운치 정식 왈,

“낭즈도 규중처지요 나도 미혼전이미, 피츠 부모씨 고후고 원앙의 뽕을 지어 빅년히로코져 하거늘, 낭즈는 엇지 나의 뜻을 좇지 아니하뇨.”

기네 말을 듯고 정을 못 이기여 입을 서로 다히고 혀를 너혀 구슬을 구을너 운치 입의 너커늘, 운치 바다 입의 너코 오릭도록 주지 아니하니, 녀직 보치다가 못 하여 운치의 입을 버리고 너려 하거늘, 운치 인하여 숨쉴지라. 녀직 츠즈 업스믈 보고 일언을 못 하고 방성되곡하며 드을노 내려가거늘, 운치 무류하여 도라와 윤공씨 조쵸지중을 다 고후니, 윤공 왈,

“네 이미 호정을 먹어스니 턴문디리를 통하며 디살 일흔두 가지 변화를 부리고 쏘 금년 스월의 진스를 흘 거시니, 이후 스는 조심하라.”

하더라.

츠절. 운치 나히 십오세의 이르러는 문장은 니틱빅을 압두하고 필법은 왕희지를 디적하며 호정을 먹은 후로는 구후 삼십륙 변화를 능통하느니라. 이 썩 국가의셔 감시를 뵈식, 운치 장중의 드러가 글을 지어 바친 후의 장원의 오르미, 삼일뉴과를 맛고 집의 도라와 모친씨 뵈온디, 최부인이 일희일비하여 왈,

“너의 부친이 싱시의 과거 보기를 즐겨 아니하더니, 이제 네 영화를 뵈니 엇지 깃부지 아니하리오.”

하더라.

이러구러 광음이 어류하여 영 명년 춘이 되미, 운치 명산디천을 츠즈다니더니, 세금식란 절의 이르러 본즉 천여간 던각이 거미줄의 감초엿고 중싱이 혼났토 업느니라. 마음의 고탈녀겨 성님스의 내려오니 노승 스오인이 나와 맛거늘, 운치 세금스 곡절을 무른디, 노승 왈,

“세금스와 이 절 중이 천여명이 되더니, 스오년 너로 두 절의 직변이 이셔 중싱 등이 능히 부지 못 하여, 혹 니산하며 혹 간 디 업스와 세금스는 다 뵈엿고 이 절의 불과 노승 등 스오명이라.”

하거늘, 운치 왈,

“이는 반다시 요열이 작난하미로다”

하고 집의 도라와 모친씨 세금스 연고를 고후니, 부인 왈,

“츠후는 조심하라”

하거늘, 이후로는 운치 농업을 힘써 모친을 봉양하더니, 일일은 세금스의 가 공부하여 명년 과거보믈 고후니 부인 왈

“전의 드른 즉 그 절의 요열이 만하 스람을 희흔다 하니, 엇지 그 곳의 가려 하뇨.”

운치 디 왈,

“스불범정이오니 엇지 조금만 요물이 침노하리오. 모친은 과렴 마소서.”

하고 즉시 횡장을 슈습하여 세금스로 갈식, 한 곳의 이르러는 충암절벽 상의 일위 노인이 갈건야복으로 청녀장을 집고 한가이 섰거늘, 운

치 나아가 네흔디, 노인 왁,
 “그딴는 엇던 스람이완디 슈고로이 네흔노.”
 운치 디 왁,
 “노인이 이의 계시니 쇼지 엇지 무심히 지너 오리잇고.”
 노인 왁,
 “넌 그딴를 줄 거시 이셔 이곳의셔 기다린 지 오리더니라.”
 하고 스미로서 부용승이란 노와 부작 혼 장을 주며 왁,
 “즈연이 쓸 곳이 이스리라.”
 하고 문득 간디업거늘, 운치 공췌을 향하여 스레하고 노와 부작을 가지고 세금스로 드러가 시동을 명하여 방장을 채쇼하고 성님스 중의게 석반을 시겨 먹고 축을 붉혀 글을 익더니, 삼경은 하여 문득 문을 열고 혼 녀지 드러와 업연이 고향 안거늘, 운치 눈을 드러 본즉 그 녀지 년광이 이철은 혼디, 화려한 용모는 모란이 아춤 이슬를 먹음듯 선연한 턱도는 슈양이 춘풍을 못 이기는 듯함, 가히 장부의 간장을 녹일 지라.
 운치 신히이 황홀하여 왁,
 “낭주는 어디 잇관디 이 심야의 무슨 연고로 왔노.”
 녀지 디 왁,
 “첩은 본디 스족 부녀로 가군을 싸라 장양 턱슈로 가다가, 도적을 만나 가속을 다 죽이고 형장을 일코 첩이 홀로 목숨을 도망하여, 나지면 산중의 숨고 밤이면 히하여 고향을 츠즈가다가 먼니셔 창외 축영을 바라보고 촌가만 녀겨 왔더니, 낭주의 글 익는 쇼리 분명하나 일산이 곤뉘므로 불게 체면하고 드러왔스오니, 원컨디 상공은 잔명을 구하시면 타일의 결초보은하리이다.”
 운치 왁,
 “스람의 화복을 임의로 못 하느니, 낭지 적환을 명하여 이곳의 이르미 쏘흔 다형하거니와, 아지 못게라. 낭주의 귀턱은 어디며 년광은 언

마나 하노.”
 녀지 왁,
 “첩의 집은 경성 남문 밧기오, 나흔 십칠이로 쇼이다.”
 운치 왁,
 “날과 동갑이오 경성이 예셔 상계 삼빅여리니, 녀지 엇지 득달하리오. 실이 실노 넘너하노라.”
 녀지 탄식 왁,
 “상공은 첩의 정상을 불상이 녀겨 하로밤 머물너 가믈 허하쇼셔.”
 운치 왁,
 “실이 집이 빈한하므로 지금까지 취쳐치 못하고 명춘 과거의 천형으로 등과하거든 혼취홀가 바라더니, 금야의 낭주를 맛나미 쏘흔 연분이라. 원컨디 이성지합을 미즈 빅년동낙하미 엇더하노.”
 녀지 청파의 아미를 슈기고 일언불답하니, 붓기리는 턱되 축하의 더욱 절승하더라.
 운치 셔안을 물니치고 왁,
 “실이 우연이 혼 말노 낭지 이렇듯 노하니 도로혀 무류하거니와 낭주는 심각하여 전정을 그르치게 말나.”
 녀지 침음양구의 왁,
 “첩의 일신이 곤박하나 쏘흔 스문일뭇이라. 출하리 죽을지언딩 엇지 욕을 감심하리오마는 상공 말씀을 듯조오니 감스무디라. 후일의 원슈를 감히쥬실진디 존명을 엇지 봉승치 아니하리오.”
 운치 이 말을 드르미 마음이 방탕하여 인하여 친합하고 문 왁,
 “금일이 조흔 날이니 맛당히 합환쥬로 텃디의 밍세하리라.”
 하고 죽병의 술를 잔의 가득 부어 문져 먹고 쏘 부어 권하니, 녀지 감히 거스지 못하여 마시거늘, 운치 쏘 혼 잔을 부어 권하되 녀지 구지 스양하느니라.
 운치 왁,
 “술를 일이비 먹어든 무어시 관계하리오.”

하니 녀직 마지못하여 먹거늘, 운치 다시 혼 잔을 마시고 혼 잔을 부어 또 권하되, 녀직 죽기로 사양하느니라.

운치 정식 왈,

“녀직 군즈를 조즈미 순종하미 올커늘 엇지 이럿듯 무례하뇨.”

녀직 칭의 괴식을 보고 강잉이 바다 마신 후의 정신이 혼도하여 즈리의 것구러져 코를 고을거늘, 운치 그제야 녀즈의 옷을 벗기고 쥬필노 여호의 가슴의 진언을 쓰되 흔적이 업스미 분명 여훤 줄 알고 부용승을 너여 슈족을 동히고 송곳츠로 정벽이를 뿌시며 방츄로 두다리니, 녀직 놀나 썩여 되호 왈,

“상공아. 이 무슨 일이뇨.”

운치 되미 왈,

“이 못쓸 녀호년아. 네 이 절의 작얼하여 성령을 살하하미, 너 너를 죽여 인간 희를 덜너하여 이의 기다린 지 오릭더니라.”

하며 송곳츠로 두루 뿌시니, 그 요괴 건디지 못하여 본상을 너여 금터력이 듯치고 소리 아홉 가진 여회 되어 슬기를 빌거늘, 운치 왈,

“날를 호정 혼나홀 쥬면 너를 살니리라.”

구미회 왈,

“호정은 비 속의 잇거니와 호정도곤 더 나흔 천서 세 권이 이스니 목숨을 살너쥬쇼셔.”

하되, 운치논 본되 서싱이라, 칙 말을 듯고 받겨 왈,

“그 칙이 어디 잇느뇨.”

요괴 왈,

“내 굴의 이스니 날를 글너노흐면 가져오리이다.”

하거늘, 운치 되로하여 송곳츠로 두루 뿌시니, 요괴 왈,

“발 밧 거슬 글너노흐면 상공과 혼가지로 가서 칙을 드리리이다.”

운치 그 말을 올히 녀겨 발를 글너토코 싸라 여호 굴노 가니, 큰 산의 장되흔 바회 잇고 그 아리 굴이 잇느니라. 그 안호로 오리나 드러간 즉 송죽이 창창하고 시늉 잔잔흔 곳의 무슈흔

집이 단청이 찬난하느니라.

운치 여호를 압세우고 드러가더니 칙의 혼시네 나와 마즈며 왈,

“아기시 오늘 산행하라 가시더니 스망이러 오시미 맛 조히 먹으리라.”

하고 다리들거늘, 운치 되로하여 잔 요괴를 날날이 쳐 죽이고 구미호를 송곳츠로 뿌시니, 구미회 건디지 못하여 시너더러 왈,

“네 빨리 가 성적함 속의 잇는 세 권 칙을 가져 오라”

하거늘, 요괴 급히 가져왔느니라. 운치 바다 본 즉 텃세라. 글즈를 아라볼 길 업스미, 구미호더러 글 쫓을 가르치라 하니, 구미회 왈

“손을 글너노흐면 가르치리이다.”

하거늘, 운치 송곳츠로 썩르며 방츄를 드니 구미회 허락하미, 운치 노홀 그르지 아니하고 왈,

“나 잇는 절노 가즈”

하고 구미호를 다려 세금스로 와서 술를 마신 후의 구미호를 안치고 텃서 상권을 비화 일야간의 다 통달하니, 진짓 귀신도 측량치 못할 술법이라. 그제야 운치 여호의 밧 거슬 풀고 등의 부작을 썩혀 텃서 상권의 부치고 일너 왈,

“너를 죽여 후환을 업시코즈 하더니, 도로혀 네 은혜를 넘었기로 슬너 보너나니, 츠후 다시 작변 말나”

하되, 구미회 스레하고 가니라.

이윽고 문득 되풍이 이러나 문이 열니며 청운 속의셔 위여 왈,

“구십직야, 너 부용승은 츠즈가고 부작은 두고 가노라”

하거늘, 운치 급히 나가보니 청운이 하늘노 올라가느니라.

공중을 향하여 스레하고 방으로 드러와더니, 홀연 혼 선비 나귀를 타고 드러와 계하의 나리니, 이는 윤공이라. 운치 황망이 마즈 말슴홀식 윤공 왈,

“이 칙은 선비의게 불가하거늘 네 어이 보느뇨.”

운치 밋쳐 답지 못혀여 윤공이 간 디 업스니,
운치 디경혀여 솟퍼 본즉 턴서 혼 권이 업스미,
가장 의심홀 즘음의 문득 드르니 계집의 곡성
이 갓가오거늘, 운치 나가보니 즈긔 유피 산발
하고 울며 왈,

“모부인이 작일의 평안하시다가 일야간의 상
스 나 계시니 상공은 썰니 가스이다.”

헝거늘, 운치 디경혀여 급히 서책을 슈습홀
식, 경직간의 유피 간 디 업고 쏘 턴서 혼 권이
업는지라. 운치 디로 왈,

“홍흔 요물이 날를 업슈이 녀겨 이갓치 속이
니 너 이제 여호 굴혈의 가 칙을 찾고 요괴를
쇼멸히리라.”

헝고 방추와 송곳슬 가지고 여호 굴노 가니,
산천이 심슈헝고 길이 아득혀여 길을 츅줄 슈
업서 도로 도라와 싱각혀되,

“이 요괴 변화 불측헝미 가히 이곳의 오릭 머
물지 못히리라.”

헝고 서책을 슈습혀여 도라 오니, 디져 상권
은 부작을 부친 연고로 아스가지 못히미러라.

운치 집의 도라와 턴서를 보아 못 홀 술법이
업스미 과업의 뜻이 업서 스스로 싱각혀되,

‘너 벼슬혀여 모친을 봉양혀려 헝면 즈연히
더디리라.’

헝고 이의 혼 계교를 싱각혀여 몸을 혼드러
변혀여 선관이 되어 오운을 타고 반공의 올라
바로 켈니로 드러가 디명전의 거중혀미 서긔
공중의 어터여스니 궁중이 현황혀여 망지쇼조
헝고 도신 등이 상달혀되,

“고금의 드문 괴변이라”

흔디 상이 디경혀스 제신을 모화 의논혀시더
니, 운치 운무 중의 서고 청의동지 위여 왈,

“고려 국왕은 옥제 전교를 드르라.”

헝거늘, 왕이 명혀스 포진과 향안을 비설헝고
나아가 보니 일위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즈를
좌우의 세우고 오운 중의 빠이여 단정이 셋거
늘, 왕이 스비를 맞친 후의 복디흔신디, 운치
왈,

“턴상 요디 보각이 년구되락헝기로 이제 중슈

코즈 햏여 인간 제국의 전지햏여 모든 물건을
다 진빅햏였스나 다만 황금 들보 혼나히 업는
지라. 상제계셔 그딴 나라히 황금이 유족햏물
르시고 이제 전지햏스 칠월 칠일 오시의 상냥
햏리니, 그 날 밋쳐 디령햏되 장이 십척 오촌이
오 광이 삼척 이촌, 만일 그 날 밋지 못햏면 큰
변을 나리오시리라.”

햏고 언파의 선악 쇼릭 은은햏며 오운이 남
녁햏로 햏햏여 가거늘, 왕이 남턴을 햏햏여 스
빅햏시고 전의 오르스 문무를 모화 의논햏실시,
좌위 주 왈,

“팔도의 횡관햏여 금을 거두어 턴명을 밋들미
올홀가 햏느이다.”

상이 올히 녀기스 즉시 팔도의 발관햏여 금
을 모호고 공장을 불너 장광 척슈를 맞초아, 날
밋쳐 밋드러드리니, 상이 삼일 직계햏시고 등디
햏시더니, 이날 진시의 오운이 켈니의 즈욱햏고
햏취 진동햏며 선관이 엄연이 운중의 빠이여
오며 낭편의 청의동지 학을 타고 내려와 요구
쇠로 거리 울너 칙운의 빠 남 디햏로 무지게
썩치고 오운이 각각 동서로 훗터지느니라. 상과
제신이 햏안 압히 나아가 스빅햏고 전상의 오
르스 진하를 바드시니라.

운치 님군을 속이고 황금 들보를 어더스나
동국의논 금이 진햏여스미 금 들보를 밋미하미
가장 슈상햏지라. 문득 혼 계교를 싱각혀여 들
보 머리를 버혀가지고 성중의 드러가 팔너 햏
니, 맞춤 포도 장졸이 보고 의심햏여 문 왈,

“이 금이 어디셔 나며 갑슨 언마나 햏뇨.”

운치 왈,

“이 금은 출처 잇거니와 갑슨 오빅금이로라.”

포괴 왈,

“그딴 집을 이르면 너 명일의 돈을 가지고 가
리라.”

햏니 운치 왈,

“너 집은 송악산 남셔부요, 성명은 턴운치로
라.”

흔디 포괴 상약햏 후의 관가의 이 스연을 고
흔디, 턴쉬 왈,

“이 반다시 연괴 이시니 이를 즉시 안 후의 이놈을 칭금히리라.”

하고 우선 은즈 오백냥을 주어 스오라 혼디, 포괴 즉시 남셔부의 가 운치를 보고 은즈를 주니 운치 금을 주고 은즈를 밧거늘, 포괴 바다가지고 도라와 티슈씩 고훈디, 티슈 보고 티경왈,

“이 금은 들보 머리 분명히니 위선 잡아다가 진위를 아라 장계히리라.”

하고, 장교 십여명과 포괴 등을 보너엿더니, 장교 등이 남셔부의 가서 운치를 잡아너려 홀식, 운치 음식을 너여 판디하고 왈,

“너의 슈고로이 왓스나 나는 가지 아니히리니, 너의 티슈의 힘으로는 날를 잡지 못홀 거시오. 왕명이 나리면 잡혀가리라.”

하고 조금도 요동치 아니히거늘, 장교 등이 감히 하슈치 못하여 도라가 티슈씩 이 스연을 고훈디, 티슈 티경하여 토병 오백을 밧하여 운치의 집을 에워싸고 잡으라 하며 일변 이 스연으로 장계히니, 상이 티로흐스 빅관을 모화 의논히시고 금부로 나리히라 하시니라.

잇썩 운치 은즈를 어더 음식을 준비하여 모친씩 드리더니, 홀연 정성의셔 나명이 나리를 듯고 정히 계교를 심각홀식, 츠시 금부도스와 포괴 등이 토병을 거느려 운치의 동정을 숲피 잡으라 호느니라. 운치 먹쇼용을 너노코 모친더러 왈,

“밧비 이 병의 드쇼셔.”

하니 부인이 병의 들며 운치 쏘흔 들거늘, 도스와 포괴 등이 고히 녀겨 다라드러 병 부리를 단단히 막아 들고 주야로 달녀올식 병 속의셔 위여 왈,

“너 난을 피하여 병 속의 드럿거늘 뉘라서 병 부리를 막아 숨이 막혀 죽기스니 막은 거슬 썩히라.”

히거늘, 도식 청이불문하고 급히 달녀 탑전의 이르러 운치를 잡던 슈말를 아뢴디, 상 왈,

“운치 비록 요술이 이스나 엇지 병 속의 들니오.”

히시니, 운치 병 속의셔 소리 질너 왈,
“갑갑호오니 병막의를 썩혀주소셔.”

히거늘, 상이 그제야 운치 병의 든 줄 아르고 도신더러 처치호를 무르신디, 제신이 주 왈,
“이놈의 요술이 불측호오니 쇼로이 하다가는 일홀가 호느이다.”

상이 던지호스 가마의 기름을 쓰리고 쇼용병을 너호니 병 속의셔 위여 왈,

“신의 집이 빈한호와 주야 썰고 지너옵더니 금일은 더운 디 드러 녹이오니 국은이 망극히여이다.”

히거늘, 아춤부터 늦도록 썩혀 기름이 다 조랐느니라. 상이 병을 썩치라 히시니, 그 병이 여러 조각의 나되 아모 것도 업고 병조각마다 다름질하여 어전의 나아오며 왈,

“소신 던운치 여괴 잇느이다.”

히거늘, 상이 티로흐스,

“그 죠각을 마하 기름의 쓸이라.”

히시고, 던운치 집을 파가져턱히라 히시며 운치를 잡기를 호실식, 티신이 주 왈,

“이 요적을 잡을 슈 업스오니 후환을 덜고져 호실진디 스문의 방을 부쳐 ‘운치 즈현하면 죄를 스하고 관작을 주리라’ 호스, 만일 운치 즈현히거든 중임을 밧겨 다시 그림이 잇거든 죽이미 맛당홀가 호느이다.”

상이 그 말을 올히 녀기스 즉시 스문의 방을 부치되,

‘던운치 비록 국가의 득죄호엿스나 제 지조를 앗겨 특별이 죄를 스하고 벼슬을 주느니 밧비 즈현히라.’ 히니라.

츠셜. 운치 모친을 모시고 산중의 드러 은즈를 쓰며 구름을 타고 스방으로 임의 왕너히더니, 일일은 호 곳의 이른즉 빅발노인이 슬피 울거늘, 운치 나아가 연고를 무른디, 노인 왈,

“너 칠십의 혼낫 츠식 잇더니 익미히 살인죄 슈 되엿기로 설위호노라.”

운치 그 익미호를 즉시 무른디, 노인 왈,

“우리 동니의 왕가란 스람이 이스되 그 계집의 인물이 고으미 너 츠식이 스통하여 왕너히

더니, 그 계집이 음난하여 쏘 조가와 통간하다가 왕가의게 들키어 두 놈이 빙화 서로 구타홀식, 넉 죽식이 맞춤 갖다가 빙흠을 말녀 조가를 보녀엿더니, 왕개 즉시 죽으미 그 스촌이 관가의 고향여 살인을 이루니, 조가는 양문기의 문객이라 결련이 이셔 버셔나고, 내 죽식이 살인함으로 문서를 만드려 죄쉬되엿스미 이갓치 설워노라.”

운치 왈,

“진실노 그러홀진디 넉 맛당이 무스하게 하리라.”

하고 노인을 니별흔 후의 몸을 혼드려 일진 청풍이 되어 양문기의 집의 가니, 츠시 양문기 외당의서 거울를 디하여 얼굴를 보거늘, 운치 쏘 변하여 왕개 되어 겹히 섯스니 양문기 고히녀겨 거울를 거두고 도라본즉 아모 것도 업는 지라. 싱각되,

‘빅쥬의 요열이 날를 회롱하니 고히호도다.’

하고 다시 거울를 보니, 앓가 뵈던 사람이 셔서 고 왈,

“나는 금번 조가 손의 죽은 왕싱이라. 상셰 그릇 알고 익미흔 니가를 가두고 조가를 노하니, 이제 만일 조가 원슈를 아니 갑하쥬면 넉 그져 잇지 아니하리라.”

하고 문득 간 디 업거늘, 양문기 디경하여 급히 좌기를 츠리고 조가를 잡아 엄문흔즉, 조개 익미함으로 발병홀 즘음의 왕개 드리와 고성 왈,

“이 불측흔 조가놈아. 무슴 일노 나의 안히를 겁탈하고 쏘 날를 죽이니 이는 나의 김흔 원쉬여늘, 네 엿지 익미흔 니가의게 죄를 도라 보느냐.”

하고 문득 간디 업는지라. 조개 경황하고 양문기 쏘흔 놀느 조가를 엄형쥬문하니, 조개 능히 견디지 못하여 기기 승복하거늘, 즉시 니가를 방송하고 조가를 횡형하니라.

운치 니가를 구흔 후의 구름을 타고 가다가 구버보니 저직거리의셔 장인이 제두를 붓들고 닳토거늘, 운치 내려와 연고를 무른즉, 일인이

디 왈,

“제두를 뵈 디 이셔 몬져 갑슬 정하엿더니, 저 사람이 관니 츠세하고 아스가려 하기로 닳토노라.”

운치 관니를 속이려 하여 진언을 넘하니 그제되 다 입을 버리고 관니를 물녀 하거늘, 관니 놀나 다라나더라.

운치 쏘 혼 곳의 이르니 풍악이 낭즈하고 가성이 분운하거늘, 운치 좌의 나아가 네하여 왈,

“나는 과객이러니 제형의 즐거미를 구경코져 하노라.”

제싱이 답네하고 서로 통성명흔 후의 운치 눈을 드러 숭퍼본즉, 창기 십여인이 각각 풍악을 가지고 가스를 회롱흔 곳의 그 중의 쇼싱과 설싱이라 하흔 사람이 가장 교만 거오하거늘, 운치 녕쇼하고 제싱으로 슈작하더니 이윽고 쥬반이 나오거늘, 운치 왈,

“싱이 형의 스랑을 입어 진찬을 맛보니 감스호도다.”

설싱 왈,

“우리 비록 빈한하나 명기와 진찬이 만흐니 형은 처음 본듯 하리라.”

운치 소 왈,

“그러는 하거니와 오히려 미비흔 거시 만토다.”

설싱이,

“이 무어시 미비하뇨.”

운치 왈,

“우선 셔늘흔 슈박도 업고, 식곰흔 복성화와 달곰흔 포도도 업스니, 무어시 가즈리오.”

제싱이 디소 왈,

“형은 무지각이로다. 츠시는 계춘이라. 이 실과 등이 어디 이스리오.”

운치 왈,

“일처의 온갖 여름이 열너스름 보앗노라.”

설싱 왈,

“그러하면 형이 이제 스올손냐.”

운치 왈,

“만일 스오거든 큰 너기를 시형하랴.”

호고 동즈를 다리고 혼 동산의 가본즉 남게
복성해 달넛거늘, 종즈로 하여곰 남게 올라 싸
셔 지이고, 그 아리 포되 겨즈의 드리윳스미 쏜
싸셔 지이고, 드을노 내려간즉 슈박이 넛출의
열넛거늘 이십기를 싸셔 지이고 도라오니, 제인
이 되경하여 먹으며 가장 신기히 녀기더라.

운치 되취하미 쇼, 설 낭싱을 쇼기고져 하여
냥인을 향하여 진언을 녀하더니, 이윽고 냥인
왈,

“몸이 심히 무겁고 마음이 심히 번난하니 고
이하도다.”

운치 왈,

“형 등이 방즈하거니와 창기는 불긴하냐 하노
라.”

냥인이 노 왈,

“우리 환직 아니여든 엇지 창네 불킨타 하노
뇨.”

운치 쇼 왈,

“냥형은 노치 말고 손을 바지 속의 너허 만져
보라.”

하니 설싱이 이 말을 듯고 손으로 만져 보다
가 쇼싱더러 왈,

“신랑이 간 되 업고 판판하니 이 엇진 일이
뇨.”

쇼싱이

“보아지라.”

하거늘, 싱이 너여 뵈니 과연 아모 것도 업스
미 쇼싱이 쏜 제 하물을 만져본즉 역시 그러
하더라. 냥인이 되경 왈,

“앗가 던형이 우리를 조롱하더니 과연 이런
변이 있도다. 장차 엇지하리오.”

하며 쏜 창기 줌 혼 년이 소문이 간되 업고
빅 우회 굶기 낫스미 엇지 흘 줄 모로거늘, 그
줌의 은싱이라 하는 직 가장 총명 유식하더라.
문득 썩다라 운치의게 비러 왈,

“아등이 눈이 어두어 형의게 득죄하여스니,
바라건되 형은 용서하라.”

운치 왈

“넌너 말면 죽연이 도로 나으리라”

제싱과 그 년이 깃거하여 만져본즉 의구하미
모다 치하 왈,

“신선이 강님하시를 모로와 하마 병인이 될
번하엿느이다”

하더라.

운치 구름을 타고 동 되호로 가다가 보니, 혼
곳의셔 슈삼인이 의논 왈,

“장 고직은 착하고 효행이 있는 스람이라. 만
일 익히히 죽으면 맛갑고 참혹다.”

하며 츠탄하거늘, 운치 내려와 무른되, 기인
이 되 왈,

“호도 고직이 장계창이란 스람은 어질고 효행
있고 스름 구제하기를 조하하더니, 제 문서 잘
못흔 탓스로 제 쓰지 아니흔 은즈 이천 냥을
무변지미 그 궤로 형형한다 하기로 차탄하노
라.”

하니 운치 불상이 녀겨 다시 구름을 타고 형
형하는 곳의 가 기다리더니, 과연 혼 쇼년이 슬
위의 달너 오고 그 뒤히 저문 계집이 울며 싸
르느니라. 운치 중언더러 무른즉 과연 장계창이
여늘, 동정을 슬피더니 옥졸이 궤인을 나리와
노코 썩을 웨느니라. 운치 바람이 되여 장계창
의 부처를 거두어 가지고 하늘노 올라가니 감
형관이 되경하여 이되로 상달하되 상이 놀나시
고 묘정이 의혹하더라.

운치 집의 도라와 장계창의 부부를 내려노코
약을 푸러 너흔즉 이윽고 썩여 아모란 줄 모르
미 운치 전후슈말를 이르고 모친썩 이 스연을
고하니라.

운치 쏜 구름을 타고 가다가 혼 스람이 통곡
하를 보고 연고를 무른되, 기인이 되 왈,

“나는 한직경이려니 부상을 당하여 장스홀 슈
업고 칠십 노모를 봉양할 길 업셔 설워하노라.”

하니, 운치 긍측히 녀겨 쇼미로서 혼 족즈를
너여주며 왈,

“이 족즈를 집의 걸고 고직아 불너 되답하느
직 잇거든 은즈 빅냥을 너라 하면 줄 거시니,
그 은즈로 장스 지니고 쏜 미일 혼 낭식만 달
나 하여 노친을 봉양하되, 만일 더 너라 하면

큰일이 날 거시니 부디 조심하라.”

훈디, 기인이 반신반의하며 운치의 거주 성명을 못하고 집의 도라와 족조를 펴본즉 아모것도 업고 큰 집 혼나홀 그리고 그 집 압히 동조를 그려 열쇠를 치왔거늘, 기인이 시험하여 고직아 부른즉 과연 그림 속의셔 대답하고 나오는지라.

기인이 놀나며 은조 빅 냇을 드리라 하니 동지 은조 빅 냇을 너여 압히 노커늘, 직경이 그 은조로 장소를 지니고 밭일 고직을 불너 은조 혼 냇식 드리라 하여 일용을 하더니, 일일은 쓸디 이셔 헤오디,

‘은조 빅 냇을 꾸어 쓰면 무슨 관계 이스리오.’

하고, 고직을 불너 왈,

“쓸디 이셔 은조 빅 냇을 문져 꾸어 쓰고져 하노라.”

훈디, 고직이 허치 아니하거늘, 직경이 직삼달녀여 이른즉, 고직이 부담하고 드러가 문을 여는지라. 직경이 짜라 드러가 은조 빅 냇을 가지고 나오려 하니 고문이 닳쳤거늘, 일벼일변 놀라 고직을 부르되 대답이 업는지라.

직경이 되로하여 발노 문을 박쳐더니, 츠시 호판이 좌괴홀식 고직이 알오디,

“고 중의셔 스람 쇼리 나오니 가장 고히하더이다.”

하거늘, 호판이 듯고 의괴하여 하속을 모호고 문을 여니, 혼 놈이 은조를 가지고 섰거늘, 하속 등이 되경하여 문 왈,

“네 엇던 도적이완디 이곳의 드러왔노뇨.”

직경이 노 왈,

“너의는 엇던 스람이완디 남의 고 중의 드러와 이럿듯 하노뇨.”

하거늘, 하속 등이 직경을 결박하고 호판씨 알원디, 호판이 직경을 계하의 쓸니고 꾸지지니, 한개 그제야 솟펴본즉 제집이 아니오 곳 관기라. 되경하여 왈,

“넌 엇지 이곳의 왔노고. 이 꿈인가 상인가.”

하며 아모란 줄 모로거늘, 호판 왈,

“네 고 중의 드러와 은을 가져가려 하는 죄는

죽엄죽 하거니와 네 당뉴를 다 알외라.”

하니, 한개 전후곡절을 다 고향디 호판이 그 족조 출처를 무르니 한개 던운치의 스연을 알원디, 호판 왈,

“던운치를 어너 썩의 보았나다.”

한개 왈,

“보완 지 스오삭이오, 그 집은 남셔부라 하더이다.”

하거늘, 호판이 이의 한가를 가두고 인하여 뉴고를 번고하즉 은조는 다 업고 청기고리 가득하고, 쏘 다른 고를 본즉 돈은 업고 누른 비얍이 가득 셔렸거늘, 호판아 고히 너겨 이 연유를 상달하디, 상이 되경하스 제신을 모화 원논 하실시, 각 창관이 주하되,

“창고의 찰이 변하여 버러지 증싱이 되었노이다.”

하며, 쏘 각 영문이 주하되,

“고 중 군기 다 업고 나모가지만 썩혔노이다.”

하며, 차지니관이 주하되,

“희물이 변하여 싱선이 되었노이다.”

하며, 궁내 주하되,

“궁녀 등의 족도리 변하여 금가마귀 되어 나라가고, 낙전의 큰 범이 드러와 궁인을 희하노이다.”

하거늘, 상이 되경하스 궁노슈를 발하여 낙전의 드러가본즉 궁녀마다 큰 범을 타시미 궁노를 발치 못하고 이 스연을 상씨 주하디, 상이 진노하사 궁녀 아오로 쏘라 하시니, 궁노썩 드러가 일시의 쏘려 하즉 흑운이 이러나며 범 탄 궁내 다 구름의 뱃이여 하늘노 올라가는지라. 상 왈,

“이는 다 던운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국기 티평하리라.”

하시더니, 호판이 주하되,

“가둔 도적이 쏘흔 던운치 동뉴니 급히 죽여지이다.”

하거늘, 상이 의운하스 한직경을 형형하려 홀시, 문득 광풍이 되작하며 직경이 간디업스니,

이는 운치 구하미러라.

츠설. 운치 두루 다니다가 스문의 방 부치물
보고 닝쇼하며 꺾하의 나아가 워여 왓,

“쇼신 던운치 즈현하느이다.”

하거늘, 정원이 주하되, 상이 해오시되,

‘이놈 환술이 비상하여 도쳐 작난하니 츠라리
벼슬을 주어 달너고 만일 다시 작변하거든 죽
이리라.’

하시고, 입시하라 하시니, 운치 드러와 복디
하거늘, 상 왓,

“네 꺾상을 아는다.”

운치 부복 사죄 왓,

“신의 꺾 만스무석시오니 무슨 말씀을 알외리
잇가.”

상 왓,

“네 직조를 앗겨 꺾를 스하고 벼슬을 주느니,
너는 모로미 충성을 다하라.”

하시고 선전관 스복 낙승을 제슈하시니, 운치
스은하고 물너와 스쳐를 정하고 꺾의 입직할
식 선전관들이 조스 보치기를 심히 하여 퇴치
기를 츠레로 하거늘, 운치 가마니 망주석을 섹
혀다가 퇴를 맞치니, 선전관의 퇴 잡은 손바닥
이 맞쳐 알파 능히 치지 못하미, 이후는 퇴치
기를 그치니라.

이러구러 슈월이 되니 선전관들이 하인을 분
부하여 허참하기를 지촉하니, 운치 왓,

“명일 평명의 빅스정으로 제진하시게 하라.”

하니라. 익일의 모든 선전관이 준총을 타고
나아오며 슝퍼본즉, 푸른 차일은 반공의 쇼샷고
칙식 포진은 좌우의 버렛느디 몹은 풍악이며
풍비흔 음식이 가장 변화하더라.

제인이 츠레로 좌정하 후의 상을 드러 잔을
날녀 반취하미, 운치 왓,

“금일 청중이 모다 즐길식 무변의 노름이 가
장 무미하니, 원컨디 전일 친하던 계집을 다려
오미 엇더하노.”

제인이 취중의 가장 깃거 왓,

“던조스의 이런 호괴 잇는 줄 아지 못하엿느
니, 그되느 직조되로 하라.”

운치 즉시 하인을 다리고 나는 다시 남문으
로 드러가거늘, 제인 왓,

“던조식 형식 이럿듯 괴특하니, 족히 큰 도적
이라도 감당하리라.”

하고 칭찬하더니, 오락지 아니하여 운치 무슈
흔 계집을 모라와 장 밧기 두고 다시 큰 상을
드려 즐길식, 운치 나아가 왓,

“청말이 청중 분부를 드러 계집을 다려왔스
니, 각각 혼나식 압히 두어 흥을 도도미 엇더하
노.”

제인이 다 쫓타 하거늘, 운치 묻져 흔 계집을
불녀 형슈 압히 안치며 왓,

“너는 썬나지 말고 착실이 슈청하라.”

하고 츠레로 혼나식 안치니, 이는 다 선전관
의 안하라. 모든 선전관이 서로 알짜 두려하
아모 말도 못 하고 심중의 디로하여 문득 상을
물니고 각각 말을 너여 타고 급급히 도라가니,
하인 등은 이 썬을 모로고 다 의괴하더라.

선전관들이 각 집으로 도라오니, 혹 급보를
전하라 오는 니도 이스며, 혹 청심환을 구하
라 약제로 가는 니도 이스며, 혹 의원을 청하
여 스 관을 주느 니도 이스며, 혹 방상 통곡하느
니도 이서, 집집이 창황 분주하미, 선전이 연고를 무
른즉, 다 부인 상식라.

김선전은 집의 도라온즉 시비 고 왓,

“부인이 앗가 의복을 마르시다가 홀연 별세하
엿느이다.”

하거늘, 김선전이 디로 왓,

“이거시 빅스정 허참 노름의 창기 되어, 던가
놈을 부동하여 와서 만좌 중의 욕을 뵈니, 엇지
스족 부녀의 쇼형이 여츠하리오. 나는 벼슬도
못 하고 문호를 망하니, 통한하플 엇지 측량하
리오.”

하더니, 문득 시비 급보 왓,

“부인이 썬여난다.”

하거늘, 선전이 노를 그치고 급히 낙당으로
드러가니, 부인이 이러 안즈며 왓,

“첩이 앗가 잠간 조으더니, 흥포 입은 직 불
문시비하고 첩을 잡아너며 황의 입은 하인이

다라드러 장옷을 쓰이고 말을 턱와 어니 곳으로 가본즉, 날 갓튼 부인이 무슈혀 아모리 흘줄 몰나혀더니, 던선전이란 놈이 날를 썩씩 ○허 산공 압히 안치며, ‘착실이 슈청하라’ 하고, 츠레로 한나식 안친 후의 선전관들이 열좌하여 상을 바닷다가 별안간의 상공이 노식을 썩여 이러서며 말씩 올라 도라가미 다른 스람드리안을 도라보지 아니하고 노기 발발하여 다 훑터지니, 첩도 앓가 계집들과 함기 몰니여 방황하다가 썩다르니, 남가일뭉이라. 집안스람들이 날를 죽은 줄노 알고 방상 통곡하니, 그런 변괴 어디 이스리오.”

혀거늘, 김선전이 이 말을 듯고 어히업서하며 모든 선전관이 불승통분 왈,

“딴역부도 던운치 놈이 뉘쥬하여 우리 등을 욕을 뵈니, 어니 썩 이놈을 죽여 이 한을 설치히리오.”

혀더라.

던운치 모든 선전관을 속이고 도라와서 헤오딴,

‘넋 나라히 죽을 죄를 면하고 도로혀 벼슬를 바드니 천은이 망극한지라. 맛당히 회과천선하여 충성을 극진히 히리라.’

하고, ○○○○하며 직스를 다스리며 스복마를 신척하여 말이 술찌고 병이 업스니, 죠당이 괴특이 너기더라.

각셜. 가달산의 엄준이라 하는 지 이스되 용팅이 파인하고 무예 출중헌지라. 강도 슈천을 모화 산척을 이루고 촌가의 노략하며, 각 읍을 쳐 군기, 던냥을 탈취하며 스람을 살히하니, 각 읍이 쇼요헌지라. 감식 이 연유를 장계헌디, 상이 크게 근심하스 제신을 모화 의논 왈,

“도적이 이럿듯 강성하니, 넋 능히 도적을 쇼멸히리오.”

히시되, 감히 딴답힐 지 업더니, 문득 일인이 출반 슈 왈,

“신이 턴은을 입스오미 망극헌온지라. 비록 무지헌오나 엄준의 머리를 버혀 전하의 금심을 덜가 히는이다.”

혀거늘, 상이 보시니 이는 던운치라. 딴희하스 제신더러 문 왈,

“경 등 소견의는 엇더하뇨.”

제신이 다 맛당하를 주헌디, 상이 왈,

“군마를 언마노 죠발홀고.”

운치 딴 왈,

“적세 크다 하오니 신이 홀노 나아가 적세를 탄비헌 후의 동병하미 죠홀가 히는이다.”

상이 운허히시고 인검을 주스 임의 호령하라 히시니, 운치 스은 퇴쥬하여 익일의 ○○식 츠야의 구름을 타고 남서부의 가서 모친을 뵈옵고 왕명을 밋즈와 적세를 탐지하라 가는 연유를 고하니, 부인이 경계 왈,

“적세 허실을 모르고 쇼루히 드러가미 만분 위턱히니, 극진이 조심하여 군친의 바라를 저바리지 말나.”

혀거늘, 운치 슈명하고 경스로 도라와 날이 식미 포교 등 십여인을 다리고 발행하여 감영의 이르러 포교 등을 머물너 두고 홀노 인검을 가지고 몸을 혼드러 변하여 슈리되여 가달산으로 드러가보니, 엄준이 엄연○ 일산을 밋고 빅총마를 밋시며 척의 홍상헌 미녀를 좌우의 세우고 좃즈 빅여명을 거느려 산행헌더니, 문득 엄준이 분부하되,

“오늘은 각 도의 갓던 장스 등이 도로올 거시니 명일의 큰 쇼를 십필만 잡고 잔치홀 기구를 출히라.”

하느니라. 운치 엄준을 숭퍼본즉, 기골이 장딴하고 낫빋치 붉고 눈이 방울 갖고 슈염이 바늘를 못거 식운 듯하니, 진짓 일세 호걸이여늘, 운치 문득 한 계교를 싱각하고 나모넵홀 홀터 신병을 민드러 창검을 들니고 기치를 버려 진을 곳게 치고 운치 머리의 쌍봉 투구를 쓰고 몸의 호금 전포를 입엇스며 인검을 들고 오쥬마를 타고 동구를 켜쳐 드러가보니 성문을 구지 다닷거늘, 운치 진언을 넘흔즉 성문이 절노 열니는지라. 말을 모라 드러가며 좌우를 숭퍼보니, 밋는 집이 두루 버려 잇고 물식이 십분 변화헌더라. 운치 스면을 들너본 후의 변신하여

슈리 되어 후원의 드리가본즉, 염준이 황금 교의에 안고 제장을 좌우의 안치고 그 뒤히 전각 의셔 미녀 슈빅인이 열좌하여 잔을 밧거늘, 운치 그 동정을 보고져 하여 진언을 넘하니, 무슈흔 슈리 하늘노 덩혀 내려와 제인의 압히 노흔 상을 다 거두어가지고 중턴의 셔 올라가며 광풍이 디작하여 모리 날니며 돌이 다름질하니, 좌중이 디경하여 눈을 쓰지 못하고 바람의 불니여 쓰러지며 촌일과 ○○○물이 다 나라 공중의 오르니, 염준은 녀시 업서 언덕의 나무등걸를 밧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모든 군스느 썩과 고기를 들고 표풍하여 덩굴덩굴 구울며 혹 쏜물도 토하는지라. 스시붓터 오시가지 분분하다가 염준과 제 장졸이 겨우 정신을 츠려 보니 문득 빅설이 담아붓는 다시 내려 순식간의 십여장이 썩히미 눈을 쓰지 못하여 아모리 흘 줄 몰나 황황하더니 문득 바람이 그치며 눈 물이 혼 점도 업는지라.

염준이 디청의 나와 술발을 혼드러 장졸를 모화 고히흔 직변을 서로 놀난하더니, 문득 문졸이 보하되,

“일원 디장이 군스를 모라 동문을 썩치고 드러온다.”

하거늘, 염준이 디경하여 군스를 직촉하여 괴세를 정제하고 진전의 정창 출마하니, 운치 디호 왈,

“너는 엇던 놈이완디 강악을 밋고 산중의 둔취하여 군현을 침노하며 빅성을 살히흔다. 너 갓튼 쥐 무리를 다 잡아 국법을 정히 하니, 네 생명을 앗기거든 일즉 항복하여 턴명을 순슈 하여.”

염준이 디로 즐 왈,

“넌 응현순인하여 장춧 무도흔 님군을 업시하고 도탄의 든 빅성을 건지고즈 하거늘, 네 엇지 감시 날를 항거흔다.”

말를 맞치며 니다라 낭미 교봉하여 슈십여합의 이르러 염준의 창날은 일광을 가리오고 운치의 검광은 반공의 무지게 되엿스이, 진짓 낭회 공산의셔 밥을 닷토며 쌍농이 벽희의셔

여의주를 닷토는 형상이라. 낭장의 정신이 점점 썩썩하여 승부를 미결하여 날이 이미 저물미 낭진이 정을 쳐 군을 거두니라. 염준이 진의 도라오미 제장이 치하 왈,

“작일 괴변을 밋는 마음이 놀나스되 금일의 범 갓튼 장슈를 능히 디적하니 하늘이 도으시미여니와 적장의 용밍이 쏘흔 절눈하니 장군은 경적지 마르쇼셔.”

하거늘, 염준이 쇼 왈,

“적장이 비록 용밍하나 넌 엇지 저를 두리리오. 명일은 결단코 운치를 잡고 바로 도성으로 향하리라.”

하고 익일의 진문을 열고 염준이 출○ 디호 왈,

“턴운치는 썰니 나와 나의 칼를 바드라. 금일은 ○○○ 승부를 결하리라.”

하며 좌우충돌하거늘, 운치 디로하○○를 니모라 칼를 춤추어 바로 염준을 취홀시, 삼십여합의 이르되 염준의 창법이 일호 차착이 업는지라. 운치 헤오디,

‘무예로는 염준을 당치 못하리라.’

하고, 몸을 혼드러 정몸은 공중의 오르고 거죽몸은 염준을 디적하게 하고 크게 위여 왈,

“넌 평싱의 살싱을 아니하더니, 네 이제 턴명을 거역하미 넌 마지못하여 너를 죽이느니, 날를 원치 말나.”

하고, 칼를 드러 염준을 치려 하다가 다시 싱각하되,

‘넌 살싱하기를 엇지 줄연이 하리오. 맛당이 이놈을 싱금하리라.’

하고, 공중의 올라 칼를 번득여 급히 위여 왈,

“넌 직조를 보라.”

하니 염준이 디경하여 하늘을 우러러본즉 혼제구름 속의 번기 이러나니, 이는 번기 아니오 운치의 검광이라. 디경실식하여 적진으로 도라가려 하더니, 압히 운치 칼를 드러 길을 막으며 뒤히 쏘 운치 썩르며 좌우의 쏘흔 운치 에워드러오며 머리 우회 운치 구름을 타고 칼춤 추

어 염준의 머리를 범하느니라. 염준의 정신이 어줄하여 마차의 썰러지거늘, 운치 구름의 나려와 거죽 운치로 군스를 호령하여 염준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보내고, 운치는 말을 달녀 적진을 총살하니, 적진 장졸이 염준의 스로잡히를 보고 손을 못거 항복하거늘, 운치 적진 장졸를 계하의 끌니고 효유하여 왓,

“여등이 반적을 도아 턴명을 항거하니, 그 죄만스무석이로되 너 특별이 스하느니, 여등은 고향의 도라가 농업을 힘써 양민이 되게 하라.”

적장 등이 고두지비하고 각각 허여지미, 냇날 장즈방이 계명산 추야월의 니향가 혼 곡조를 슬피 부러 강동 즈제 고향을 싱각하여 훗터짐과 잣더라.

운치 염준의 너실의 드러가 미녀 슈빅을 다노하 각각 제집으로 도라보내고, 각 진으로 도라와 장딴의 안고 좌우를 명하여 염준○ 디하의 끌니고, 여성 디미 왓,

“네 직조와 용뎡이 이슬진디 맛당이 갈춤스군하여 영충이 디디로 밋치미 울거늘, 감히 역심을 품어 국가를 쇼요케 하니, 그 죄를 엇기 요디하리오.”

하고 무스를 명하여 원문 밧기 참하라 하니, 염준이 슬피 비러 왓,

“쇼장의 죄상은 이삼족이 맛당하오나 장군은 호싱지덕을 드리오시면 맛당이 허물을 곳쳐 장군을 조출가 하느이다.”

운치 왓,

“네 진실노 기과천선홀진디 엇지 아롬답지 아니하리오.”

하고, 무스를 명하여 밋 거슬 그르고 조흔 말노 위로하여 제 고향으로 도라보내고 신병하온디, 상이 인견하스 파적혼 슈말을 무르시니, 운치 즈쵸지쵸를 즈셔히 알윈디, 상이 무슈히 칭찬하시고 상스를 만히 하시니라.

츠셜. 운치 경성의 도라온 후의 도정이 다와셔 운치를 보고 성공하를 치하하되, 홀노 선전관이 일인도 와보느 니 업스니, 이는 빅스정 허참시의 욱 베편 혐의러라. 운치 다시 속이고져

하더니, 일일은 스경 썩의 월식이 쇼요하여 벽공의 열점 운이 업느니라. 운치 오운을 타고 황건녁스와 이믹망냥 등을 다 모호고 신장을 불너 분부하되,

“썰니 가 모든 선전관을 잡아오라.”

하니 신장이 청녕하고 가더니 이윽고 다 잡아왔거늘, 운치 구름교의에 안고 좌우의 신장등을 버려 세우고 등축이 휘황하디, 운치 녀성 왓,

“황건녁스는 여디 잇느뇨. 모든 죄인을 잡아드리라.”

하니 녀스 등이 일시에 청녕하고 각각 혼나썩 나입하느니라.

선전관들이 황겁하여 싸히 업디여 치미러본즉, 귀왕과 신장이 좌우의 나렬하여 위의 심히 엄속혼 곳에 운치 고성 디미 왓,

“너 전일에 회룡코져 하여 그딴의 부인을 잠간 욱되게 하여스나 엇지 그러릇 함험하여 날를 쇼디하미 심하뇨. 너 일즉 여등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보내고져 하되, 너 밤이면 턴상 벼슬에 다스르고 나지면 국가 쇼임의 골몰하기로 지금 천연하엿거니와, 이제는 마지못하여 너의 등을 풍도옥에 보니고 고향을 격거 스람을 만모하던 죄를 속하게 하노라.”

하고 말을 맞치며 녀스를 불너 왓,

“너의 이 죄인을 압녕하여 풍도옥의 가서 염왕의게 부치되, 이 죄인을 디옥에 가도와 팔만 겹을 지나거든 업축이를 밋드려 보니라.”

하거늘, 모든 선전관이 이 말을 드르미 정신이 더욱 썰니고 혼빅이 몸의 붓지 아니하느니라. 슬피 비러 왓,

“우리 등이 암미하여 죄를 범하여스니, 바라건디 동노지의를 싱각하여 죄를 용셔하쇼셔.”

하거늘, 운치 침음양구의 왓,

“너 여등을 풍도에 보니고 고향을 격게 흘거시로되, 전일 안면을 고렘하여 아직 심분 안셔하거니와, 일후를 보아 처치하리라.”

하며

“모라 너치라.”

하니 모든 선전관이 문득 썩다르미 남가일몽이라. 일신에 썩이 흘너 금침이 저젓고 정신이 아득한지라. 그후의 모든 선전관이 청중의 모혀 그날 몽스를 이룬즉 모다 여출일구여늘, 츠후로 운치를 디접히미 각별 극진히더라.

츠설. 일일은 상이 호판더러 문 왈,
“전일 호조의 은과 돈이 다 변히엿다 히더니 이제는 엇히더뇨.”

호판이 디 왈,
“전일과 그딴로 그져 잇느이다.”
히디, 상이 가장 근심히시거늘, 운치 출반 주 왈,

“원컨디 신이 각쳐 창고의 지변을 츠세히 탐지히와 탐전의 알외고져 히느이다.”

상이 의유했신티, 운치 즉시 호판과 혼가지로 호조에 나아가 고문을 열고 본즉 은이 예디로 잇거늘, 호판이 디경 왈,

“넌 어제 번고혈 제 청기고리만 잇더니 밤사이로 도로 은이 되여스니 가장 고히히도다.”

히고 외고를 여러보니 쏘흔 다 의구히엿고 각 영문의 군과 다 여전히니 모다 놀나고 신과히 녀기며, 운치 삶펴본 후 탐전에 그딴로 상달히온디, 상이 깃거히시며 운치의 요술노 작변히를 짐작히시더라.

잇썩 간의디뵈 엇즈오디,
“호셔 싸히 스오인이 둔취히여 역모를 의논하다 히와 고직 문서를 가지고 신의게로 왓습기 고즈를 가두고 알외느이다.”

히거늘, 상이 왈,
“과인이 박덕히여 도적이 봉기히니 엇지 한심치 아니히리오.”

히시고, 금부와 포청으로 잡으라 히스 즉시 잡아왔거늘, 상이 친문히실시, 기증 혼 놈이 알외디,

“던운치로 님군을 삼아 빅성을 진정코져 히옵더니 이제 일이 발각히오미 만스무척이로쇼이다.”

혈시, 츠시 운치 문스낭청으로 시위에 섰다가 불의에 역적 쇼스에 오른지라. 상니 디로히스

왈,
“던운치 필경 모역홀 줄 아랏더니 이제 쇼스에 낫도다.”

히시고, 썰리 운치를 잡아나려 형구를 베풀고 하피 왈,

“넌 전일의 네 죄를 스히고 벼슬을 쥘엇더니 국가의 은혜을 감복지 아니히고 이제 역놈를 범히엿스니 발명 말고 죽으라.”

히시며, 나졸를 엄교히스,
“흔 밋에 죽이라.”

히시니, 나졸이 힘을 다히여 치려 히되 팔이 알파 밋을 드지 못 히더라. 운치 알외디,

“신의 전후 죄상은 만번 죽어 맛당히오나, 금일 역놈은 천만 익미히여이다.”

히며 심중에 헤오디,
“이 필연 날를 모히히나 니 이셔 이리 히미니, 엇지 익답지 아니히리오.”

히고, 다시 쥘히되,
“신이 이제 죽을진디 평상의 비흔 지조를 세상에 전치 못히올지라. 복원 성상은 신의 원을 풀게 히쇼셔.”

히거늘, 상이 헤오시되,
“이 놈의 죄죄 가장 괴이히니 시험히리라.”

히시고, 하교 왈,
“네 무슨 죄죄 잇느뇨.”

운치 디 왈,

“신이 그림을 잘 히오미 나무를 그리면 점점즈라고, 짐승을 그리면 거러가웁고, 산을 그리면 산에서 쇼목이 싱히웁기로 세상의셔 명쾌라히웁느니, 이 그림을 세상에 전치 못히고 죽스오면 원혼이 되리로쇼이다.”

상이 싱각히시되,
“이 놈이 죽어 원혼이 되면 괴로운 일 이스리라.”

히시고, 즉시 밋 거슬 글너노코 필목지를 쥘신티, 운치 붓을 드러 산슈를 그릴시, 만학천봉의 만장폭뢰 산상으로 조츠 나리게 히고 시닌가의 버들가지 느러지게 히고 그 아랫 안장 지은 나귀를 그린 후에 붓을 더지고 스비히온디,

상 왈,

“너는 죽을 죄인이여늘, 스비흔든 무슨 뜻인 고.”

운치 주 왈,

“신이 이제 턴안을 하직하고 산중으로 드러가 늑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중으로 드러가더니 문득 간디업는지라. 상이 디로 왈,

“넌 이놈의게 또 속아시니 이를 장춧 엇지하 리오.”

하시고, 좌우로 하여곰 그림을 소화하라 하시 며, 그 죄인 등을 다시 엄문하스 지만을 바든 후에 너여 처참하라 하시고, 운치의게 속으믈 못넌 통한하스 각 도에 횡관하시되, 운치를 잡 아드리는 직 이스면 천금상의 벼슬을 주리라 하시다.

츠셜. 운치 요술를 행하여 님군을 속이고 죽 을 익을 버셔나 집의 도라와 모친씨 전후 스연 을 고향디, 부인이 디경 왈,

“츠후는 몸을 감초와 다시 묘정에 나아가지 말나. 네 님군을 속이니 그 죄 턴디간에 용납지 못홀지라. 네 스후애 하면목으로 조상을 비려 하느뇨”

하며 일장디척 하거늘, 운치 모친 경계를 드 른 후는 산중에 이셔 고요히 글글글을 힘쓰며 혹 나귀를 타고 물식을 구경하더니, 한 곳의 이 르러 본즉 저믄 중이 고은 계집을 다리고 산중 으로 드러가더니, 이윽고 그 녀지 남귀 올라 즈 향하려 하느니라. 운치 맛참 촌가의셔 술 스먹 고 산상으로 올라오다가 지경을 보고 놀나 급 히 나아가 밍 거슬 그르며 슈족을 쭈물너 회심 하미 연고를 무른디, 기네 왈,

“앗가 지나던 화상은 가군 심시 친하던 중놈 이라. 첩이 일즉 과거하여 슈절하더니, 금일은 가군의 도라간 날이라. 그 중놈이 와서 달녀 이로디, ‘제 절에 가서 직을 올니즈’ 하고, 한가 지로 가믈 간청하기로 첩이 신지무의하고 싸라 오더니, 그 놈이 불측지심을 너여 이곳의 왔셔 날를 겁척하여 훼손하미 스라 쓸 디업기로 즈

결코져 하노라.”

운치 그 녀즈를 위로하여 제 집으로 보넌고 다시 산의 올느가니, 큰 암직 잇고 어제 보던 중놈이 그 곳에 잇느니라. 운치 가마니 진언을 녀하여 괴운을 너여 부니 그 중이 변하여 던운 치 되거늘, 그 절에 머물너 두고 동정을 숨피더 니, 맛참 포도기찰이 왔다가 그 중놈을 보고 던 운치만 너겨 틱슈씨 급히 고향디, 틱슈 디회하 여 토병을 발하여 그 중놈을 잡아 결박하여 경 스로 올닌디, 상이 즉시 친국을 비설하시더니, 정원이 주하되,

“각 도 각 읍의셔 던운치를 잡아드린 거시 삼 퍽늑십일 명이오니, 이는 반다시 던운치의 요술 인가 하느이다.” 상이 진노하스 처치하시믈 싱 각지 못하실식, 도승지 왕연희 주 왈,

“던운치 환술이 불측하오니 금번도 일홀 녀네 잇스오미 진가를 물론하고 모다 버혀지이다.”

하거늘, 상이 올히 녀기스 십즈각에 전좌하시 고 모든 던운치를 잡아드려 츠레로 버힐식, 그 중 하나히 나아와 알외디,

“신은 던운치 아니오, 도승지 왕연희로소이 다.”

하거늘, 상이 보신즉 분명 왕연희라. 좌우더 러 무르신디 좌위 디 왈,

“이는 던운치로쇼이다.”

상이 탄 왈,

“국운이 불행하여 요열이 이갓치 작난하니 종 스를 엇지 보전하리오. 적신 하나홀 죽이려 하 미 무죄한 도신과 익미한 빅성을 만히 죽이리 로다.”

하시고, 친국을 파하시니라. 운치 구름 속에 서 요술를 행하고 몸을 변하여 왕연희 되여 궐 문에 나오니, 하인 등이 인마를 디령하엿다가 되셔 왕부로 도라가 바로 님당으로 드러가 부 인과 슈작하되 부인과 가넌인은 전혀 모로더니, 이적의 왕공이 궐너로서 나와 하인을 츠즌즉 혼낫토 업느니라. 고히 너겨 동관의 인마를 비 러 타고 집의 도라오니, 하인들이 문전의 이스 미 왕공이 일변 디로하며 곡절을 무른즉 하인

등 왈,

“쇼인 등이 앓가 상공을 되셔 왓습거늘, 쏘
엇지 상공이 계시리오.”

흐며 면면상고흐거늘, 왕공이 의괴하여 님당
으로 드러가니, 시비 등이 손씩치며 왈,

“이 엇진 일이뇨. 앓가 우리 상공이 나와 계
시거늘, 이 엇진 일이뇨.”

흐며 짓거리는지라. 왕공이 아모란 줄 모르고
침실노 드러가니 과연 흐 왕공이 부인과 말숨
을 낭즈히 흐거늘, 왕공이 디로 디미 왈,

“너는 엇던 놈이완디, 감히 사부가의 드러와
나의 부인과 말을 슈작호는다.”

흐고, 노복을 호령하여,

“썰니 결박하라.”

흐니 운치 왈,

“너는 우엔 놈이완디 님 얼굴이 되여 님당의
드러와 나의 부인을 겁탈하려 하니, 이런 변괴
어디 이스리오.”

흐며, 하인을 호령하여,

“썰니 모라 님치라.”

흔디, 하인 등이 이 거동을 보미 가위 슈지오
지자옹이라. 아모리 혈 줄 모로거늘, 운치 도로
혀 호령 왈,

“넌 전일의 드른죽 요물이 인형을 오리 쓰지
못한다.”

흐고 왕공을 향하여 물을 썸고 주스를 너여
바르니 왕공이 변하여 구미회 되니, 노복 등이
그제야 칼과 몽치를 들고 다라드러 좇쳐 죽이
려 흐거늘, 운치 말녀 왈,

“이 일이 큰 변괴니 나라히 고히여 처치할 거
시미 아직 단단히 동혀 방중에 가도고 잘 직회
라.”

흐니 노복 등이 청녕하고 왕공을 동혀 가두
니라. 왕공이 불의지변을 맛나미 말을 흐고져
흔죽 여호의 소리로 나고 정신이 아득하여 다
만 눈물만 흘니고 누어시니 가위 증심의 모양
이오, 스름의 속이라. 운치 싱각호되,

‘슈삼일 속이면 스지 못호리라.’

흐고 츠야 스경의 왕공을 가보고 이로디,

“네 날노 더부러 원슈 업거늘, 부디 날를 죽
여 나라히 요공코져 호미, 님 몬져 너를 죽여
한을 씨고져 호되, 님 평칭에 살심을 아니호기
로 너를 스호느니, 너는 모로미 다시 이런 형실
를 말나.”

흐고 진언을 넘호니 도로 왕연희 된지라. 왕
공이 그제야 운치의 요술로 그리흔 줄 알고 황
겁하여 왈,

“툰공의 늑흔 직조를 모로고 그릇 죄를 범호
엿노라.”

흐고 무슈 스레호거늘, 운치 다시 당부 왈,

“그딴을 구호고 가느니 님 도라간 후에 집안
이 쇼동호리니 여츠여츠하라.”

흐고 남서부로 가니라. 왕공이 즉시 노복을
불녀 왈,

“그 요괴를 즉시 보라.”

흐니 노복 등이 방에 가 본즉 요괴 간 디 업
는지라. 모다 놀나 그딴로 고히디, 왕공이 양노
왈,

“여등이 직회기를 잘못하여 일헛도다.”

흐고 무슈히 꾸지져 물니치니라.

운치 다시 그 암중에 가 본즉 그 화상이 그
져 운치의 모양이 되엿거늘, 운치 그 화상을 향
하여 물을 썸고 진언을 넘호니, 도로 본상이 된
지라. 운치 디척 왈,

“네 증심이 되여 불도를 숭상할 거시여늘, 슈
절호는 계집을 유인하여 겁칙 훼손하여 츠쳐지
경의 밋게 하니, 그 죄 만스유경이라. 너를 던
운치의 얼굴이 되여 죽게 호엿더니, 츠아 살심
을 못하여 너를 살녀 도라와 다시 네 본상을
너여쥬느니, 츠후는 그런 형실을 형치 말나.”

흐고 집으로 도라오다가 혼곳의 다다라 본즉
여러 소년이 족즈를 가지고 닳토아 보며 칭찬
왈

“이 족즈 그림이 텃하 명쾌라”

호거늘, 운치 나아가 보니 곳 미인되라. 그
미인이 아회를 안아 희롱호는 형상이로디, 입으
로 말호는 듯 눈으로 보는 듯하여 싱괴 유동호
거늘, 운치 흐 계교를 싱각호고 우어웃어 왈,

“이 그림이 무어시 명화완디 그디 등이 엇지
과히 기리노뇨.”

그 중 오싱이란 지 답하되,

“그디 눈이 늙하 그러하거니와 물정을 모르는
말을 말나. 이 그림이 말하느 듯 보는 듯하니
엇지 명화 아니리오.”

운치 웃고 갑슬 무른즉 오싱이 대답하되,

“은즈 오십냥이니 그림보다가는 오히려 갑시
적다.”

하거늘, 운치 왈,

“넉게 혼 족직 이스니 그디 등은 보라.”

하고 쇼미 안호로서 미인도를 넉혀노흐니, 그
미인이 가장 아롭다운디 몸의 녹의홍상을 넓고
머리의 화관을 써스미 진짓 텃향국식이오, 절디
가인이라. 제인이 보고 칭찬 왈,

“이 그림도 싱기 온전하여 우리 족즈와 방불
하도다.”

하거늘, 운치 닝쇼 왈,

“그디 족즈도 조타 하려니와 싱기는 이 족즈
만 못하니 이 화격을 보라.”

하고 족즈를 걸며 가마니 부르되,

“쥬선낭은 어디 잇노뇨.”

하니 문득 그 미인이 대답하며 동즈를 다리
고 나오거늘, 운치 왈,

“모든 공즈씩 술를 부어 드리라.”

선낭이 대답하고 잔의 술를 부어 드리니, 운
치 문져 마시고 차례로 제인이 바다 마시미 쥬
미 가장 감열흔지라. 제인이 비쥬를 피파흔 후
의 선낭이 쥬안을 거두어 그림이 되여 드러서
니, 제싱이 되경하여 서로 이로디,

“이 그림은 텃상 죠화도 아니오, 몽중 희롱도
아니니 만고의 희한현 보비라.”

하더니, 오싱 왈,

“넉 시험하리라.”

하고 운치의게 청하되,

“우리들이 술이 낫부니 원컨디 넉 쥬선낭을
불너 술를 더 청하여보라.”

운치 허락하거늘, 오싱이 가마니 쥬선낭을 불
너 왈,

“술이 낫부니 더 먹기를 청하노라.”

하니 문득 쥬선낭이 대답하고 술병을 들며
동즈는 상을 가지고 의연이 나와 병을 기우려
술를 부어드리는지라. 오싱이 문져 먹고 제싱이
차례로 일비식 마신 후의 이러 스레 왈,

“오늘 존공을 맞나 조흔 술를 먹고 신기흔 일
를 보미 가장 다행하도다.”

운치 왈,

“이 족즈 그림이 비록 싱기 이스나 쓸디 업고
또 그림의 술를 먹고 무슴 스레 이스리오.”

오싱 왈,

“족즈를 쓸 디 업거든 넉게 팔고 가미 엇더하
뇨.”

운치 왈,

“부디 가질 스람이 잇거든 팔고져 하노라.”

오싱이 갑슬 무른디, 운치 왈,

“술병 가지 니는 텃상 쥬선낭이오. 술이 일싱
마르지 아니하니 극진흔 보비라. 그런 고로 은
즈 천냥을 맞고져 하노라.”

오싱 왈,

“갑지 다쇼는 불계하고 형은 넉 집으로 가미
엇더하뇨.”

운치 허락하고 혼가지로 오싱의 집의 가서
족즈를 쥬며 왈,

“넉 명일의 올 거시니 갑슬 츠려두라.”

하고 가더니, 오싱이 되취하미 족즈를 외당
벽상의 걸고 보니 쥬선낭이 병을 들고 섰거늘,
오싱이 그 고은 티도를 흠모하여 옥슈를 잡아
무릅 우회 안치고 스랑하믈 이기지 못하여 침
석의 나아가고져 혈 즈음의, 문득 문 열니는 곳
의 급히 달너 드러오니, 이는 오싱의 처 민시
라. 원넉 민시는 투기의 선봉이오 식음의 되장
이미 남의 일을 보아도 칼를 들고 넉닷는 성벽
이러니, 츠야의 오싱의 희롱하믈 보고 되로하
여 선낭을 치려 홀시 선낭이 밋서 그림 화상이 되
엿는지라. 민시 더욱 분노하여 족즈를 뒤편 썩
져바리니, 오싱이 되경 왈,

“남의 족즈를 스려 하고 은즈 천냥의 상약하
엿거늘 임지 오면 엇지하리오.”

민시 왈,

“임즈 오거든 너 맛당이 즐옥허리라.”

하며 서로 닳토를 마지 아니홀식, 맛춤 운치 오거늘 오칭이 마즈 그 스연을 이룬디, 운치 듯 고 민시를 속이고져 하여 민시를 금스망을 씨우니, 민시 속은 스람이나 몸은 디망이라. 말을 허려 하나 말이 나지 아니하고 이러나고져 하되 운신희 길 업는지라. 운치 오칭더러 왈,

“그디를 위하여 족즈를 두고 갓더니 이제 보빅를 업시하여스미 그디를 맛나미 불헿거니와 그디 집의 큰 변이 날 거시니 조심하라.”

오칭 왈,

“무슴 변피뇨.”

운치 왈,

“그디 집의 천년 무근 즈싱이 미양 그디 부인이 되여 작변허리라.”

오칭 왈,

“무슴 일노 요열이 작변허리오.”

운치 왈,

“그디 부인이 너 족즈를 씨져스미 요열이 되여 작난허리니, 그디는 방문을 열고 보라.”

오칭이 밋지 아니하여 방문을 열고 본즉, 과연 민시는 간디업고 기리 세 발은 현 디망이 업디엿거늘, 오칭이 디경실식하여 나와 운치더러 왈,

“과연 디망이 이스니 죽이고져 하노라.”

운치 말녀 왈,

“그 요괴 천년 무근 정녕이니 만일 죽이면 디혜 이러날 거시니, 너 부작 혼 장을 디망의 허리의 미여두면 금야에 즈연이 스러지리라.”

하고 부작을 너여 디망의 허리에 밋고 당부하여,

“문을 여러 보지 말나.”

하고 도라가 날 식기를 기다려 오칭의 집의 가서 민시를 보고 꾸지져 왈,

“네 가군을 업슈이 너겨 포악을 일삼으며 투기를 숭상하여 심지어 남의 족즈를 찢고 날를 욱허미 그 꺾로 금스망을 씨여 돌굼기 너허 고초를 격계 허려 하느니, 이제 허물을 고칠진디

금스망을 벗기리라.”

하니 민시 고기를 좇거늘, 운치 진언을 넘하니 금스망이 절노 버셔지미 민시 황연이 이러나 빅비스레허더라.

운치 집으로 도라오다가 전일 동학하던 양봉안이란 스람을 츠즈가본즉 병드러 누엇거늘, 운치 놀나 병 증세를 즈세히 못거늘, 양싱 왈,

“심복이 알푸고 식음을 전폐헌 지 오릭미 다시 회싱치 못헿가 하노라.”

운치 진믹하고 왈,

“이 병이 스람을 싱각하여 난 병이니 누를 말미암아 이 병이 낫는뇨.”

양싱 왈,

“과연 그러하도다. 다름이 아니라 남문 안 히현동의셔 스는 덩시란 녀즈는 경국지식이오, 일즉 과거헌지라. 우리 삼촌 집과 격린헿스미 담 스이로 우연이 본 후로 스모하는 마음이 일일 간절하여 병세 여츠하니, 필경 세상이 불구헿가 하노라.”

운치 왈,

“말 잘하는 미파를 보너여 통혼하여보라.”

양싱 왈,

“그 녀즈 절헿이 특이허미 성스치 못하고 도로혀 욱을 취헿가 하노라.”

운치 왈,

“그러하면 너 형을 위하여 그 녀즈를 다려오미 엿더하뇨.”

양싱 왈,

“형이 아모리 직꺾 능하나 그 녀즈를 다려오지 못허리니 부절업시 싱의치 말나.”

운치 왈,

“형은 녀녀 말나.”

하며 구름을 타고 가니라.

츠셜. 덩시 일즉 과거하여 주야 슬허하여 죽고져 하되, 우호로 노피 계시고 다른 동귀 업는 고로 모네 의지하여 세월를 보닌지라. 일일은 덩시 심회를 정치 못하여 방중의셔 비회허더니, 문득 구름 속의 일위 선관이 홍포옥디의 머리의 금관을 쓰고 손의 옥홀를 쥐고 청음 낭성으

로 불너 왓,

“쥬인 덩시는 나와 옥제 교명을 드르라.”

헝거늘, 덩시 츀언을 듯고 모친씨 고힐딕, 그 모씨 놀나며 고힐 녀겨 급히 청상에 향안을 빅설헝고 덩시 쫘의 나려 업딘딕, 운치 이로딕,

“문선낭야. 인간 즈미 엇더호뇨. 이제 텃상요 디반도연의 춤예하라.”

헝거늘, 덩시 옥척을 듯고 딕경 왓,

“첩은 인간 더러운 몸이오, 쏘흔 꺾인이라. 엇지 텃상에 올라가리오.”

운치 왓,

“문선낭은 인간 더러운 물을 먹어 텃상 일을 이져도다.”

헝고 호로파의 향운을 가득 부어 동조로 헝여곰 권헝거늘, 덩시 바다 마신즉 정신이 아득헝여 인스를 모로논지라. 운치 인헝여 덩시를 구름의 썸 공중의 오르니, 그 모시 공중을 향헝여 무슈 하례헝더라.

이적의 강님도령이 모든 거어지를 모화 저지거리로 다니며 낭식을 비더니, 홀연 향취 웅비헝며 칙운이 동남으로 가거늘, 강님도령이 치미러보고 손을 드러 혼 번 구름을 가르치니, 운문이 절노 열니며 선관과 고은 계집이 싸히 썸러지니, 이는 던운치라. 운치 덩시를 다려 구름를 타고 공중으로 가더니, 문득 거문 기운이 공중의 오르며 법술이 절노 풀너 싸히 썸러지미, 운치 딕경헝여 좌우를 슸퍼본즉 아모것도 업거늘, 고힐 녀겨 다시 술법을 헝히려 헝시, 문득 혼 거어지 아회 나와 딕미 왓,

“필부 던운치는 드르라. 네 요술를 비화 하늘를 속이고 열부를 꿰절코져 헝니 엇지 명턴이 무심헝시리오. 이러므로 날노 헝여곰 너 갓흔놈을 죽이라 헝시미니 날를 원치 말나.”

헝거늘, 운치 딕로헝여 찢던 칼를 썸혀 저히 고힐 헝즉, 그 칼이 화헝여 빅회 되여 도로혀운치를 헝히려 헝니, 운치 의심헝여 꺾코져 헝다가 문득 발이 싸히 붓고 움죽이지 못헝미 급히 변심코즈 헝나 법술이 헝치 못헝논지라. 운치 딕경헝여 슸퍼본즉, 그 아회 의상이 남누헝

나 도술이 늙흔 줄 알고 몸을 곱혀 비러 왓,

“쇼싱이 눈이 이스나 망울이 업서 선싱을 몰나 보오니 그 꺾 만스무석이오나 고당의 노피게시고 집이 빈한헝여 능히 봉양헝 슈 업서 부득이 님군을 속이미오, 두번지는 목숨을 도모헝미오, 이제 덩시 절헝을 헝히려 헝흔 병든 벼을 살오려 헝오미니, 원컨딕 선싱은 꺾를 슸헝시고 선도를 가르치쇼셔.”

강님도령 왓,

“그딕 이르니 아니헝여도 나는 밭서 아랫거니와, 국운이 불헝헝여 그딕 갓흔 요술이 무란히 작변헝미 그딕를 죽일 거시로딕 그딕 노모 정상을 싱각헝여 아직 살니느니, 이제 썸니 덩시를 다려다가 제집의 두고 양가는 조흔 계교로 살너넌되 덩시를 딕신 헝 슸람이 이스니, 일즉 부모를 여희고 헝헝무의헝여 극히 빈한헝나 그 마음이 어질고 성이 덩시오, 나히 쏘흔 삼팔이니, 그딕 만일 너 말를 어기면 몸의 딕해 밋즈리라.”

운치 슸레 왓,

“선싱의 고성딕명을 알고져 헝늬이다.”

기인 왓,

“나는 강님도령이니 세상을 희롱코져 헝여 두로 다니노라.”

헝고 요술 헝헝는 법을 도로 쥬려노흐니, 운치 즉시 덩시를 다리고 덩시 집의 가서 공중의 서 그 모친을 불너 위여 왓,

“앗가 옥경의 올라간즉 상제 이르스딕, ‘문선낭이 아직 꺾 진치 못헝엿스미 도로 인간의 보늬여 고힐을 더 지닌 후 다려 오라.’ 헝시기로 도로 다려왔스니 부딕 선싱을 닷게 하라.”

헝며 향약을 늬여 덩시 입의 드리오니, 이윽고 덩시 썸여 정신을 츀리더라.

직설. 운치 다시 강님도령씨 가서 그 녀즈의 거처를 무르딕, 강님도령이 환영단을 쥬며 그 집을 가르치거늘, 운치 하직헝고 그 집을 츀즈가니 일간모옥이 퇴락헝 곳의 혼 녀즈 시름을 썸여 홀노 안져거늘, 운치 나아가 달늬여 왓,

“낭즈의 고단헝흔 너 이미 아랫거니와 낭즈의

춘광이 삼철이 지나도록 출가치 못하여 외로운
경상이 가공흔지라. 너 낭즈를 위하여 중미 되
고져 호노라.”

낭직 붓그려 머리를 슈기거늘, 운치 인하여
환영단을 먹이고 물을 썸으며 진언을 념하니
의심 업슨 덩가녀의 얼굴이 된지라. 운치 덩시
더러 양싱의 병든 곡절과 덩녀를 다려오던 스
연을 이르며 여츠여츠하라 호고 보즈를 씨워
구름을 타고 양싱의 집의 가 그 념즈를 외당에
두고 너실에 드러가 양싱을 보고 왈,

“과연 덩녀의 절형이 늑호미 감히 말을 발뵈
지 못호고 그져 왔노라.”

양싱이 츤연 탄 왈,

“형의 직조로도 성스치 못하니 엇지 다시 싱
의나 호리오.”

호거늘 운치 만단기유하며 무슈히 조롱하다
가 왈,

“너 이번의 덩녀는 못 다려왔거니와 덩녀의서
십비나 더 고은 미인을 어더왔노라.”

양싱 왈,

“너 미인을 만히 보앗스나 덩녀 갓흔 인물은
업느니 형은 모로미 농담을 말지어다.”

운치 왈,

“너 엇지 병인과 희롱호리오. 이제 외당의 두
고 왔스니 이는 경성지식이라. 나가 보면 알니
라.”

호니 양싱이 반신반의하여 강잉이 이러 외당
의 나가 본즉 과연 일위 미인이 쇼복을 호엿는
디 두렷흔 얼굴은 츤턴 명월이오, 분명흔 눈썹
는 싯별 갓트여 천티만염이 비홀 디 업느니라.
양싱이 호 번 보미 이는 오믹스복하던 덩시여
늘 양싱이 정신이 황홀하여 여취여광하여 반갑
고 즐거오를 참아 못 이기여 이후로 병세 점점
나하가더라.

각설. 운치 호주를 보고져 하여 레담을 갓쵸
아 가지고 호주로 가니라. 이적의 서화담이 시
동을 분부하여 왈,

“금일 오시에 던싱이란 스람이 올 거시니 쇼
당을 쇠쇼하라.”

호더니, 츤시 운치 신문의 다다라 완보하여
두루 구경흔즉 송죽은 창창, 간슈는 잔잔흔디
미록은 벼을 츤즈다니며 빅학은 춤을 희롱하니,
이 진짓 별유탄디비인간이라. 죽님 스이 시비의
나아가 두다리니, 동지 나와 문 왈,

“선싱이 그 아니 던공이신가.”

운치 왈,

“동지 엇지 날를 아나다.”

동지 왈,

“아츰의 선싱이 이르신고로 아나다.”

운치 디회하여 동즈로 하여곰 폐빅을 밧드러
드리고 비오믈 청흔디, 화담이 즉시 쇼담으로
청하여 빈주지네를 맞고 말슴힐시, 운치 왈,

“쇼싱이 선싱의 늑흔 일흠을 우레갓치 듯잡고
불원천리하여 왔스오니 선싱은 가르치시믈 바
라나다.”

화담이 손스 왈,

“던공이 날를 빅바드라 왔도다. 너 무슴 도학
이 잇관디 이갓치 과찬호느뇨. 너 드르니 그디
법술이 늑하 모믈 일이 업다 호미 호번 보기를
원호더니 이제 맞나미 평싱 만항이로다.”

운치 이러 칭스호고 종일 한담호더니, 화담이
시비를 명하여 주찬을 직촉호고 쏘 칼를 썻혀
벽상에 쏘즈니 신선의 열출쥬 주준의 흘너 잠
간 스이의 호 향이 츤거늘, 즉시 칼를 썻히고
북벽의 걸닌 족즈 그림의 빗난 치각이 두렷흔
디, 스창을 열고 본즉 치의 입은 선네 주반을
갓초아 들고 나와 운치 압히 노코 잔을 밧드러
술를 권호거늘, 운치 바다 먹은즉 극히 향기로
온지라. 화담의 칭사 왈,

“쇼싱이 선경의 이르러 경장옥익과 진슈미찬
을 맛보오니 지극 감스호여이다.”

화담이 쇼 왈,

“그디 엇지 박쥬 ○○○ 일캣느뇨.”

호며 서로 슈작힐시, 문득 일위 선싱이 갓건
야복으로 드러와 갈오디,

“좌각은 뉘시뇨.”

화담 왈,

“남서부의 잇는 던공이니라.”

하고 운치를 향하여 왈,

“이는 나의 아오 용담이여니와 그딕와 일면지 분이 업기로 디직지도를 일허스니, 그딕는 용서하라.”

운치 눈을 드러 용담을 보니 미목이 청슈하고 골격이 현양하여 위풍이 사람을 놀리는지라. 이윽고 용담이 운치의게 네하여 왈,

“선싱의 늑흔 술법을 드린 지 오릭되 금일이야 서로 만나미 천만번 늦도다. 그러하나 원컨디 선싱의 도술를 한번 구경코져 호노라.”

운치 왈,

“용렬흔 사람이 엇지 도술이 이스리오.”

용담이 직삼 간청흔디 운치 한번 시험코져 하여 즉시 진언을 넘하니, 용담이 쓴 관이 변하여 썰이 세 발이나 흔 쇠머리 되어 석상의 썰러져 눈을 실누기고 입을 버리니, 용담이 주괴관을 쇠머리 만들믈 보고 노하여 즉시 진언을 넘흔즉, 운치의 썰던 갓시 변하여 듯회 머리 되어 암상의 내려져 엄니를 드러니고 귀를 썰져 기는지라. 운치 헤오디,

‘측인의 직췌 비상하니 가히 겨러보리라.’

하고, 제두를 향하여 진언을 넘하니 듯회 머리 변하여 세 가리 장창이 되엇거늘, 용담이 또 혼 우두를 향하여 진언을 넘하니 쇠머리 변하여 큰 칼이 되어 장창과 공중의 올라 어우러져 싹호니, 창검이 일광의 바이더라. 용담이 또 부체를 더지며 진언을 넘하니 칼과 부척 화하여 적룡과 청룡이 되고, 운치 켜엿던 선츄를 더진즉 창과 선취 화하여 빅룡 흑룡이 되어 네 놓이 어우러져 싹호미 운뫼 즈윽하고 벽녁이 진동하여 불분승뵈러니 청룡 적룡이 점점 시진거늘, 화담이 헤오디,

‘두 사람이 직조를 결우다가는 필경 조치 아니리라.’

하고 연적을 치치니, 문득 그거시 모다 싸히 썰러져 화하여 도로 본상이 되는지라. 운치 묻져 갓슬 집어 쓰고 선츄를 거둔 후의 말슴를 화히 호되 용담은 즐겨 선즈와 관을 거두지 아니거늘, 운치 하직 왈,

“오날 외람이 직조를 결위 선싱의 늑○○○○○○○○○○ 그 췌 가장 크오미 후일의 스췌하리이다.”

하고 도라가거늘, 화담이 운치를 보니고 용담을 꾸지져 왈,

“너는 청룡 적룡을 낚고 운치는 빅룡 흑룡을 낚니, 청은 목이며 적은 화요 빅은 금이며 흑은 슈니 오희의 금극목 슈극해라. 네 엇지 운치를 이기며 허물며 너 집의 온 손을 부절업시 결위히코져 호노뇨.”

용담이 스췌하나 마음의 가장 운치를 노하여 히헐 뜻이 잇더라.

그후 삼일 만의 운치 화담을 차자뵈온디, 화담 왈,

“너 그딕의게 청혈 일이 이스니 즐겨 좃출쇼냐.”

운치 왈,

“무슨 일이니잇고.”

화담 왈,

“남히 중의 큰 산이 이스니 명 왈 화산이오, 그 산중의 도인이 이스되 도호는 운슈선싱이라. 너 ○로 슈학하더니 그 선싱이 여러 번 글월를 부러스되 지금 회스치 못하엿느니, 이제 그딕를 만나스미 그딕 가히 다녀올쇼냐.”

운치 혼연이 허락거늘, 화담 왈,

“너 싱각진디 화산은 히중이니 슈히 다녀오지 못헐가 호노라.”

운치 왈,

“쇼싱이 비록 무직호오나 순식간의 다녀오리이다.”

화담이 종시 밋지 아니거늘, 운치 녀렴의 화담이 업슈이 녀기는가 하여 왈,

“싱이 만일 순식간의 다녀오지 못하거든 이의셔 죽어도 다시 산문을 나지 아니하리이다.”

화담 왈,

“진실노 그러헐진디 가려니와 힝혀 실슈 이슬가 호노라.”

하고, 즉시 글월를 닷가주니, 운치 바다가지고 변신하여 히동청 보라미 되어 공중의 올라

히중을 향하여 가며 바라보니 난티업슨 그물이
압홀 가리왔거늘, 운치 너머가려 혼즉 그물이
오르는데로 눕하 압홀 가리오미 운치 쇼쇼써
아모리 그물을 너무려 하되 그물이 점점 사라
눕하 하늘의 다햇고 아리 버리는 물속의 잠겼
는지라. 쏘 좌우편으로 눕히 써가려 하나 그물
이 턱번의 다햇스미 화산을 갈 슈 업서 십여일
를 죽기로 그음하여 이를 쓰다가 홀일업서 도
라와 화담을 보고 히중의셔 신고하던 스연을
○○○, 화담 왓,

“그딕 큰 말 하고 ○○○○○○○○○○○○○○○○○
○○○출산문하미 엇더하뇨.”

운치 무안하여 다라나고져 하더니 화담이 알
고 변신하여 숲이 되어 다라드니, 운치 일이 급
하미 변신하여 보라미 되어 날너 혼즉, 화담이
또한 청스직 되어 ○○를 무려 박지르고 딕미
왓,

“너 갓흔 요술이 괴군망상하고 작난이 무상하
니 엇지 죽이지 아니하리오.”

운치 이결 왓,

“선싱의 ○고하시를 모르고 존위를 범하엿스
미 죄당만시오나, 쇼싱의 노피 잇스오니 원 선
싱은 잔명을 빌니쇼셔.”

화담 왓,

“넌 이번은 살나거니와 다시 그런 무상한 일
형치 말고 그딕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딕 모친
이 기세 후의 날과 영주산의 드러가 선도를 닷
그미 엇더하뇨.”

운치 왓,

“선싱의 교훈디로 봉형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흔 후의 집의 도라와 요술
를 형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운치 모부인이 졸하니 운치 네를 갓
초아 선산의 안장하고 삼년을 밋드더니, 일일은
화담이 왔거늘, 운치 황망이 나와 마즈 네필 좌
정 후의 화담 왓,

“그딕와 상약흔 일이 이스미 그딕 직상하를
알고 왔거○ 이제 그 산의 잇는 구미호를 잡아
석갑의 가도고 그 굴혈를 불지르미 엇더하뇨.”

운치 왓,

“이제 선싱이 이 여호를 업시하시면 진실노
일국의 만형일싸 하느이다.”

화담 왓,

“넌 이○ ○딕를 다려가려 하느니, 형장을 슈
습하라.”

하거늘, 운치 딕○하여 가산을 훑터 노복을
주며 왓,

“나는 이제 영결하느니, 여등은 무양이 이셔
나의 조선 향화를 밋들나.”

하고 선영의 하직흔 후의 화담을 띄서 구름
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기후스는 아지 못
하니라.

丁未仲春由谷新刊